

# 국가 상징물 제작 및 국가기관 디자인 연구

- 청와대를 중심으로 -

2004. 4. 30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자원부

# 제 출 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기간 : 2003.5.1~2004.4.30)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4. 30

주관기관명 : 한국디자인진흥원

총괄책임자 : 이 순 인

연 구 원 : 박 희 면

손 동 범

허 석

송 효 식

고 경 민

## 요 약 서 (초록)

<b>사 업 명</b>	국가 상징물 제작 및 국가기관 CI 연구		
<b>주관기관</b>	한국디자인진흥원	<b>총괄책임자</b>	이 순 인
<b>총사업기간</b>	2003. 5. 1 ~ 2004. 4. 30 (12개월)		
<b>총개발사업비 (천원)</b>	정부출연금 : 150,000	민간부담금 : -	계 : 150,000
<b>참여기간</b>	2003. 5. 1 ~ 2004. 4. 30 (12개월)		
<b>주 제 어</b>	이미지 조사, 국가 상징물, 국가기관 CI, 해외 나라문장		

### 1. 최종(당해) 개발 목표

- 국가기관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으로 확대 시켜 세계의 우리나라 인지도 확산 및 정체성 구축
- 국가 이미지는 그 민족의 이미지를 반영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정립하고 그 기반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향상
- 국가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National Identity Program System 구축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국가기관 이미지 관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및 부가가치 상승 유도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현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에 대한 인식이 다소 권위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 성향이 강하며,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응용사례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 필요
- 장기적인 차원에서 National Identity Program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사업 추진방향 설정 / 기초 자료조사 및 분석(국가기관 이미지 조사)
- 참여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디자인개발업체 선정 / Basic System 및 Application System, 관리운영지침 개발

### 4. 연구개발 결과

본 사업은 디자인 시안 공모를 통하여 4개 업체를 선정 후, 4개 업체에서 디자인 시안을 각각 4개안씩 개발(총 12개 시안)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2개 연구시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활용방안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5. 기대 효과

- 국가기관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세계적인 DESIGN KOREA 기틀 마련
-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National Identity Program 구축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표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표 .....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4
제2장 국가상징물의 개요 .....	9
제1절 국가상징물의 개념 .....	9
1. 국가상징의 의미 .....	9
2. 국가상징의 유래 .....	9
3. 국가상징의 기능 .....	11
제2절 국가상징물의 종류 및 역할 .....	12
1. 국가상징물의 종류 .....	12
1-1. 태극기 .....	13
가. 태극기에 담긴 뜻	
나. 태극기의 내력	
다. 태극기의 유래	
라. 태극기의 의미	
(1) 태극기 도형설명	
(2) 흰색 바탕과 태극문양	
(3) 4괘의 의미	
마. 태극기의 변천과정	
1-2. 나라문장 .....	21
가. 근거	
나. 표준규격	
다. 사용방법과 대상	
(1) 사용방법	
(2) 사용대상	

1-3. 대통령 표장	23
가.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	
나. 기의 표준규격	
다. 휘장의 표준규격	
라. 봉황의 의미	
1-4. 국새 (나라도장)	27
가. 국새의 명칭과 의미	
(1) 국새의 명칭	
(2) 국새의 의미	
나. 국새의 기원과 역사	
다. 국새의 시각적 특징	
(1) 국새 서체의 특징	
(2) 국새 인영에 담긴 뜻	
(3) 인뉴(印紐, 손잡이)	
(4) 국새 인끈, 보, 술	
(5) 국새함	
1-5. 휘장 및 훈장	33
1-6. 정부기	35
가. 형태적 특성	
나. 제작방법 및 사용방법	
다. 대통령인, 국무총리인	
1-7. 국화 (무궁화)	38
가. 무궁화의 내력	
나. 풍속과 상징	
다. 무궁화의 시각적 활용실태	
2. 국가상징물의 역할	41
3. 해외 사례연구	44
4. 국내 사례연구	46
<b>제3절 청와대 이미지 분석</b>	<b>49</b>
1. 기존 청와대 심볼마크의 이미지 분석	49
2. 기존 마크의 장단점 분석	52
2-1. 기존 청와대 문장의 장점	52
2-2. 기존 청와대 문장의 단점	53
2-3. 기존 청와대 문장의 교체희망 여부	53
3. 새로운 심볼마크가 가졌으면 하는 이미지	54
3-1. 새로운 청와대 문장에 포함되어야 할 의미	54

3-2. 새로운 청와대의 색깔 .....	56
3-3. 청와대에 대한 느낌 .....	56
3-4. 기타 건의사항 및 바람 .....	57

### 제3장 결론(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58

제1절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58
-----------------------	----

제2절 기대효과 및 후속관리 .....	82
-----------------------	----

#### [그림 목차]

그림 1.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 .....	2
그림 2. 태극기 .....	13
그림 3. 4괘 .....	18
그림 4. 최초 태극기 .....	19
그림 5. 고종황제 하사품 태극기 .....	19
그림 6. 독립신문의 제호 태극기 .....	20
그림 7. 파리박람회 계양 태극기 .....	20
그림 8. 현재 태극기 .....	20
그림 9. 문장 .....	21
그림 10. 문장 작도법 .....	22
그림 11. 표장 .....	23
그림 12. 기의 표준규격 .....	24
그림 13. 휘장 표준규격 .....	25
그림 14. 국새 .....	30
그림 15. 인뉴(印紐) .....	31
그림 16. 인끈, 보, 술 .....	31
그림 17. 국새함 .....	32
그림 18. 휘장 .....	33
그림 19. 훈장 .....	35
그림 20. 정부기 .....	36

그림 21. 정부기 작도법 .....	36
그림 22. 국외 나라별 문장 사례 .....	44
그림 23. 부처 및 관련기관 CI 사례 .....	46
그림 24. 기존 청와대 심볼마크 .....	49
그림 25. 연구 A 시안 .....	58
그림 26. 연구 A 시안 적용 예 .....	59
그림 27. 연구 B 시안 .....	60
그림 28. 연구 B 시안 적용 예 .....	61
그림 29. 연구 C 시안 .....	62
그림 30. 연구 C 시안 적용 예 .....	63
그림 31. 연구 D 시안 .....	64
그림 32. 연구 D 시안 적용 예 .....	65
그림 33. 연구 E 시안 .....	66
그림 34. 연구 E 시안 적용 예 .....	67
그림 35. 연구 F 시안 .....	68
그림 36. 연구 F 시안 적용 예 .....	69
그림 37. 연구 G 시안 .....	70
그림 38. 연구 G 시안 적용 예 .....	71
그림 39. 연구 H 시안 .....	72
그림 40. 연구 H 시안 적용 예 .....	73
그림 41. 연구 I 시안 .....	74
그림 42. 연구 I 시안 적용 예 .....	75
그림 43. 연구 J 시안 .....	76
그림 44. 연구 J 시안 적용 예 .....	77
그림 45. 연구 K 시안 .....	78
그림 46. 연구 K 시안 적용 예 .....	79
그림 47. 연구 L 시안 .....	80
그림 48. 연구 L 시안 적용 예 .....	81
그림 49. 참여정부 국정원리 .....	82

## [표 목차]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	50
-------------------------	----

표 2. 청와대 문장의 장점 .....	52
표 3. 청와대 문장의 단점 .....	53
표 4. 청와대 문장 교체여부 .....	54
표 5. 청와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느낌 .....	5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표

###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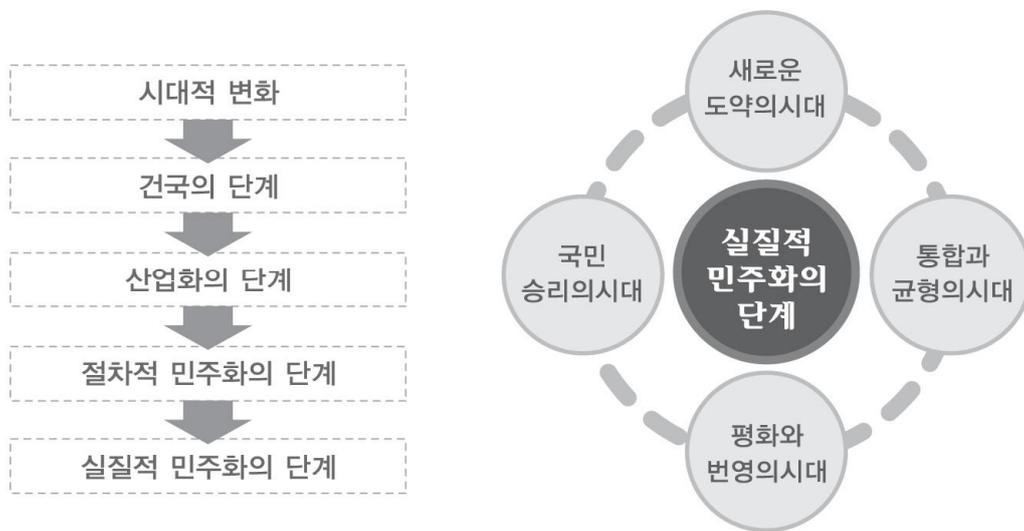
국가 상징체계의 개요는 국가의 본질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객체에서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시스템으로 국가의 경제구조, 이념적 지향방향, 역사와 전통, 사회문화 등 국가의 본질적 요소를 기반을 이미지화하여 만들어진 국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내국인 뿐 아니라 재외동포에게는 구가소속감을 주는 하나의 상징체계가 되는 것이며 외국인과 해외 언론에 비춰지는 국가의 시각적 이미지이다.

청와대는 국민에 봉사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한 중추적 장소이며 대내외적으로는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6.29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새로운 집무공간으로 청와대에는 대통령내외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저와, 대통령께서 국정을 돌보시는 본관, 그리고 일반 언론에게 공개되는 유일한 장소로 춘추관이 있다. 이러한 대통령 집무공간인 청와대를 상징하는 심볼마크의 형태 역시 청와대의 형태적인 이미지를 접목시켜 만들어진 형태이다. 대통령 집무실인 한식건물(본관)과 그 뒤쪽의 북악산을 도형화한 기본형을 기본으로 응용되어 쓰여 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에 대한 인식이 다소 권위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 성향이 강하며,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응용사례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청와대의 통일된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청와대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도약을 상징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National Identity Program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새로운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라는 청와대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표출이다. 또한 국가기관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세계적인 “DESIGN KOREA”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National Identity Program 구축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본 과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1)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

## 2. 연구 목표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다.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청와대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징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표출이다.

현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에 대한 인식이 다소 권위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 성향이 강하며,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응용사례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 이미지 창출 필요하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National Identity Program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로운 청와대 CI 개발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는 국가권위의 정통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용부처 및 국민들에게 소속감 및 결속감을 강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현 정권의 이미지 개선 및 국민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범세계적인 이미지 개선 작업의 시발점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 국가기관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으로 확대시켜 세계의 우리나라 인지도 확산 및 정체성 구축
- 국가 이미지는 그 민족의 이미지를 반영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정립하고 그 기반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향상
- 국가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National Identity Program System 구축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국가기관 이미지 관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및 부가가치 상승 유도이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1 단계

#### 사업 추진방향 결정

##### ※ 참여, 위탁기관 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

- www.designdb.com 사이트에 게재  
(접수일시, 참여 자격조건 및 방법 등)
- 위탁기관 4개사 선정 예정  
(4개사 공모를 통한 1개사 개발업체 선정 예정)

### 2 단계

#### 기초 자료조사 및 분석

##### ※ 전문 리서치 업체를 선정, 의뢰하여 추진

- 청와대 내의 환경조사 분석
  - 기존 심볼 분석 및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 해외사례 및 관련자료 조사 분석
  - 새로운 CI 개발에 대한 방향성 검토 등
- 개발방향 및 컨셉 추출
  - 디자인 모티브 추출을 위한 콘텐츠 조사
  - 기본 컨셉에 따른 디자인 모티브 추출

### 3 단계

#### 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

- 세부추진방법 및 디자인 시안(제안서) 자문 및 결정
  - 디자인 개발 참여업체 선정
  - 디자인 시안(제안서) 자문 및 평가
  - 향후 활용성에 대한 자문 등

### 4 단계

#### 디자인개발 업체(4개사) 선정 예정

##### ※ 디자인 공모 참여업체 4개사 선정 예정

- 디자인자문위원회를 통해 4개 업체 선정 예정
  - 업체 일반현황 및 사업과의 관련성
  - 사업추진 목표의 실현 가능성
  - 경영자의 전문성 및 경력
  - 인력의 동사업과의 부합성
  - 인력의 전문성 (과업실적, 경력 등)
  - 실적물의 우수성, 독창성 및 창의성
  - 정부 및 지자체 프로젝트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업체 선정

## 5 단계

### 선정업체(4개사) 실무 Meeting

#### ※ 선정된 4개 업체 실무협의회 개최

- 디자인 시안 전개 방향 설명(여론조사 보고서 참조)
- 디자인 시안 작업 시 고려사항 등 설명

## 6 단계

### 디자인 시안 접수

#### ※ 선정된 4개 업체의 디자인 시안 접수

- 업체별 각 3개 시안 접수 (총 12개 시안)
  - 디자인 적용계획, 활용도, 홍보계획, 향후 국가 이미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시안 접수

## 7 단계

### 기본형 보고 (1차 Presentation)

#### ○ 제시된 12개 시안 디자인자문위원회에 상정

-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3-5종 시안 압축

#### ※ 구체적인 Presentation 방법

- 시안종수 : 업체별 각 3종
- PT내용 : Power Point로 작성 (CD로 제출)
- 보드규격 : 폼보드 2절 (총 6장)
- 보드내용

시안별 각 1장(총3장) : 심볼/로고, 최소규정, 시안의미

시안별 적용 예(총3장) : 각 시안별 3종

## 8 단계

### 수정보완 및 2차 Presentation

-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압축(3-5종)된 시안 수정보완 후 확정
  - 적용사례 예 제시

## 9 단계

### 디자인 시안 확정보고 (청와대)

- 디자인자문위원회에 최종 선별된 시안(3~5종) 보고
  - 청와대와 행정지원, 홍보지원, 디자인개발 등 관련부처 위원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시안 확정
- 최종 확정된 시안 개발업체와 용역 계약체결 (70,000 천원)
  - 최종 선정업체를 제외한 3업체에 리젝트 비용 각각 10,000 천원씩 지급)

## 10 단계

### 응용편(Application) 개발

#### ※ 응용편(Application) 등 활용방안 개발

- 확정된 최종시안에 대한 Application System 개발
  - 활용방안 및 홍보계획 등

## 11 단계

### 최종 보고회 개최 (청와대)

- ※ 기본편(Basic System) 및  
응용편(Application System) 최종 보고
  - 추진위원회 및 관련부처 등 공청회 개최

## 12 단계

### 관리운영지침(매뉴얼) 개발

- ※ 관리운영지침 제작
  -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납품
    - 매뉴얼(100부), 리플렛(2,000부)
  - 홍보방법, 사후관리 등 제안

## 제2장 국가상징의 개요

### 제1절 국가상징물의 개념

#### 1. 국가상징의 의미

상징(象徴)이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나타내는 기호를 말하며,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을 상징물이라 한다. 인간의 정치, 종교, 경제 및 기타 모든 집단의 생활과정에서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예를 들면 평화를 나타내는 비둘기, 종교를 알게 하는 십자가 등이 그것이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는 국기와 국가(國歌) 그리고 휘장(徽章), 훈장(勳章)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징물은 멋대로 만들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역사성과 전통 그리고 문화양식의 영향을 받아 집단에 의해 형성되어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공통의 반응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 2. 국가상징의 유래

오늘날 세계 각국이 저마다 국가의 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한 국가나 국민의 이념적 통일체인 '상징(象徴)'을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중세봉건시대

가 막을 내리고 근대 입헌주의적 국민주권국가가 탄생되기 시작하던 18세기경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大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집단끼리 싸움이 일어날 경우 아군과 적군간에 서로를 구별하거나 또는 아군끼리의 신호 수단 등으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가장 먼저 군기(軍旗)가 발달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는 덴마크의 국기 '단네브룩' <Dannebraog>으로서 이것은 1219년 국왕 Waldemar 2세가 이교도(異教徒)와 싸울 때 신의 계시에 따라 붉은 천에 흰 십자 휘장을 군기로 사용하였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여 그 후 국기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국기의 기원을 찾는다면 제3차 십자군원정(1188~1192)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후 점차 국제적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바다를 항해하는 상선(商船)들이 사용한 선기(船旗)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봉건시대 이전에도 군주(君主)나 황실(皇室)의 상징으로 또는 유명한 가문(家門)에서도 나름대로 기장(旗章)이나 문장(紋章)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일반 국민이나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국민주권국가로서 최초의 국가상징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폭정에 저항하여 들고 일어선 혁명 군대가 내부적인 결속을 공고히 하여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깃발로서 현재 프랑스가 국기(國旗)로 사용하고 있는 '삼색기(三色旗, Tricolor)를 들 수 있다. 이 기는 1794년 법률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청, 백, 적(靑白赤)의 삼색기(三色旗)로 결정되었는데, 삼색(三色)은 파리지(市)의 색깔인 청(靑)과 적(赤), 그리고 부르봉 왕가(王家)의 상징인 백(白)이라고 믿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혁명 당시의 표어인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를 각각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 이러한 상징이 세계 각 국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에 맞는 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3. 국가상징의 기능

국가상징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상징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상징은 국가와 국민의 최고 이상을 대표하게 되는 동시에 그의 정신이요, 그의 생명이 되어 언제나 독립 자주의 최고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곧 그 국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자기 나라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와 그 국민의 절대 책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어 실례가 될 때에는 개인이든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벌책(罰責)을 면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국가간 외교 문제는 물론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상징이 국가간의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국가상징이 지니고 있는 국가적 상징성과 민족정신의 표현이라는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제2절 국가상징물의 종류 및 역할

### 1. 국가상징의 종류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를 기초로 한 국기·국가·국화 등을 국가상징으로 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나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상징을 정하여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무궁화(無窮花)의 경우처럼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징을 일반적으로 ‘공식적(公式的)인 상징’과 ‘비공식적(非公式的)인 상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상징으로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손꼽히는 나라 깃발 [國旗. National Flag] 을 비롯하여 나라 노래 [國歌. National Anthem] ·나라 꽃 [國花. National Flower] ·나라 문장 [紋章. National Emblem] ·나라 인장 [國璽. The Great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미국의 흰머리 독수리, 영국의 울새, 독일의 붉은 부리 황새, 프랑스의 수탉, 일본의 꿩과 같은 나라 새 [國鳥, National Bird] 도 있으며, 인도의 인도공작, 덴마크의 종달새, 에콰도르의 거북이와 같은 나라 동물 [國獸: 국수. National Animal] 도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의 단풍나무와 Red and White와 같이 나라 나무 [國木. National Tree] , 나라 색 [國色. National Color] 으로 각각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보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나라 인장 [國璽: 국새] 이 있다.

위와 같이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국기, 국가(國歌), 국화(國花), 나라문장 등 여러 종류의 국가상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도장), 나라문장 등이 있다.

## 1-1. 태극기



(그림 2) 태극기

국기는 한 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일과 단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기의 기원은 고대 국가의 여러 부족이나 집단의 표시로 깃발을 사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문장이나 기장 등을 볼 수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국기는 한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표지로 발전하였다.

국기는 그 국가의 상징을 특정한 빛깔과 모양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색깔과 모양을 달리 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때에는 자국의 국기를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국제연합 빌딩 앞에는 각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그 국가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국기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져 있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의 수만큼 별이 그려져 있으며 수가 증가할 때에는 별의 수도 증가했다.

프랑스의 삼색기는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왕조에 대항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을 표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국가로부터 새나 매, 봉황, 거북, 용, 호랑이 등 짐승의 모습을 기에 담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왕권을 상징하는 어기나 군대의 깃발로 사용되었다. 현행 국기인 태극기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과 사상을 지배해 온 태극의 정신이 들어 있고, 민족의 꽃으로서 겨레의 얼이 담긴 무궁화의 봉오리로 깃봉을 조각하였다.

## 가.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흰 바탕은 백의민족의 순결성과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성을 표상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배달(倍達) 겨레, 백의민족이라 불려 왔으며, 유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흰 꽃인 이화(李花)를 왕가의 휘장으로 사용한 것에 서도 알 수 있듯이 흰빛을 숭상하였다. 흰빛은 순결과 순박을 뜻하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 조상 대대로 아껴왔다.

태극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태극도형은 우리의 고대 문화유적에서도 사용 흔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문헌상으로 태극기에 대해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 중국 송나라의 주염계(A.D. 1017~1073)의 ‘태극도설’보다 약 400년이 앞선 신라시대에 건립된 감은사지(感恩寺址 A.D.682 건립)의 석각(石刻)에 새겨진 태극도형이나, 고려 인종 때의 고위관리인 허재(A.D. 1062~1144)의 석관, 고려 공민왕(A.D.1352~1374) 왕릉의 태극도형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고래로부터 음과 양이 원만한 조화를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 태극도형과 이념을 널리 사용해 온 증거라 할 수 있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

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나.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 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 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 다. 태극기의 유래

태극기의 맨 처음 이름은 ‘조선국기’이다. 우리나라의 국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조선왕조 시대 때에는 나라의 이름인 ‘조선’과 함께 ‘조선국기’라 불렀다. 당시 조선왕조를 나타내는 국가의 명칭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조선국기’가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부터였다. 18세기 말엽 조선왕조는 관리들의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허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기회를 노려오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조선왕조를 송두리 채 빼앗아갔다. 이에 격분한 애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맞섰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손에 손에 ‘기’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 제작을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은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고, 국기를 바라보며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 해방되기 3년 전인 1942년 3월 1일에는 한국 임시정부수립 23주년 3.1절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국기 이름을 ‘태극기’로 정하고 그 존엄성을 명문화 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태극기가 국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실로 1882년의 일이며, 그로부터 태극기는 한국의 독립주권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3.1대혁명 발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태극기를 썼으며, 그 깃발은 혁명군중의 선혈에 물든 채 적의 총검 위에 꽂혀졌다. 이처럼 태극기는 3.1대혁명의 발동을 위해서도 없을 수 없는 큰 힘이었으니, 한국 주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역사의 빛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극기에는 부쉬 질 수 없는 존엄과 인상이 아로새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 폭의 태극기를 걸어 놓고 자신이 조국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적 신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결심을 표시하여 왔다.」

## 라. 태극기의 의미

### (1) 태극기 도형 설명

태극기란 태극무늬를 응용하여 국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렇다면 「태극무늬」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태극기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태극무늬를 일반적인 도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상과 철학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극무늬란 둥근 원을 오직 나선형(~, S)으로 나눈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써 마치 원 안에서 회오리가 치는 것처럼 보이며 일명 태극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무늬 역시 네모꼴, 세모꼴, 별표 따위처럼 태극무늬라는 이름을 가진 고유도형이기도 하다. 태극무늬는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문화권에서 오래 전부터 즐겨 사용한 서민적인 생활 무늬였다. 이런 설명이 전제되지 않고 태극기를 설명한다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태극 사상과 철학만을 나열하게 되어 그 이해가 매우 어렵다. 태극사상 또는 태극도 설명을 태극기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초 태극기의 형태와 재질은 사각형의 옥색 바탕이었다. 이것 역시 앞의 기사에서 읽었듯이 고종황제가 직접 지시하였다. 태극 도형은 원을 수직으로 나누어 머리 부분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을 시도한 부분을 홍색 칠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을 시도한 부분을 청색 칠하여 두 극이 좌우 대칭 되도록 하였다. 이 모습은 마치 팔짱을 깊게 끼고 돌아가는 형상과도 같아 보인다. 두 극의 머리는 굽고 반면에 몸통은 짧으나 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역동적이어서 마치 힘찬 회오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주역 등 어떠한 태극 도형과도 차별되도록 도안되었음을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다.

### (2) 흰색 바탕과 태극문양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의미한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파랑색 음(陰)과 빨강색 양(陽)으로 하늘

과 땅의 의미도 있지만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 (3) 4괘의 의미



(그림 3) 4괘

“건, 곤” 양 괘는 무궁한 정신이다. “건” 괘는 하늘(天), 봄(春), 동(東)쪽, 인(仁)을 뜻하며, 기면의 왼쪽부분에 “건”괘를 배치한다. “곤” 괘는 땅(地), 여름(夏), 서(西), 의(義)를 나타내며, 기면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 괘를 배치한다. “건, 곤” 양 괘를 취함은 우리나라의 국운도 천지와 함께 ‘영원무궁’하자는 무궁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리, 감” 양 괘는 광명의 정신이다. “리” 괘는 해(日), 가을(秋), 남(南), 예(禮)를 뜻하며, 기면의 왼쪽 아랫부분에 “리”괘를 배치한다. “감” 괘는 달(月), 겨울(冬), 북(北), 지(知)를 나타낸 것이요, 기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감”괘를 배치한다.

“리, 감” 양 괘를 취함은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달’과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나라가 되자는 광명의 정신을 표현이다.

#### 마. 태극기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 국기는 1882년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술한 시련과 수난 속에서도 그 뿌리와 정신만은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일제 36년 동안이라는 잔인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 육신은 비참하게 찢기였어도 ‘태극기’ 그 이름만은 고이 간직해왔다. 이

런 과정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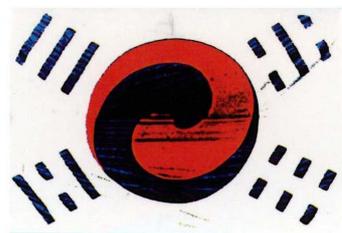
다음 변천단계들은 변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태극기가 굳건히 지켜지기까지의 우여곡절 속에 나타난 수많은 종류들을 분류해 본 결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주로 많이 사용된 유사 종류들 중에 특징적인 것 하나씩을 이해 본위로 내세운 것이다.

#### [대외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태극기]



(그림 4) 최초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1882년에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을 방문 할 때 고종황제로부터 허락 받은 대로 배안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있으나 당시 그랬다는 태극기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웠으나 태극기연구가 송명호(시인. 필명 송명)씨가 115년 만에 일본 동경도립중앙도서관에서 조선에 처음으로 국기가 만들어졌다는 기사와 함께 태극기 그림이 실린 시사신보(1882. 10. 2.월요일)를 발견, 이 사실을 1997년 8월 15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115년 만에 그 발자취를 찾아내게 되었다. 꺾의 모습은 현재의 태극기와 상당히 다르고 음방과 양방의 배치도 좌우 대칭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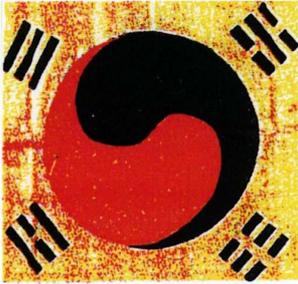


(그림 5) 고종황제 하사품 태극기

고종황제 하사품인 미국인 테니(Denny)씨 소장인 태극기

1885년 고종황제가 당시 외무담당 미국인 테니씨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시사신보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태극기가 최초의 태극기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하였다.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있다.

### [독립신문 제호로 쓰인 태극기]



1896년에 발행한 독립신문 제호에 도안된 태극기로 최초의 태극기와는 태극의 방향과 괘의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립신문의 제호 태극기는 발행될 때마다 그 모양이 다르게 되어 혼란을 초래했다.

(그림 6) 독립신문의 제호 태극기

### [파리박람회에 게양된 태극기]



1900년 파리 박람회 장소에 게양하였던 태극기. 특징으로는 유연한 곡선의 음방(청색)과 양방(홍색)이 좌우로 배치된 것과 4괘가 귀퉁이에 있지 않고 열십자 방향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7) 파리박람회 게양 태극기

### [현재의 태극기]



(그림 8) 현재 태극기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표한 대한민국의 국기. 지금의 태극기 도안이 되기까지는 42인의 국기시정위원회의 수차례 의논과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정되었다. 당시 이왕에 해방과 함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으니 국기도 새로운 도안으로 만든 것이 어떻겠는가 논란이 가장 두드러졌으나,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애국지사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묻고 조국의 광복을 빌었으니 그분의 넋을 달래고 또 갈라진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의 의견이 수렴된 국기를 만들 기회가 있으니 도안과 4괘의 이치가 다소 논란이 있더라

도 일제 36년 동안 가장 많이 그려지고 사랑하였던 현재의 태극 도안대로 국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1-2. 나라문장



(그림 9) 문장

### 가. 근거

우리나라는 상고시대부터 무궁화를 가꾸며 생활해 왔으나 조선시대의 왕실문장이 이화인 까닭에 조선시대의 휘장에서 무궁화를 찾기는 어렵다. 구한말부터는 무궁화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국화로 되면서 조선소년군(현 보이스카우트)이 목에 두른 향건이나 월진회의 깃발 등에 무궁화를 도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라문장 규정제정 (1970. 7. 3 대통령령 제 5151호) 문장은 주로 서양에서 가문·단체 및 국가의 계보·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로서 발달하였다. 우리의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나. 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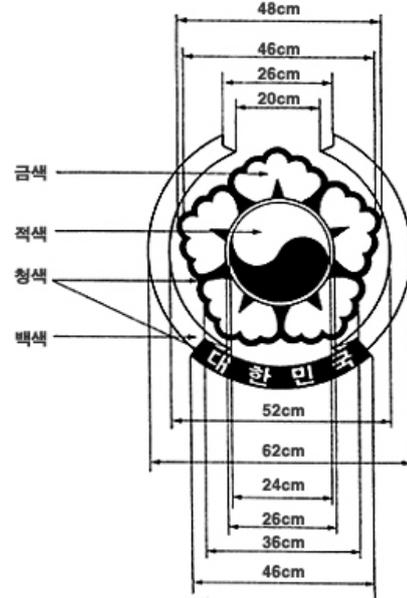
정부에서 1970.7.3 대통령령 제5151호로 공포한 나라문장 표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색일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철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

## 다. 사용방법과 대상

### (1) 사용방법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 문서, 기타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문장이 사용된다. 나라문장은 1963년 12월 10일 각령 제 1671호로 ‘나라문장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70년 7월 3일 개정되었다. 대통령표장은 1950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기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하던 중 6·25 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완성하여 총무처에서 사용하던 것과 청와대 의전실에서 사용하던 두 가지가 있었다.

나라문장의 사용방법은 용도에 따라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규격을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그림 10) 문장 작도법

### (2) 사용대상

나라문장은 아래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외국 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 국가공무원 신분증
-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 제외공관결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 1-3. 대통령 표장



(그림 11) 표장

1967년 1월 31일 대통령 공고 제7호로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대통령표장을 대통령기와 대통령회장으로 구분하였고 대통령기와 회장은 같은 도안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표장에 등장하는 봉황은 고대 중국에 나오는 전설적인 새로, 성인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하며 5색의 깃털을 지니고 5음에 맞는 소리를 내며 예천(나라가 태평한 때에 단물이 나온다는 샘)을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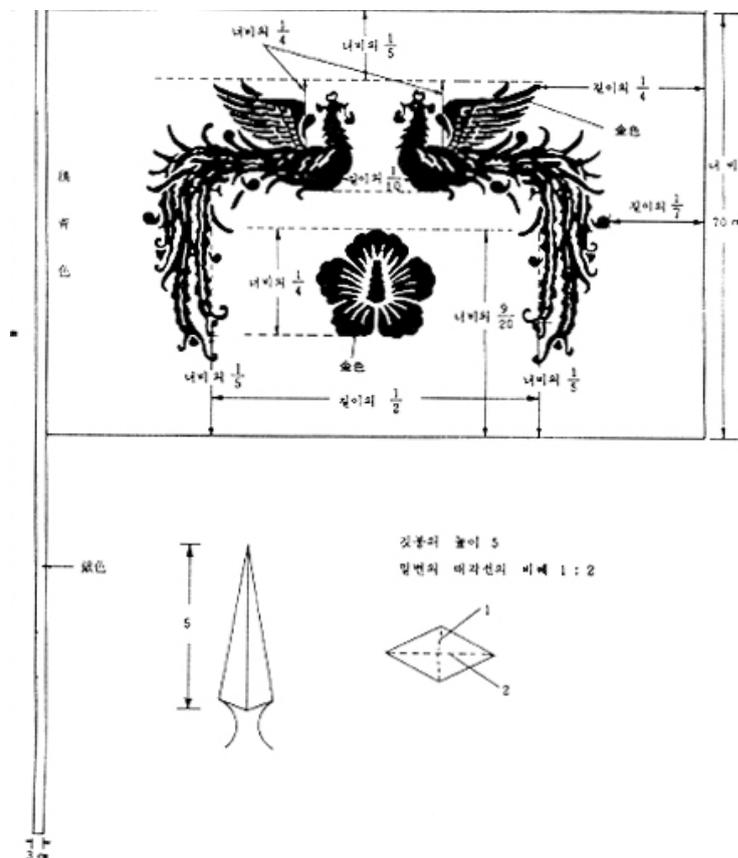
우리 민족도 이 새를 상서로운 새라 하여 성군에 태평성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 왔기 때문에 비록 실재하지는 않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표장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설적인 새인 봉황의 한가운데 무궁화가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인 1949년 10월 15일 무궁화가 우리 겨레의 표상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회장 및 삼부의 표식을 무궁화로 도안할 것을 문교부에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부에서는 법원을 상징하는 법원기에 관한 사항을 법원 내규로 정하였다(법원 내규 제44호, 1969.11.13). 기면 중앙에 두루마리 용지를 무궁화 형태로 표지하고 무궁화 속에 펼쳐진 책의 안쪽에 ‘법원’자를 새겨 사법부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 (1967.1.31 대통령공고 제7호)

- 구 분 : 표장은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한다.
- 규 격 : 표장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길이와 너비를 3과 2의 비로 한다.
- 사 용 : 표장은 대통령관저·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한다.
- 기 타 :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최우선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기의 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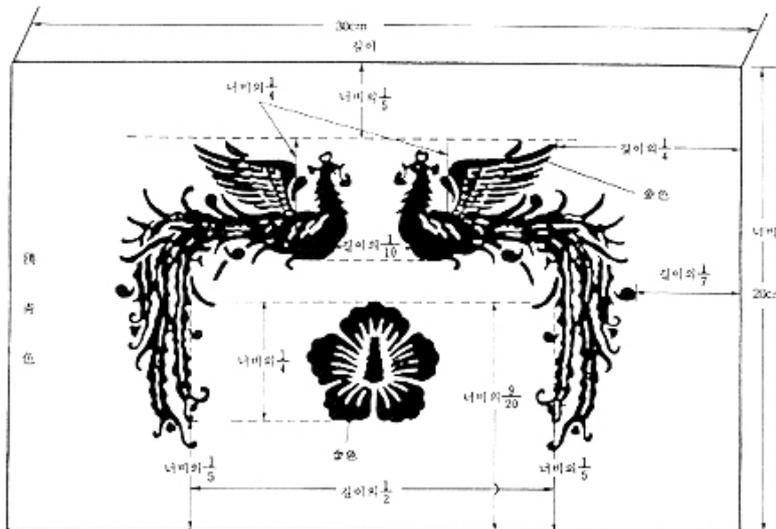


(그림 12) 기의 표준규격

- 깃발의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발의 둘레를 길이 10센티미터(표준규격)의 금 실로 장식할 수 있다.

**다. 휘장의 표준규격 (차량표지판을 기준한 것임)**

- 휘장 면에 길이와 너비는 3과 2의 비로 한다.
- 시설·물자·의상 등에 사용할 때에는 휘장면을 제외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색채를 넣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림 13) 휘장 표준규격

**라. 봉황의 의미**

대통령을 나타내는 무늬로 봉황을 사용하는데, 봉황은 상상속의 동물로 모든 새들 중에 으뜸입니다.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을 나타내며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의 덕목과 같다고 해서 사용을 하며 조선시대 경복궁 천정에도 봉황무늬가 있고, 현재 청와대에도 대통령을 상징하기 위해서 봉황무늬가 있다.

백과사전의 정의에서는 “고대 중국의 상상의 서조(瑞鳥). 봉황은 기린·거북·용과 함께 영물(靈物)로 꼽히며, 덕망 있는 군자가 천자(天子)의 지위에 오르면 출현한다는 새로 여겨져 왔다. 오동나무에 서식하며 대나무 열매를 먹고 신령한 샘물을 마신다고 전해진다.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 하며 그 모습은 기린이나 용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되었다.”고 나타나며 성인(聖人)의 탄생에 맞추어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수컷은 봉(鳳), 암컷은 황(凰)이라고 하는데, 사이좋게 오동나무에 살면서 예천(醴川:甘泉)을 마시고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5색의 깃털을 지니고, 울음소리는 5음(音)의 묘음(妙音)을 내며, 못 새의 왕으로서 귀하게 여기는 환상적인 영조(靈鳥)이다. 그래서 천자(天子)의 궁문(宮門)에 봉황을 장식하여 봉궐(鳳闕)·봉문(鳳門)이라 하였고, 천자의 수레에 장식하여 봉거(鳳車)·봉륜(鳳輦)·봉여(鳳輿)라고 한다. 그 밖에도 천자의 도읍인 장안(長安)을 봉성(鳳城), 궁중의 연못을 봉지(鳳池)라 하여 천자를 미화하는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겼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경사스러운 일에 봉자(鳳字)를 썼다.

봉황은 또한 사멸이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상을 상징한다. 대한민국 문장은 현재 외국에 대한 공문서나 각종 훈장, 공무원 신분증, 국·공립대학의 증서 및 학위증서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장과 별도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표장(1967년 1월 31일)이 있다. 표장은 봉황과 무궁화로 구성된다. 봉황은 새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진 상상 속의 새다. 봉은 수컷, 황은 암컷을 가리킨다. 봉황은 열 가지 동물의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 앞모습은 기러기(신의를 생명처럼 지킴), 뒷모습은 기린(슬기와 재주를 갖춘 현인), 턱은 제비(비를 오게 하는 재주와 부귀 및 장수), 부리는 닭(여명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 목은 뱀(풍년과 다산), 꼬리는 물고기(병권, 兵權), 이마는 황새(고귀, 고결, 장수), 뺨은 원앙(원만한 가정, 사회, 국가), 몸 무늬는 용(뛰어난 인물의 상징). 발가락 5개면 황제, 4개면 제후, 3개면 재상, 등은 거북(장수, 예견 능력)를 닮았다. 깃털 빛은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 등의 5색을 띠며, 울 때 5음을 내고, 오동나무에 깃들며,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한다. 봉황의 속성은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의 덕목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집무하는 정전의 천장에 봉황이 그려져 있다. 현재 경복궁 정전의 천장에서 봉황 무늬를 볼 수 있다.

## 1-4. 국새 (나라도장)

### 가. 국새의 명칭과 의미

#### (1) 국새의 명칭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2) 국새의 의미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나라의 중요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새의 날인은 국가 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권(國權)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우리의 국새는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절대왕권을 나타내던 불가침적 권위와 신성성(神聖性)은 퇴색되었다. 그러나 그 사용과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여전하다. 오늘날 국새의 사용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공포문, 훈·포 장증,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이 밖에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고 있다.

### 나. 국새의 기원과 역사

우리나라 관인사(官印史)에 관한 유물이나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를 바로 고증해 체계적인 관인사(官印史)를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남아 있는 몇몇 문헌들의 기록들을 통해

불 때 우리나라의 관인(官印)제도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왔으며, 그 용도는 치민(治民)의 장(長)이 전신(傳信)의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옛날 환웅(桓雄)이 아버지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는 천부3인(天符三印 : 風伯, 雨師, 雲師)이 우리나라 역사상 나타난 최초의 국새라는 주장이 있고, 증보문헌비고 예고새인조(禮考璽印條)에 부여(夫餘) 예왕(濊王)이 예왕지인(濊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불 때 국새의 사용 역사는 수천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는 국새는 고려·조선시대에는 국인(國印), 세보(璽寶)·어보(御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와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문서에 사용되었고, 왕위 계승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으며, 왕의 각종 행차시 그 위의(威儀)를 과시하기 위하여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국새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외교문서(특히 대중국 관계)에 사용되는 국인(國印, 大寶로 통칭)과 국내용 어보(御寶)로 대별된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국인(國印)은 대부분 중국 역대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사여(賜與)되어 들어왔고, 기타의 어보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國印)을 사용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에 국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2년)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원·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다.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金印)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이란 인문(印文)이 있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 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聖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의 국인(國印)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大寶) 혹은 어보(御寶)라 하여 1636년(인조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보(御寶)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 특히 대일본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어보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 : 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 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종식하여 이전의 대보(大寶)를 폐지하고, 1881년~1882년경에 제작한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 등을 사용하였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국새로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을 제작,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새로운 국새가 마련되었는데, 사방 두치(약 6cm)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자 전서(篆書)로 「大韓民國之璽」라 전각하였다.

1963년 1월에는 국새규정을 고쳐, 사방 7cm의 정방형 인면(印面)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녁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였다. 1999년 2월 1일부터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국새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방 10.1cm의 정방형 인면에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 녁자를 가로로 새겨 사용하게 되었다.

## 다. 국새의 시각적 특징

### (1) 국새 서체의 특징



훈민정음 판본체의 서체에 충실하며 세종대왕께서 한글창제 당시 기본으로 삼으신 천(天)·지(地)·인(人) 3재(3才)를 모두 표현하였다. 서체는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단순하고 명쾌하며 정중함과 부드러움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림 14) 국새

### (2) 국새 인영에 담긴 뜻

변(邊)은 두텁게 하여 외세(外勢)로부터 국토보위(國土保衛)를 굳건하게 함을 상징하였고, 여백은 시원스럽게 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정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다짐하는 뜻을 담아 표현하였으며, 정사각형의 인면은 바른 정치와 공직사회의 굳건한 기강을 의미토록 하였다.

### (3) 인뉴(印紐, 손잡이)

인뉴라 함은 국새의 손잡이 부분을 일컫는다. 형상은 봉황이 무궁화 꽃잎을 함께 물고 구만리 창공을 웅비(雄飛)하는 모습으로, 조형미를 극대화시키고 남성적·적극적·개척자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봉황의 형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되었다.

조각에 담긴 의미는 하늘의 이상을 실현하는 성천자(聖天子)의 상징인 봉황이 무궁화 꽃잎을 함께 물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국가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화합·협력하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구만리 창공을 웅비(雄飛)하는  
 봉황의 모습은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영광을 기원하며, 국운(國運)이  
 옥일승천(旭日昇天)하는 모습을 조형적  
 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5) 인뉴

#### (4) 국새 인(印)끈·보(褌)·술



(그림 16) 인(印)끈·보(褌)·술

인(印) 끈은 흰 명주실을 다홍색으로 염색하여 꼬은 12사(絲)로 광다회(廣多繪)를  
 치고 중심에 안경 매듭을 맺은 후 방망이 술을 부착하였다. (끈을 만드는 방법에는  
 둥근 형태로 끈을 짜는 원다회(圓多繪)법과 납작한 형태로 끈을 짜는 광다회(廣多  
 繪)법으로 나누어진다.)

보자기에는 조선왕조 왕의 곤룡포를 만들던 비단을 재현·제작한 다홍색 운문단(雲紋緞)에 명주솜을 얇게 넣은 후 손으로 누빈 띠를 붙이고, 네 귀에 금박(金箔 : 순금을 종이처럼 늘인 조각)을 입힌 금전지(金箋紙)에 술을 달았다.

자물쇠 주머니는 다홍색 운문단으로 귀주머니를 짓고, 남색 명주실 8사로 원다회(圓多繪:둥근형태)를 쳐서 도래(구슬형태)·국화·잠자리매듭을 맺어 장식했으며, 열쇠 술은 다홍색 명주 8사(絲)로 도래(구슬모양)매듭·정(井)자 매듭을 맺은 후 작은 딸 기술을 부착하였다.

보자기 함은 고문서(古文書) 보관용 중성합지(中性合紙)로 함(函)을 제작하고, 순금으로 실을 뽑아 명주와 혼합직조한 금란(金欄)으로 함의 외피를 장식하였다.

#### (5) 국새함



(그림 17) 국새함

재질 및 규격 : 느티나무를 전통 짜 맞추기 방법에 의해 제작 후 옷칠을 10회하고 주석으로 조선왕조 국새함의 장식문양을 재현하여 부착하였고 규격은 20.3×20.3×21.4cm (장식포함 25cm)이다.

## 1-5. 휘장 및 훈장

휘장(徽章)이란 신분이나 직무(職務) 혹은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에 붙이는 표장을 일컫거나 국가, 단체 등을 상징하는 징표를 말한다.

이 중 가문이나 단체의 계보, 권위 등을 상징하는 장식적인 마크를 문장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나라 문장과 대통령의 표장, 삼부의 표시로서 무궁화를 사용하는 상징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상고시대부터 무궁화를 가꾸며 생활해 왔으나 조선시대의 왕실문장이 이화인 까닭에 조선시대의 휘장에서 무궁화를 찾기는 어렵다.

구한말부터는 무궁화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국화로 되면서 조선소년군(현 보이스카우트)이 목에 두른 향건이나 월진회의 깃발 등에 무궁화를 도안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8) 휘장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 문서, 기타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문장이 사용된다. 나라문장은 1963년 12월 10일 각령 제1671호로 '나라문장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70년 7월 3일 개정되었다. 대통령표장은 1950년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기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하던 중 6·25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완성하여 총무처에서 사용하던 것과 청와대 의전실에서 사용하던 두 가지가 있었다.

1967년 1월 31일 대통령 공고 제7호로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이 발표되었다. 대통령표장을 대통령기와 대통령휘장으로 구분하였고 대통령기와 휘장은 같은 도안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표장에 등장하는 봉황은 고대 중국에 나오는 전설적인 새로, 성인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고 하며 5색의 깃털을 지니고 5음에 맞는 소리를 내며 예천(醴泉: 나라가 태평한 때에 단물이 나온다는 샘)을 마신다. 우리 민족도 이 새를 상서로운 새라하여 성군(聖君)에 태평성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 왔기 때문에 비록 실재(實在)하지는 않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표장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설적인 새인 봉황의 한가운데 무궁화가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인 1949년 10월 15일 무궁화가 우리겨레의 표상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휘장 및 삼부의 표식을 무궁화로 도안할 것을 문교부에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부에서는 법원을 상징하는 법원기에 관한 사항을 법원내규로 정하였다.(법원내규 제44호, 1969. 11. 13) 기면 중앙에 두루마리 용지를 무궁화 형태로 표지(標識)하고 무궁화 속에 펼쳐진 책의 안쪽에 ‘법원’자를 새겨 사법부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를 상징하는 기의 중앙에 있는 무궁화 속에 ‘國’자를 새기었고 국회 기와 같은 모형의 국회배지를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이 패용하고 있다. 행정부의 표장은 1960년대 이래 내각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수차례 검토를 거쳐 1988년 11월 28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대통령 공고 제99호).

무궁화 꽃 속에 ‘정부’ 라는 글자를 쓴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문양의 중앙에 해당 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약어 등을 기관기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훈장(勳章)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표창한다.

우리나라 훈장제도의 역사는 1900년(광무4) 4월19일 훈장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 훈장의 종류는 금척대훈장, 서성대훈장, 이화대훈장, 태극장, 팔괘장, 자웅장, 서봉장으로 7종류였는데 이 당시에는 무궁화를 찾을 수가 없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훈장 제도가 의용(依用)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 무궁화대훈장령, 무궁훈장령, 문화훈장령, 소성훈장령, 포장령 등을 종류별로 공포 시행하여 왔다. 1963년 12월 14일 각종 훈장령과 포장령을 통합한 상훈법을 공포 시행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행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훈장에 무궁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무궁화대 훈장령’에서이다. 무궁화대훈장은 각종 훈장령의 통합으로 1964년 3월 24일 개별 훈장령은 폐지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이나 우방의 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장은 거의가 무궁화 도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러한 훈장을 수여할 때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되는 임용장(任用狀) 한가운데 커다란 무궁화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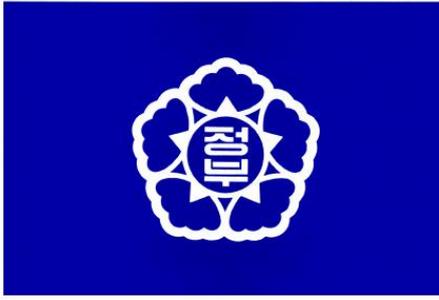


(그림 19) 훈장

## 1-6. 정부기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와 정부공용회의실 및 국무총리 집무실과 회의실 등에 게양할 수 있다.”

- 근거 : 정부기에 관한 공고 (1988. 11. 28 대통령공고 제99호)



### 가. 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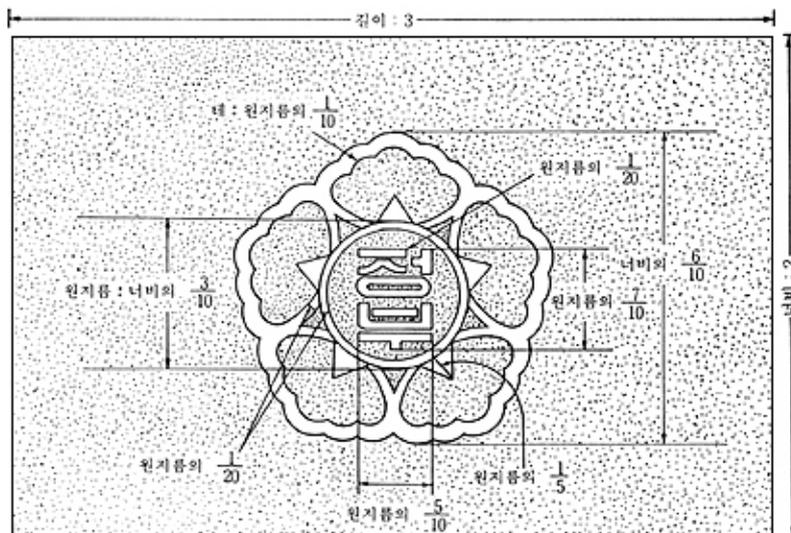
무궁화 꽃 속에 ‘정부’라는 글자를 쓴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문양의 중앙에 해당 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약어 등을 넣어 기관기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

(그림 20) 정부기

에서 훈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표창한다. 우리나라 훈장 제도의 역사는 1900년(광무4) 4월 19일 훈장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입법부에서는 국회를 상징하는 기의 중앙에 있는 무궁화 속에 ‘國’자를 새기었고 국회기와 같은 모형의 국회배지를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이 패용하고 있다. 행정부의 표장은 1960년대 이래 내각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수차례 검토를 거쳐 1988년 11월 28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대통령 공고 제99호).

### 나. 제작방법 및 사용방법



(그림 21) 정부기 작도법

### [제작방법]

-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 : 2의 비율로 한다.
- 깃면의 바탕은 아청색으로, 문양은 백색으로 한다.
-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 [사용방법]

- 정부기는 정부종합청사와 정부공용회의실 및 국무총리 집무실과 회의실 등에 게양할 수 있다. (깃면 만을 게시하는 경우 포함)
-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정부를 상징하는 문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을 제외한 문양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중앙에 “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약어” 등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할 수 있다.

## 다. 대통령인(大統領印)· 국무총리인(國務總理印)

### [대통령인]

- 대통령인은 4.5cm 정방형 크기이며 한글 전서체로 “대통령인”의 4자가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 대통령인은 국새날인문서를 포함하여 각종 법령공포문, 대통령 훈령·지시 등 대통령 재가문서에 날인한다.
- 현재 사용 중인 대통령인은 상아로 만들어져 '62. 12. 28 관인등록된 것이다.

### [국무총리인]

- 국무총리인은 3.6cm 정방형 크기이며 한글 전서체로 “국무총리의인”의 6자가 가로로 양각되어 있다.
- 국무총리인은 국무총리가 결재한 시행문서에 날인한다.
- 현재 사용 중인 국무총리인은 상아로 만들어져 '63. 12. 17 관인등록된 것이다.

## 1-7. 국화 (무궁화)

세계 각국은 국가의 표상으로 국기, 국가와 더불어 국화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표상물은 고대 국가에서 정확한 개념은 없었으나, 부족이나 집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여 오던 것이 근대 국가로 접어들면서는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정하여 쓰고 있다.

국화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 특정한 꽃이나 식물을 국화로 정하여 시작한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길이 없으나, 대체로 19세기 중엽에 들면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왕실의 문장 또는 훈장이나 화폐 등에 표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꽃을 자연스럽게 국화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꽃은 그 나라의 고유한 식물이나 보편화된 자생 식물로서 국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그 나라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특수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거나, 그 나라의 존폐 및 흥망성쇠가 담긴 중요한 전설 또는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라꽃은 이상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법으로 제정한 나라도 있지만 온 국민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오던 꽃이 자연스럽게 굳어진 경우도 있다. 대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식물이 나라꽃으로 정해지지만 외래 식물로 정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나라꽃이 특별한 계기로 법에 의하여 다른 꽃으로 바뀌는 예도 있다. 또한 나라꽃은 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나라마다 다르고 한 국가에서 한 종류의 꽃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종류의 식물이 여러 나라의 꽃으로 통용되기도 하고 한 나라에서 두세 가지의 국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나라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나라꽃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동안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고취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 가. 무궁화의 내력

국화(國花)는 나라꽃으로서,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無窮花)이다. 무궁화는 옛날부터 한반도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며, 꽃이 아름답고, 꽃피는 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국을 근역(權域), 곧 무궁화 나라라고 일컬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古朝鮮)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新羅)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鄉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中國)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래 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사랑은 일제(日帝) 강점기에도 계속 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을 피워 보통 한 그 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피며,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수난을 같이해 온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 나. 풍속과 상징

흔레 때 입는 활옷[闊衣]에 무궁화를 수놓는 것은 무궁화의 다산성에 유감(類感)한 습속이다. 무궁화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하루살이 세속의 행복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상징한다. 나무 전체로는 끊임없이 피고 지는 무궁한 영화의 나무로서 나라의 꽃으로 삼은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이 깃들여져 있다. 대표품종인 백단심(白丹心)은 꽃이 백색이어서 무구청정(無垢淸淨)을 나타내고 진홍빛 화심(花心)은 겨레의 얼을 상징한다. 옛 당나라의 어느 여왕이 꿈에서 동지선달에 꽃이 피라고 기원하여 다른 꽃은 모두 피었는데 무궁화만은 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한국민족이 당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 다. 무궁화의 시각적 활용실태

나라꽃은 한 국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는 우리 겨레와 함께 겪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담겨져 있다. 일제의 침략기에는 무궁화를 독립정신의 상징으로 하여 왔다. 나라꽃 무궁화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각종 상징물 속에 나타난 무궁화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 [다른 국가상징에 활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상징인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이 무궁화 꽃봉오리로 되어 있다.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물,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나라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도 무궁화 꽃으로 도안되어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등과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 기, 기차,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대통령표장의 중심 부분에도 무궁화 꽃이 자리 잡고 있다.

### [국가 기관의 기(旗)에 활용]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旗) 즉, 국회기, 법원기, 정부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정부의 각 부처기(旗)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훈장·상장 등에 활용]

우리나라의 훈장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의 명칭이 “무궁화대훈장”일 뿐 아니라 그 훈장 도안도 무궁화로 장식되어 있고,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그 밖에 각종 상장도 무궁화 도안이 들어 있다.

### [배지·모표 등에 활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배지, 장·차관 등의 배지가 무궁화 꽃을 기본 도안으로 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모자챙 그리고 모표 등에도 무궁화가 쓰여지고 있다.

### [국경일 행사 등에 활용]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등 각종 행사에서도 무궁화를 활용하고 있다. 행사를 장식하는 데에 무궁화 화분과 경축 현판 도안에도 무궁화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행사참석자에게도 무궁화 리본을 달아주고 있다.

## 2. 국가상징의 역할

국가상징(國家象徵)이란 한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구심체(求心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公式的)인 표상(表象)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國民的 一體感)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제 치하의 암울했던 시절에 애국지사들은 태극기(太極旗)라는 상징을 앞세우고

남녀노소 누구나 애국가를 부르며 그 광복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항거하였으며, 국토 분단 이후 발생한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에서도 우리는 당시 자유 대한의 상징이던 태극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너무도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지난 1992년 7월 ‘몬주익의 영웅’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당시의 감격적인 우승 장면을 우리 모두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1936년 우리의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경기대회의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후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도 일장기(日章旗) 앞에 숙연한 모습으로 서 있던 당시 모습과 서로 대비해 볼 때 태극기의 영광과 치욕은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이러한 국가상징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이라는 공감대(共感帶)를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며, 또한 외국사람의 경우에는 태극기(太極旗)만 보아도 바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나라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상징 부호로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상징이 특별히 필요한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첫째, 국난(國難)을 당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심점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외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 국가의 존망(存亡)을 그냥 좌시(坐視)할 수 만 없는 경우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기준을 부여해야 그곳으로 민심이 모일 수 있어 외난(外難)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대표성을 부여한다.

둘째, 외국과의 각종 교류·교역, 상호 교차방문, 사신 파견, 조약 문안의 협의 등 외교적인 국사(國事)의 국정 행위로서 다른 나라의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나 협론(協論)할 때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흔히 국기·국가 등이 필요하게 되어 그 나라의 상징물을 외국인에게 보여 자국(自國)의 애국 의지,

특성, 함축된 나라의 위대함 등을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징물이 다른 나라를 위압하거나 거창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국가의 상징물로서 기대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영구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평화적인 경우에 더욱 고고하고도 차별적인 의미로서 강렬한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상징은 어느 한 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문화·사상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가상징은 연령·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상징물은 멋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역사성과 전통 그리고 문화양식의 영향을 받아 집단에 의해 형성되어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공통의 반응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3. 해외사례 연구(나라별 문장 사례)



프랑스 대통령문장



미국 대통령문장



나이지리아 대통령문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라문장



네덜란드 나라문장



뉴질랜드 나라문장



독일 국가문장



러시아 대통령문장



루마니아 국가문장



멕시코 나라문장



스웨덴 나라문장



영국 나라문장

(그림 22) 국외 나라별 문장 사례



영국 왕실문장



인도네시아 나라문장



중국 나라문장



이탈리아 나라문장



오스트리아 나라문장



오스트레일리아 나라문장



폴란드 나라문장



페루 나라문장



태국 나라문장



체코 대통령기



체코 대통령문장



페루 나라문장

4. 국내사례 연구(부처 및 관련기관 CI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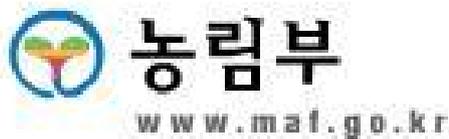


(그림 23) 부처 및 관련기관 CI 사례



통계청





### 제3절 청와대 이미지 분석

#### 1. 기존 청와대 심볼마크의 이미지 분석



(그림 24) 기존 청와대 심볼마크

청와대가 95년 9월 4일 발표(2000년 12월 1일 수정)한 새 문장은 대통령 집무실인 한식건물(본관)과 그 뒤쪽의 북악산을 도형화한 기본형 1종(삼각형)과 이 기본형을 응용한 2종(원형)등 모두 3종으로 되어있다. 각문장의 청와대 문자표기는 용도에 따라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청와대의 각종 서식류, 실내장식, 배지, 기념품 등에 사용된다.

현 청와대 문장은 ‘열린 청와대’, ‘푸른 청와대’, ‘세계를 향한 청와대’를 상징한다. 중앙에 자리 잡은 청와대 본관건물(청색)은 희망과 활력 그리고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를 상징하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청와대의 위상을 전통적인 멋과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하여 표현하였으며 배경의 북악산(녹색)은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풍요롭고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기상과 평화, 안정, 환경보호를 상징한다. 세로선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국민과의 막힘없는 길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승, 조화, 발전의 기상을 나타내었고, 외곽의 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촌을 표현한 것이다.

현 국가 상징물 및 국가기관 CI에 대한 인식이 다소 권위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 성향이 강하며,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응용사례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이미지 창출 필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앞서 범국민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청와대의 마크에 대한 이미지 분석과 교체필요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실시된 설문을 통하여 일반국민 및 청와대 직원들의 대표상징물 인식 등을 파악하여, 청와대 CIP 연구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 분	사례수	백분율(%)
[ 전 체 ]	120	100.0%
[ 성 별 ]		
남 자	90	75.0%
여 자	30	25.0%
[연령대별]		
20 대	16	13.3%
30 대	53	44.2%
40 대	48	40.0%
50 대 이상	2	1.7%
무응답	1	0.8%
[ 직 급 ]		
1, 2 급	3	2.5%
3, 4, 5 급	80	66.7%
6, 7, 8 급	20	16.7%
9, 10 급	13	10.8%
무응답	4	3.3%

(표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 [청와대 문장 인지도]

- 청와대 문장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모르거나, 봉황 등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여줬을 때에는 다수 사람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용도로는 해변인 브리핑 장소, 청와대 홈페이지, 배지 등을 들었다.

### [청와대 문장에 대한 호감 여부]

- 남자 43~49세 계층과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 계층보다 젊은 층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보통이다(그저 그렇다)라는 사람이 많았다. 젊은 층에서 마음에 든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한국적인 이미지, 전통적인 느낌(기와), 청와대를 잘 표현함, 평화로움(초록색) 등을 꼽았다.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궁궐 같다(거리감, 왕권의 냄새, 권위적), 복잡하다, 단순하다(상징 아닌 그림 같다), 딱딱하다, 답답하다, 현대적이지 못하다, 다른 것(동대문/남대문/민속촌 등)과 구별이 안 된다, 등을 들었다.

### [청와대 문장 교체 여부]

- 남자 43~49세 계층에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나머지 계층에서는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연령대가 젊을수록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기억하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 간결하고 단순했으면 좋겠다. 등이 나타났다.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국민세금 낭비). 바꾼다고 청와대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 지속하는 것이 좋다 등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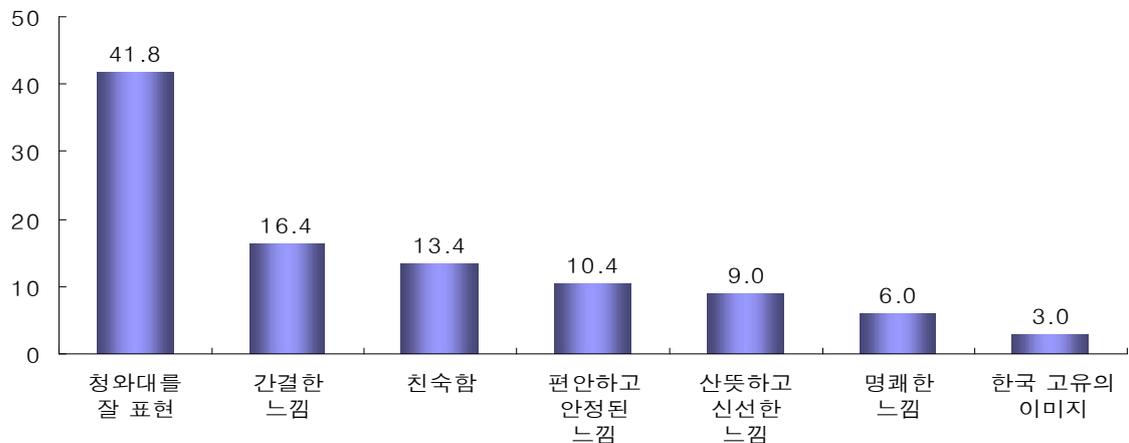
FGI 설문조사 연구를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청와대 문장에 대해 권위적, 궁궐 느낌, 복잡, 단순 등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권력성, 접근불가, 폐쇄성 등 두려움 섞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청와대 문장 변경 시에는 서민성, 친근감,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청와대, 국민의 옆에 있는 청와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국민들은 청와대 문장이 많이 홍보되어지고 친숙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2. 기존 심볼마크의 장단점 분석

### 2-1. 기존 청와대 문장의 장점 - FGI 설문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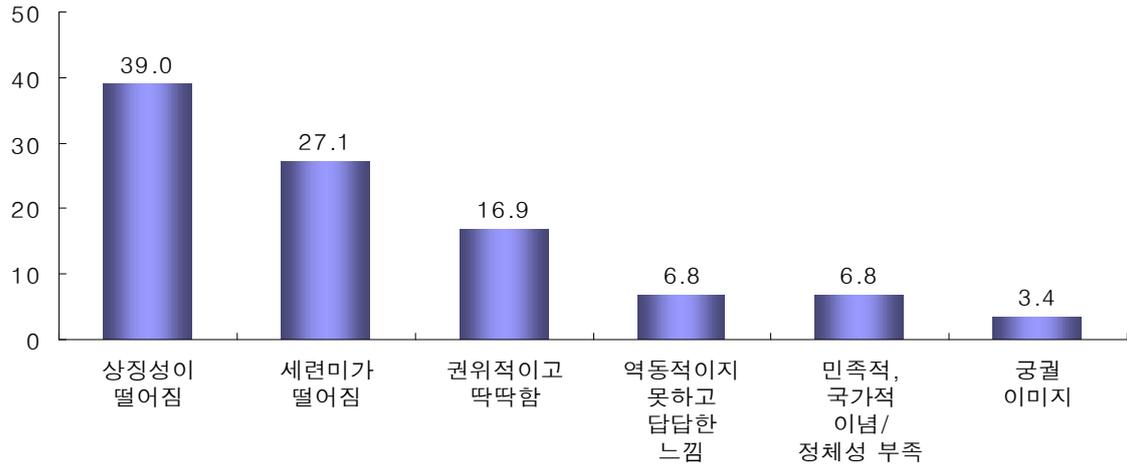
- 청와대 문장의 장점에 대해 ‘청와대를 잘 표현함’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간결한 느낌’(16.4%), ‘친숙함’(13.4%),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10.4%), ‘산뜻하고 신선한 느낌’(9.0%) 등의 응답이 나타남.



(표 2) 청와대 문장의 장점

## 2-2. 기존 청와대 문장의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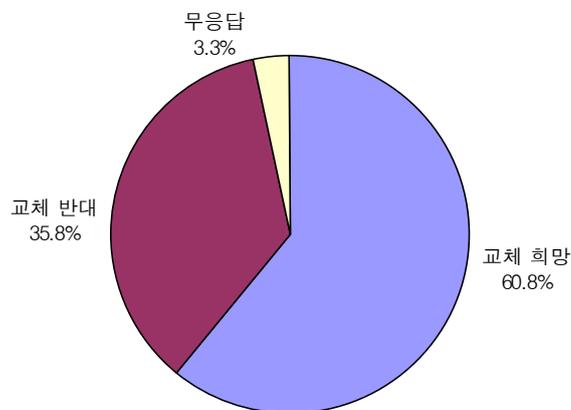
- 청와대 문장의 단점으로는 ‘상징성이 떨어짐’이라는 응답(39.0%)이 가장 높았고 ‘세련미가 떨어짐’(27.1%), ‘권위적이고 딱딱함’(1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음.



(표 3) 청와대 문장의 단점

## 2-3. 기존 청와대 문장의 교체 희망 여부

- 청와대 문장의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60.8%로 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35.8%)보다 25.0%포인트 높게 나타남(무응답 : 3.3%).



	사례수	희망	반대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20)	60.8	35.8	3.3	100.0
■ 성 별 ■					
남 자	(90)	57.8	40.0	2.2	100.0
여 자	(30)	70.0	23.3	6.7	100.0
■ 연 령 별 ■					
2 0 대	(16)	62.5	37.5	.0	100.0
3 0 대	(53)	67.9	24.5	7.5	100.0
4 0 대	(48)	52.1	47.9	.0	100.0
5 0 대 이 상	(2)	100.0	.0	.0	100.0
무 응 답	(1)	.0	100.0	.0	100.0
■ 직 급 ■					
1,2 급	(3)	66.7	33.3	.0	100.0
3,4,5 급	(80)	61.3	36.3	2.5	100.0
6,7,8 급	(20)	50.0	40.0	10.0	100.0
9,10 급	(13)	69.2	30.8	.0	100.0
무 응 답	(4)	75.0	25.0	.0	100.0

(표 4) 청와대 문자 교체 여부

### 3. 새로운 심볼마크가 가졌으면 하는 이미지

#### 3-1. 새로운 청와대 문장에 포함되어야 할 의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라는 의미, 국민 화합/통합 의 의미, 한민족 통일의 의미 등이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편안함, 친숙함, 신뢰감, 정직함, 위엄, 존경심, 사람들 간의 관계, 역동성, 현대적, 한국적, 전통적, 깨끗함, 평화, 희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와대(대통령과 비서진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 국민들의 원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에 대한 국민의견이다.

	Count	Count
		Percent
친근감	69	57.5%
투명/ 정직/ 신뢰	31	25.8%
청렴	14	11.7%
존엄/근엄	14	11.7%
전문성/ 능력	13	10.8%
개혁적	12	10.0%
부지런함/열정/ 역동적	11	9.2%
리더쉽	7	5.8%
깨끗/ 깔끔	5	4.2%
안정	5	4.2%
거리감	4	3.3%
공정	4	3.3%
권력	3	2.5%
없다	3	2.5%
희망	3	2.5%
절제	2	1.7%
역동성	2	1.7%
핵정책	1	.8%
자유스러움	1	.8%
조용함	1	.8%
보수와 진보의 조화	1	.8%
푸른들판	1	.8%
신나는일	1	.8%
기관차	1	.8%
햇볕	1	.8%
궁금증	1	.8%
통제	1	.8%
검소	1	.8%
중립	1	.8%
전통미가부족한건물	1	.8%
접근이쉽지않은장소	1	.8%
민심을정확하게읽었으면	1	.8%
비공개	1	.8%
국민들과의일치된모습	1	.8%
호화스러움	1	.8%
산뜻함	1	.8%
단아함	1	.8%
대통령에대한언로단절우려	1	.8%
먼곳	1	.8%
권부	1	.8%
평등	1	.8%
세련미	1	.8%
힘있는모습	1	.8%
계	120	100.0%

(표 5) 청와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느낌

### 3-2. 새로운 청와대 문장의 색깔

새로운 청와대 문장으로는 파란색이 좋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금과 같은 톤의 파란색, 밝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하늘색 등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초록색은 일부 사람이 추천하였는데, 좋다는 사람과 좋지 않다는 사람으로 갈리었다. 좋지 않다는 사람은 초록색이 우리나라의 상징이 아니라고도 했고, 파란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빨간색은 태극마크를 연상하여 일부 사람이 추천하였다. 이외에 황토색 등이 나타났다.

### 3-3. 청와대에 대한 느낌

청와대에 대한 느낌으로 권력, 권위, 접근 불가, 폐쇄성, 두려움, 딱딱함 등의 느낌을 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점점 개방되는 느낌,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청와대나 정부의 상징물로 무궁화가 국화(國花)라는 이유로 많이 나타났고, 태극(3태극 포함)도 많은 편이었다. 봉황도 많았는데, 대통령 표장의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해태상, 우리나라 지도, 비둘기, 매, 까치, 돌고래, 용, 학, 기와, 호랑이, 붉은 악마, 손바닥(박수치는 모습), 소나무, 대나무 등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징물로는 태극(3태극 포함)이 가장 많았다. 붉은 악마와 이에 관련된 것(붉은 악마의 빨간색 깃발 등)도 많은 편이었다. 한복, 무궁화, 태극기, 태권도, 호랑이, 한반도 지도, 세종대왕, 훈민정음, 광개토대왕, 대한민국이라는 말, 남대문, 동대문, 한강, 김치, 설악산, 사계절, 경주, 제주 등도 연상하였다.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상징물로 한반도 또는 한반도기, 태극(3태극 포함)이 많이 나타났다. 한반도를 떠올리는 것에는 통일의 마음도 담겨 있는 듯 했다. 이외에 한복, 아리랑, 무궁화,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맥, 호랑이, 곰, 마늘(단군신화), 분단현실(3·8선 등) 등을 꼽는 답변도 있었다.

### 3-4. 기타 건의사항 및 바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정부의 대표 상징물이 국민들 또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적 느낌을 살렸으면,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강인한 느낌이 있었으면, 심볼에 사람이 들어있었으면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제3장 결론(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제1절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1. 연구 A 시안



(그림 25) 연구 A 시안

#### [Design Concept]

- 청와대 본관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
- 태극, 무궁화, 사괘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품격 있게 표현.



(그림 26) 연구 A 시안 적용 예

## 1-2. 연구 B 시안



(그림 27) 연구 B 시안

### [Design Concept]

- 태극과 봉황을 주제로 하여 화합과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표현
- 태극과 원을 사용하여 친근감, 포용, 역동성, 미래를 향한 비상의 이미지를 표현



(그림 28) 연구 B 시안 적용 예

### 1-3. 연구 C 시안



(그림 29) 연구 C 시안

#### [Design Concept]

- 청와대 본관의 지붕선을 모티브로 열려있는 청와대를 추상적으로 표현
- 하늘로 뻗어나가는 힘찬 곡선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상승과 밝은 미래를 향한 Leading Group의 의지를 표현



(그림 30) 연구 C 시안 적용 예

#### 1-4. 연구 D 시안



(그림 31) 연구 D 시안

#### [Design Concept]

- ‘청와대’, ‘사람’, ‘역동’을 키워드로 하여 청와대의 외형을 힘찬 붓터치로 형상화
-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청와대의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청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부를 상징
- 푸른색은 청와대의 상징 색상이며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로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



(그림 32) 연구 D 시안 적용 예

1-5. 연구 E 시안



(그림 33) 연구 E 시안

[Design Concept]



- 청와대의 'c'을 형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뻗어나 가는 빛으로 표현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딩그룹(leading Group)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조형을 통해 국민과의 친근감을 강조하였다.
- 푸른색은 청와대의 상징 색상이며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를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한다.



# 청와대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그림 34) 연구 E 시안 적용 예

## 1-6. 연구 F 시안



(그림 35) 연구 F 시안

### [Design Concept]



- 중심을 향한 사람들의 형상은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화합하고 번영하는 새 정부와 국민들을 상징한다. 역동적인 조형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푸른색은 청와대의 상징 색상이며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를 뚫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한다.



(그림 36) 연구 F 시안 적용 예

## 1-7. 연구 G 시안



(그림 37) 연구 G 시안

### [Design Concept]

- 우주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타원형 안에 배치된 청와대의 모습과 푸른색의 배경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한다.
- 정통성과 영속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양인 여의 구름무늬를 조화시켜 합법적인 권위와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는 청와대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그림 38) 연구 G 시안 적용 예

## 1-8. 연구 H 시안



(그림 39) 연구 H 시안

### [Design Concept]

- 푸른 하늘과 태극형상의 광장이 청와대를 매개로 합일되는 형상을 묘사하였다. 하늘은 미래의 희망을 의미하는 푸른색과 완전함을 의미 하는 원형으로 형상화되었으며 광장은 한민족 고유의 상징인 태극을 조형적으로 변형하여 표현되었다.
- 무궁화를 상징하는 전통문양을 중앙에 배치하여 역사성과 권위를 부각시켰으며 무지개 빛 색으로 표현된 태극문양은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가진 국민이 참여정부 안에서 하나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그림 40) 연구 H 시안 적용 예

## 1-9. 연구 I 시안



(그림 41) 연구 I 시안

### [Design Concept]

- 한민족 고유의 색채인 색동을 모티브로 미래를 향해 열린 청와대의 진취적인 이상을 표현하였다.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색동 띠의 이미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 나아가 온 세계로 열려있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지는 색동의 모습은 각기 다른 성향의 국민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참여정부의 이상을 표현하며 한민족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그림 42) 연구 I 시안 적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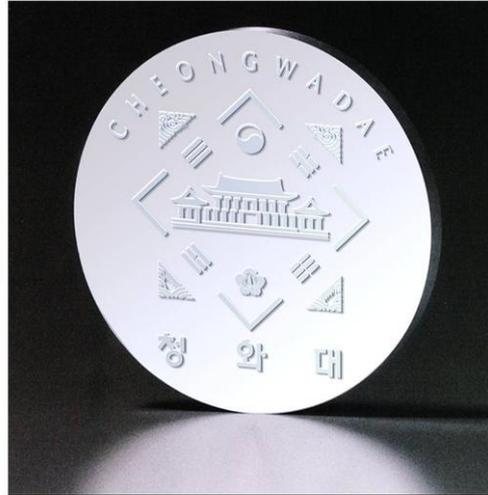
## 1-10. 연구 J 시안



(그림 43) 연구 J 시안

### [Design Concept]

-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건물Shape와 사방에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인 구름, 바람, 물, 바위와 태극, 무궁화, 건곤감이의 요소들을 배치하여 안정감 있는 조형성 표현
-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화살은 사방이 막힘없이 통한다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의미를 형상화하여 사방으로 열려있는 정부, 진취적인 정부를 상징함 또한 균형과 자율을 의미하여 국정외 분권적, 수평적, 효율적 집행 및 국가비전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가 도약의 의지를 표현
- 상단의 바람은 하늘의 기운 즉, 우주의 숨과 기운을 상징하며, 풍성하게 피어오르는 구름으로 국가의 번성을 의미화 함. 하단의 물은 자연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화하였으며, 바위는 영원함과 균형을 상징하여 청와대에 대한 신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



(그림 44) 연구 J 시안 적용 예

1-11. 연구 K 시안



(그림 45) 연구 K 시안

[Design Concept]

- 전체적으로 청와대 건물 Shape의 현대적 미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무궁화의 전통미를 함께 표현하여 대한민국 대표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세련된 감각으로 표현
- 상단의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화(國花)로서, 끊임없이 새로 피고 새로 이어 피는 무궁한 영화의 나무로 국가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



(그림 46) 연구 K 시안 적용 예

## 1-12. 연구 L 시안



(그림 47) 연구 L 시안

### [Design Concept]

- 전체적으로 북악산과 청와대 건물 Shape, 봉황을 디자인 모티브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Leading Group 으로서의 청와대의 품격과 품위를 현대화함
- 4방향의 화살은 전체 조형의 균형과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사방으로 열린 정부,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의 수반으로서의 기능성을 상징화
- 또한, 대통령 표장에도 이용되고 있는 봉황은 고귀함과 평화의 상징물로서 청와대(대통령)의 직접적인 이미지 연계와 대표성을 함께 전달함 (예시: 미국 대통령 표장의 상징물인 독수리는 집무공간인 백악관의 상징마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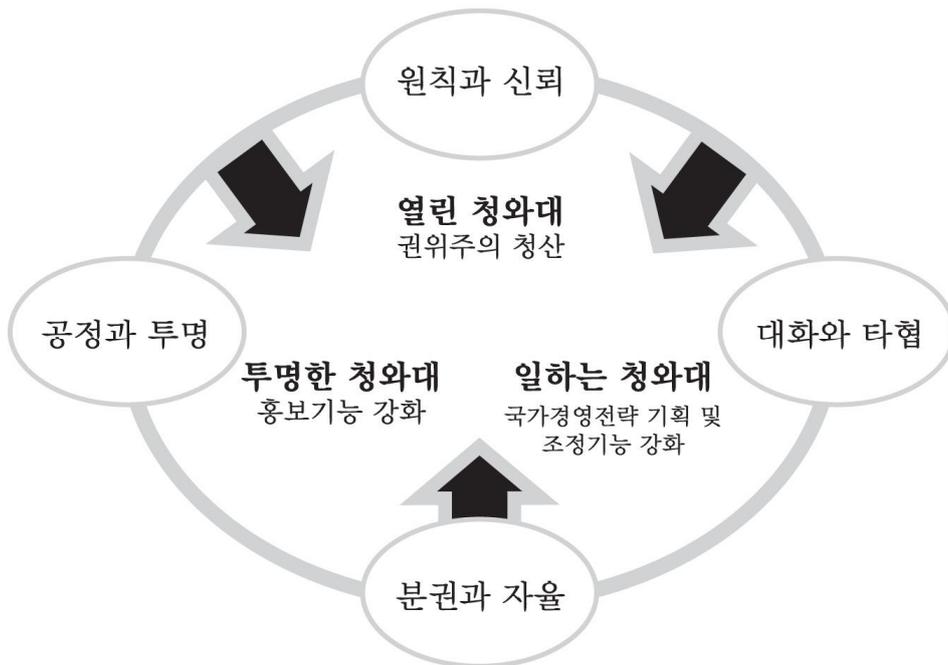
(그림 48) 연구 L 시안 적용 예

## 제2절 기대효과 및 후속관리

현재 사용 중인 청와대 심볼마크는 청와대 건물과 주변 환경에 의존된 디자인 시안이고 라인과 색상 등 전반적인 이미지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비전이나 새로운 concept의 적용, 신선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적인 touch 역시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응용편이 미비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괄적인 이미지만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청와대 심볼마크의 개발은 단순한 집단의 상징물 디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대한민국의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비서진을 포함한 사람으로서의 청와대의 Image Making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 이념이 되는 것이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은 국가의 다양한 이미지(국가적 특성, 사건, 문화, 역사 등)를 상징체계를 통해 시각화 하는 것으로 시각화 된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의 구성요소로써 대내적·대외적 소통을 유도할 것이다.



(그림 49) 참여정부 국정원리

국민에게 귀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청와대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군림’, ‘권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권위’가 아닌 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 집단으로서의 품격과 품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심볼마크의 탄생은 범국민적인 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은,**

- 국가기관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세계적인 DESIGN KOREA 기틀 마련
-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National Identity Program 구축을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 관련부처의 법제도화 및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극대화 등이 있다.

청와대 심볼마크 디자인 연구결과 나온 시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사용했을 때의 규정사항이 미흡하다. 기본 서식류 뿐 아니라 인쇄 홍보매체, 장치물과 인테리어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응용 시스템을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인 형태와 컬러의 고급화와 구체성을 갖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본 조사사업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를 맞이하여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 졌다는 점,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고 세계화에 발맞춰가려는 디자인적 접근과 변화하는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국가 상징물 제작 및 국가관대 연구  
이미지 조사 보고서**

##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	86
제2장. FGI 조사 결과 .....	91
제3장. 설문조사 결과 .....	105

[참고 1] FGI Script

[참고 2] 설문조사 통계표

[참고 3] FGI 가이드라인

[참고 4] 설문조사지

## 제1장. 조사 개요

## 1. 조사의 목적

일반국민 및 청와대 직원들의 대통령, 청와대 등에 대한 이미지와 대표상징물 인식 등을 파악하여, 청와대 CIP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2. FGI 조사 개요

### 2-1. FGI 주요 내용

항 목	내 용
1. 대통령/참여정부/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동물 비유 포함*)</li> <li>o. 참여정부에 대한 이미지</li> <li>o.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사람 비유 포함*)</li> </ul>
2. 대표 상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청와대 또는 정부의 대표 상징물</li> <li>o. 우리나라의 대표 상징물</li> <li>o. 우리 한민족의 대표 상징물</li> </ul>
3. 現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현재 청와대 문장에 대한 느낌</li> <li>o. 현재 대통령 표장에 대한 느낌</li> <li>o. 외국의 정부 상징물에 대한 느낌</li> </ul>
4.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중점 국정과제</li> <li>o. 새로운 청와대 문장에 대한 희망사항</li> <li>o. 새로운 대통령 표장에 대한 희망사항</li> </ul>

☞ 별표(\*) ‘대통령의 동물 비유’ 및 ‘청와대의 사람 비유’는 FGI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여자 26~34세 및 여자 35~49세의 그룹에게만 질문하였음.

2-2. FGI 대상 및 일시

그룹	대 상	일 시
1	남자 20대 대학생(8명)	2003. 4. 19.(토) 15:00~16:30
2	여자 20대 대학생(8명)	2003. 4. 19.(토) 17:00~18:30
3	남자 만 35~42세 직장인(6명), 자영업자(2명)	2003. 4. 20.(일) 11:00~13:00
4	남자 만 43~49세 직장인(6명), 자영업자(2명)	2003. 4. 20.(일) 14:00~16:00
5	남자 만 27~34세 직장인(8명)	2003. 4. 20.(일) 17:00~19:00
6	여자 만 26~34세 직장인(4명), 주부(4명)	2003. 4. 21.(월) 19:30~21:30
7	여자 만 35~49세 직장인(3명), 주부(5명)	2003. 4. 22.(화) 19:30~21:10

### 3. 설문조사 개요

#### 3-1. 설문조사 설계 및 진행

조 사 대 상	청와대 직원
표 본 수	120명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Interview)
조 사 기 간	2003년 5월 3일(화) 16:00 ~ 5월 4일(수) 16:00

#### 3-2. 설문조사 내용

-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 국민이 원하는 청와대의 이미지
- 대통령 표장의 장단점 및 교체희망 여부
- 청와대 문장의 장단점 및 교체희망 여부
- 우리 한민족의 대표 상징물

3-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백분율(%)
[ 전 체 ]	120	100.0%
[ 성 별 ]		
남 자	90	75.0%
여 자	30	25.0%
[ 연령대별 ]		
20 대	16	13.3%
30 대	53	44.2%
40 대	48	40.0%
50대 이상	2	1.7%
무응답	1	0.8%
[ 직 급 ]		
1, 2 급	3	2.5%
3, 4, 5 급	80	66.7%
6, 7, 8 급	20	16.7%
9, 10 급	13	10.8%
무응답	4	3.3%

## 제2장. FGI 조사결과

## FGI 결과 요약

대통령 표장에는 존엄성과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대체로 대통령 표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변경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소수이나마 봉황의 유래, 너무 권위적이다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인식도 나타났다.

대통령 표장 변경 시에는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존엄성을 계속 표현해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숨쉬는 푸근한 대통령, 신뢰감 등의 이미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장에 대해 권위적, 궁궐 느낌, 복잡, 단순 등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권력성, 접근 불가, 폐쇄성 등 두려움 섞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청와대 문장 변경 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인 서민성, 친근감, 편안함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청와대, 국민의 옆에 있는 청와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은 대통령 표장과 청와대 문장이 많이 홍보되어지고 친숙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P = National Pride & National Identity )

## 1. 대통령 이미지

### (1) 대통령에 대한 느낌 / 인식

▷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며 서민적, 편안함, 젊음, 참신함, 친근함, 순수함, 깨끗함, 겸손함, 자유로움, 유연함 등 감성 측면의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웃 아저씨, 형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는 영부인의 소박함과 겸손함 등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리적, 예리함, 합리적, 실용적,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이성 측면의 긍정적 이미지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권위와 위엄이 약하다(너무 서민적),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당선 후 개혁성이 약해졌다, 즉흥적이다, 너무 나선다, 투박하다, 독선적이다 등 부정적 인식도 있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여러 계층에 걸쳐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남자 43~49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속에 담은 것으로 보였다.

남자 43~49세 계층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 (2) 대통령에 대한 동물 비유<sup>1)</sup>

▷ 대통령의 우직함, 성실함, 똑심, 우둔한 면 등의 이유로 곰이나 소, 거북이 등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모와 (너그럽게 보여도)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란 이유로 호랑이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다.

▷ 진돗개, 칠판지, 두더지 등의 비유도 나타났다.

1) 대통령에 대한 동물 비유는 FGI 가이드라인 변경에 의해 여자 26~34세 및 여자 35~49세의 계층에 대해서만 질문하였음.

### (3) 대통령의 색깔

- ▷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황토색, 흰색, 검은색, 회색 등 여러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 파란색은 젊음, 희망 등을  
노란색은 인간적, 고집, 노사모 등을  
초록색은 편안함, 자연스러움 등을  
빨간색은 뚜렷한 자기주관, 정렬적, 진취적,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고,  
황토색은 서민적, 시골풍 등을  
흰색은 순수함, 깨끗함, 서민적, 뚜렷한 자기주관 등을  
검은색은 강인함, 고집, 우직함 등을  
회색은 겉은 편하지만 속은 날카로움, 뚜렷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

## 2. 참여정부 이미지

### (1)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미지

- ▷ 젊은 층에서는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로 국민의견 수렴, 서민참여 유도, 국민과 함께 하는 느낌, 참신함 등을 꼽았다.
- ▷ 다르다는 느낌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았다. 이유로는 모든 국민의 참여가 아닌 386세대 등 일부의 참여를 들었다.

### (2) 참여정부에 대한 느낌

- ▷ 참여정부라는 말 자체에는 민주주의의 표본 등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 그러나, 현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만 참여한다, 일관성이 없다 등 안좋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다.

### (3) 참여정부의 색깔

- ▷ 대부분 아직은 정부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 색깔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파란색(깨끗함, 역동적), 빨간색(개혁적), 검은색(강인함), 하얀색(투명함) 등을 꼽았다.

### 3. 청와대 이미지

#### (1) 청와대에 대한 느낌

- ▷ 청와대에 대한 느낌으로 권력, 권위, 접근 불가, 폐쇄성, 두려움, 딱딱함 등의 느낌을 주로 갖고 있었다.
-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점점 개방되는 느낌,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만만하게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다(권위 없다).

#### (2-1) 청와대란 사람의 나이<sup>2)</sup>

- ▷ 청와대란 사람의 나이는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여, 특정 연령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다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연상된다며 40대라고 얘기했다. 이 계층은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나이보다 적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 30대는 약간 기반도 잡고 단정한 느낌을,  
40대는 한창 열성적으로 일할 때라는 느낌을,  
50대는 약간 나이든 신사 같은 느낌,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나태함도 있을 거란 느낌, 옛스럽다는 느낌을 이유로 들었다.  
60대는 나이는 들었지만 새 출발할 때라는 느낌, 옛스럽다는 느낌을,  
70대는 낡은 느낌, 옹고집 등의 느낌을 이유로 들었다.

#### (2-2) 청와대란 사람의 취미

- ▷ 청와대란 사람의 다양한 나이만큼 다양한 취미가 나타났다.
- ▷ 골프, 수영, 조깅 등 동적(動的)인 취미도 있었고,  
낚시, 화초 가꾸기 등 정적(靜的)인 취미도 있었다.  
이외에 정치, 토론 등의 취미와  
옛보기(감시), 보석류 수집 등 부정적인 느낌의 취미도 나타났다.

2) 청와대의 사람 비유에 대해서는 FGI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여자 26~34세 및 여자 35~49세 계층에 대해서만 물었음.

(2-3) 청와대란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

▷ 청와대란 사람은 된장찌개, 보양식, 잡식, 한정식, 삼겹살 등을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다.

선호 음식 역시 청와대란 사람의 나이에 맞게 다양하였으나, 된장찌개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상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된장찌개는 노 대통령이 생각나서, 보양식은 70대의 나이라 몸에 좋은 것은 뭐든지 먹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꼽았다고 하였다.

잡식은 한창 일할 때인 40대라 이것저것 잘 먹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정식은 깔끔한 걸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하였다.

(2-4) 청와대란 사람이 선호하는 술

▷ 좋아하는 술로는 막걸리(대통령 연상), 동동주(대통령 연상), 소주(과음 스타일), 정종, 백세주(소주보다 다소 고급), 양주(부르주아적 생활, 풍요로운 생활), 몸에 좋은 귀한 술(나이가 많아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5) 청와대란 사람의 청렴도

▷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청렴할 것이란 생각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그러기를 희망하였다.

▷ 여자 26~34세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청렴하다부터, 적당한 기회주의(아주 나쁜 정도는 아닌 수준), 청렴하지 않다(속마음이 따로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럽다 등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6) 청와대란 사람의 검소 정도

▷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대다수가 검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 여자 26~34세 계층에서는 검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검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반 정도였다.

검소하다는 사람들은 사치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을 거란 이유를, 검소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적인 느낌, 여유 있게 소비할 것이란 느낌 등을 이유로 들었다.

(2-7) 청와대란 사람의 능력 여부

- ▷ 청와대란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 여자 35~49세 계층은 패기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실제 발휘도 하는 긍정적 능력을 말한 반면,  
여자 27~34세 계층은 내적인 능력은 있으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앞선 사람을 그저 따라만 하는 부정적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도 이 계층에서 나타났다.

(2-8) 청와대란 사람의 아랫사람 대우

- ▷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예우해줄 것이다, 잘해줄 것이다 등이 대다수였다.  
한편 자기표현도 할 것이다, 월권하면 참지 않을 것이다 등도 일부 나타났다.
- ▷ 여자 27~34세 계층은 명령조로 말하고 권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다수였다.  
맘에 드는 사람만 잘해줄 것이다, 아랫사람 의견에 휘둘릴 것이다 등도 나타났다.

(3) 청와대의 색깔

- ▷ 파란색과 초록색이 많았는데, 청와대의 기와 색깔과 많은 나무, 잔디 등을 우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 ▷ 회색(애매한 느낌, 대리석처럼 찬 느낌), 검정색(무겁고 칙칙함) 등도 나타났다.
- ▷ 한편, 남자 35~42세 계층에서는 파란색을 지적하지만 다른 계층과 달리 시퍼렇고 안좋은 느낌의 파랑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 남자 43~49세 계층에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청와대 구성 인력에 대한 느낌

- ▷ 기구와 인원이 너무 많다, 너무 젊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만의 참여로 다양하지 않다, 권력 지향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
- ▷ 개혁적이다, 젊어졌다(좋은 의미), 실력 있다, 잘할 것 같다 등 긍정적 인식은 소수에 그쳤다.

## 4. 대표적 상징물

### (1) 청와대 또는 정부

- ▷ 청와대나 정부의 상징물로 무궁화가 국화(國花)라는 이유로 많이 나타났고, 태극(3태극 포함)도 많은 편이었다.  
봉황도 많았는데, 대통령 표장의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그 밖에 해태상, 우리나라 지도, 비둘기, 매, 까치, 돌고래, 용, 학, 기와, 호랑이, 붉은 악마, 손바닥(박수치는 모습), 소나무, 대나무 등도 있었다.

### (2) 우리나라

- ▷ 우리나라의 상징물로는 태극(3태극 포함)이 가장 많았다. 붉은 악마와 이에 관련된 것(붉은 악마의 빨간색 깃발 등)도 많은 편이었다.
- ▷ 한복, 무궁화, 태극기, 태권도, 호랑이, 한반도 지도, 세종대왕, 훈민정음, 광개토태왕, 대한민국이라는 말, 남대문, 동대문, 한강, 김치, 설악산, 사계절, 경주, 제주 등도 연상하였다.

### (3) 우리 한민족

- ▷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상징물로 한반도 또는 한반도기, 태극(3태극 포함)이 많이 나타났다. 한반도를 떠올리는 것에는 통일의 마음도 담겨 있는 듯 했다.
- ▷ 이외에 한복, 아리랑, 무궁화,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맥, 호랑이, 곰, 마늘(단군신화), 분단현실(3 · 8선 등) 등을 꼽는 답변도 있었다.

## 5. 現 청와대 문장

### (1) 現 청와대 문장 인지도

▷ 청와대 문장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모르거나, 봉황 등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여줬을 때에는 다수 사람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용도로는 해변인 브리핑 장소, 청와대 홈페이지, 뺏지 등을 들었다.

### (2) 現 청와대 문장에 대한 호감 여부

▷ 남자 43~49세 계층과 여자 35~49세 계층에서는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 계층보다 젊은 층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보통이다(그저 그렇다)라는 사람이 많았다. 젊은 층에서 마음에 든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한국적인 이미지, 전통적인 느낌(기와), 청와대를 잘 표현함, 평화로움(초록색) 등을 꼽았다.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궁궐 같다(거리감, 왕권의 냄새, 권위적), 복잡하다, 단순하다(상징 아닌 그림 같다), 딱딱하다, 답답하다, 현대적이지 못하다, 다른 것(동대문/남대문/민속촌 등)과 구별이 안된다 등을 들었다.

### (3) 現 청와대 문장 교체 여부

▷ 남자 43~49세 계층에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계속 쓰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나머지 계층에서는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연령대가 젊을수록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 기억하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 간결하고 단순했으면 좋겠다 등이 나타났다.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국민세금 낭비), 바꾼다고 청와대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 지속하는 것이 좋다 등이 꼽혔다.

## 6. 現 대통령 표장

### (1) 現 대통령 표장 인지도

- ▷ 대통령 표장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에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고, 보여줬을 때에는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 ▷ 용도로는 대통령 집무실, 표창장, 대통령 차량 번호판 등을 들었다.

### (2) 現 대통령 표장에 대한 호감 여부

- ▷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다.  
눈에 익숙한 것이 부분적으로 호감 정도를 보다 높인 듯 보였다.
- ▷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는 존엄, 위엄,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답변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봉황을 보며 느낀 것들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속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외에 품위 있다, 귀해 보인다, 역사성(전통성)이 있다, 무궁화가 있어 좋다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유래가 안 좋다(중국의 용 관련), 너무 권위(권력)적이다 등이 주로 나타났다.

### (3) 現 대통령 표장 교체 여부

- ▷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았다.
- ▷ 바꾸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현대적인 느낌(첨단 등)이 없다, 권위적이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마음에 든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을 꼽았다.
- ▷ 한편 봉황의 유래를 알려줬을 때에는, 바꾸지 말자던 대다수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 7. 외국의 정부 상징물

### o 외국의 정부 상징물 인지여부 및 느낌

- ▷ 외국의 정부 상징물에 대해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 ▷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는 백악관 마크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중국정부 마크, 영국정부 마크, 호주정부 마크 등이 있었다.
- ▷ 백악관 마크에 대해서는 강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다.
- ▷ 중국정부 마크는 황제라는 느낌(위엄)이 든다고,  
영국정부 마크는 복잡하지 않고 눈에 잘 띈다고,  
호주정부 마크에 대해서는 캥거루와 초록색이 호주의 상징물로는 적절하다고  
느낌을 표현했다.

## 8. 대통령/참여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 o 대통령/참여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 ▷ 경제안정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외교(북한, 미국 등), 교육(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문제), 국민 알권리 충족(안좋은 것도 가리지 말고 알려 주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 등도 많은 편이었다.
- ▷ 이외에 대통령이 권력(카리스마)을 키웠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줬으면, 장관임기 보장했으면, 노인/장애인 대책 강화했으면 등의 바람이 나타났다.

## 9. 새로운 청와대 문장

### (1) 새로운 청와대 문장에 포함되어야 할 의미

- ▷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 가운데, 국민과 함께라는 의미, 국민 화합/통합의 의미, 한민족 통일의 의미 등이 눈에 띄었다.
- ▷ 이외에도 편안함, 친숙함, 신뢰감, 정직함, 위엄, 존경심, 사람들간의 관계, 역동성, 현대적, 한국적, 전통적, 깨끗함, 평화, 희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2) 새로운 청와대 문장의 색깔

- ▷ 새로운 청와대 문장으로는 파란색이 좋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지금과 같은 톤의 파란색, 밝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 하늘색 등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 ▷ 초록색은 일부 사람이 추천하였는데, 좋다는 사람과 좋지 않다는 사람으로 갈리었다. 좋지 않다는 사람은 초록색이 우리나라의 상징이 아니라고도 했고, 파란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 ▷ 빨간색은 태극마크를 연상하여 일부 사람이 추천하였다.
- ▷ 이외에 황토색 등이 나타났다.

## 10. 새로운 대통령 표장

### (1) 새로운 대통령 표장에 포함되어야 할 의미

- ▷ 존엄, 위엄, 권위, 고귀함, 존경 등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를 다수의 사람이 말하였다.  
온화함, 편안함, 사랑, 부드러움 등 여성적인 의미도 있었으나, 앞서 말한 존엄, 위엄 등과 함께 표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 ▷ 그 밖에 국민과 하나라는 의미, 국민과 함께라는 의미, 신뢰감, 정의로움, 탈권위(권력)적, 지도력, 청렴결백, 포용, 민족의 역사와 숨결 등도 나타났다.

(2) 새로운 대통령 표장의 색깔

- ▷ 봉황의 색깔로는 금색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유는 고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등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봉황 색깔로 자연색을 추천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 ▷ 무궁화의 색깔로는 현재의 금색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고, 자연색(무궁화 본래 색)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 ▷ 한편, 바탕색으로는 파란색 선호(지금 그대로)와 흰색 선호로 대략 나뉘었다.

11.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 관련 건의사항/바람

o 건의사항 / 바람

- ▷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정부의 대표 상징물이 국민들 또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 ▷ 그 밖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기를 희망했고,  
한국적 느낌을 살렸으면,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강인한 느낌이 있었으면, 심볼에 사람이 들어있었으면 등의 의견이 있었다.

## 제3장. 설문조사 결과

## 1. 대통령에 대한 느낌/이미지

문) ‘노무현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노무현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물은 결과, ‘서민적/친근함’이 81.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혁적’(35.0%), ‘원칙’(29.2%), ‘정직/신뢰/진솔’(28.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음.

☞ [참고] 본 문항은 3가지를 기입하는 중복응답형 질문으로 총 퍼센티지는 300.0%가 됨 (기입안한 경우 포함).<sup>3)</sup>

순위	상위 10순위 항목	백분율(%)
1	서민적/친근함	81.7
2	개혁적	35.0
3	원칙	29.2
4	정직/신뢰/진솔	28.3
5	젊음/신선함	20.8
6	강인함	17.5
6	추진력	17.5
8	논리적 사고와 표현	10.0
9	국민통합	3.3
9	참여	3.3
9	파격적	3.3

3) 이하의 설문항에서 위와 같이 중복응답이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총 퍼센티지 100.0%의 단일응답이라는 것을 밝혀둠.

## 2. 국민이 원하는 청와대의 느낌 / 이미지

문) ‘청와대’(대통령과 비서진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국민이 원하는 ‘청와대’의 느낌이나 이미지로는 ‘친근함’이라는 응답(57.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직/신뢰/투명’(25.8%), ‘청렴’(11.7%), ‘존엄/근엄’(11.7%) 등의 응답 순서로 나타남.

☞ [참고] 본 문항은 2가지를 기입하는 중복응답으로 총 퍼센티지는 20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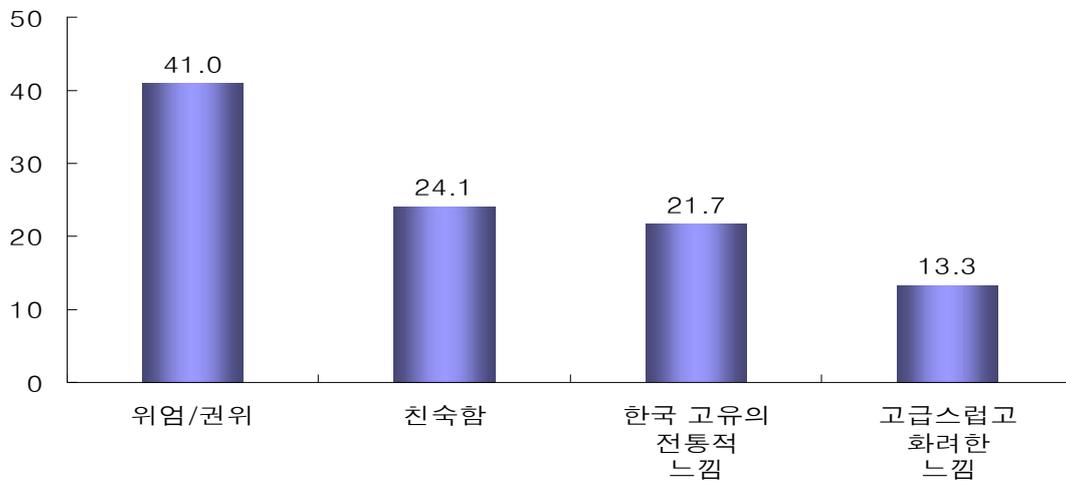
순위	상위 10순위 항목	백분율(%)
1	친근함	57.5
2	투명/정직/신뢰	25.8
3	청렴	11.7
3	존엄/근엄	11.7
5	전문성/능력	10.8
6	개혁적	10.0
7	부지런함/열정/역동적	9.2
8	리더십	5.8
9	깨끗/깔끔	4.2
9	안정	4.2

### 3. 대통령 표장의 장·단점과 교체희망 여부

문) 다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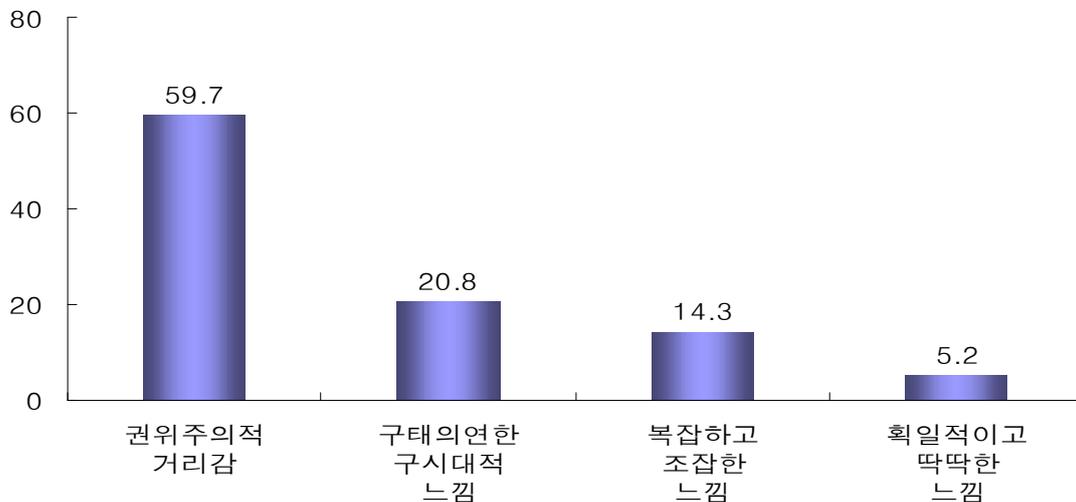
#### ▣ 대통령 표장의 장점

- 대통령 표장의 장점으로 ‘위엄/권위’라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친숙함’(24.1%), ‘한국 고유의 전통적 느낌’(21.7%),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13.3%) 등의 응답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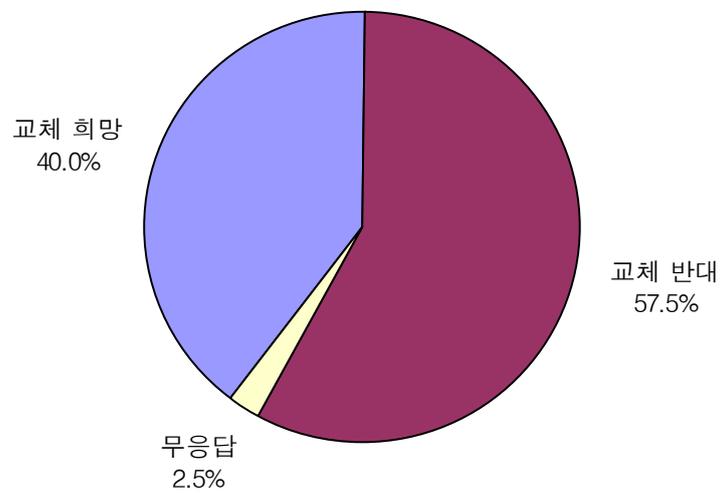
#### ▣ 대통령 표장의 단점

- 대통령 표장의 단점으로는 ‘권위주의적 거리감’이 59.7%로 가장 높았고,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이미지’(20.8%), ‘복잡하고 조잡한 느낌’(14.3%), ‘획일적이고 딱딱한 이미지’(5.2%) 등의 응답 순서로 뒤를 이음.



▣ 대통령 표장의 교체희망 여부

- 대통령 표장의 교체희망 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7.5%로 ‘희망’한다는 의견(40.0%)보다 17.5%포인트 높게 나타남(무응답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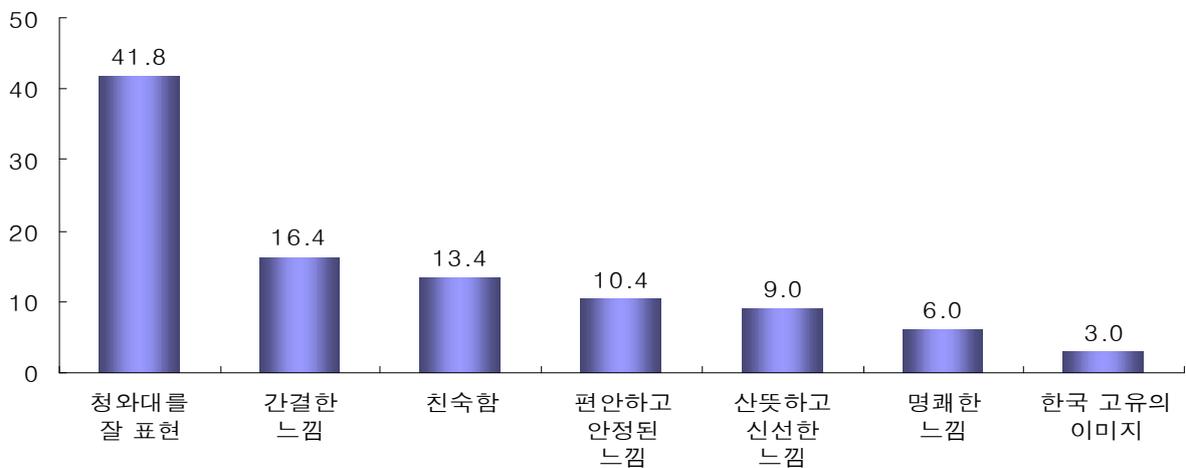


## 4. 청와대 문장의 장·단점과 교체희망 여부

문) 다음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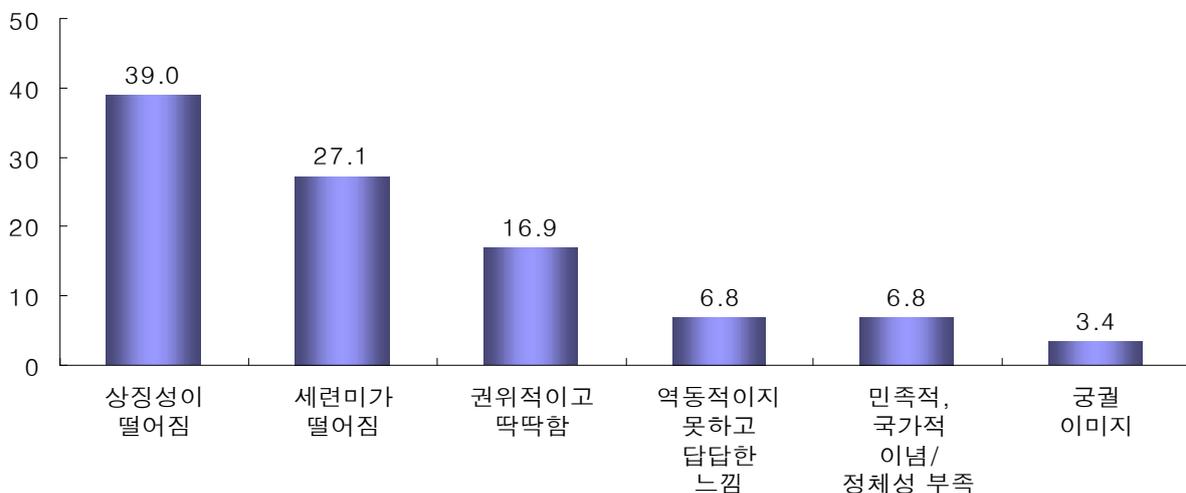
### ■ 청와대 문장의 장점

- 청와대 문장의 장점에 대해 ‘청와대를 잘 표현함’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간결한 느낌’(16.4%), ‘친숙함’(13.4%),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10.4%), ‘산뜻하고 신선한 느낌’(9.0%) 등의 응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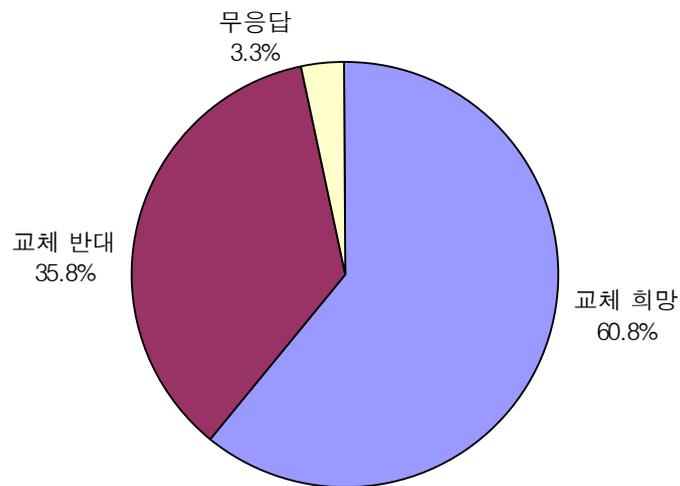
### ■ 청와대 문장의 단점

- 청와대 문장의 단점으로는 ‘상징성이 떨어짐’이라는 응답(39.0%)이 가장 높았고, ‘세련미가 떨어짐’(27.1%), ‘권위적이고 딱딱함’(1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음.



■ 청와대 문장의 교체희망 여부

- 청와대 문장의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60.8%로 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35.8%)보다 25.0%포인트 높게 나타남(무응답 : 3.3%).



## 5. 한민족의 대표 상징물

문)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을 물은 결과, 다양한 응답이 나타난 가운데, ‘태극무늬’(17.5%)와 ‘호랑이’(15.8%) 두 가지 응답만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임.  
다음으로 ‘한복’(5.0%), ‘백두산’(5.0%), ‘무궁화’(4.2%), ‘아리랑’(3.3%) 등의 응답 순서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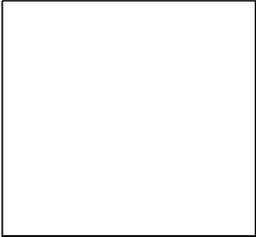
순위	상위 10순위 항목	백분율(%)
1	태극무늬	17.5
2	호랑이	15.8
3	한복	5.0
3	백두산	5.0
5	무궁화	4.2
6	아리랑	3.3
6	한글	3.3
6	소나무	3.3
9	남대문	2.5
10	붉은 악마, 국민의 힘, 학(공동 10위)	1.7

## 참고 1. FGI Script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남자 20대 대학생)

좌담회 일시 : 2003년 3월 19일 (토) 15:00시

참석자 명단 :

조현철 5		4 이영민
서봉진 6		3 전흥국
김종한 7		2 구정현
김재완 8		1 정충원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충원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이고 22세이고 송파구에 살고 있어요.
구정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부 1학년이고 동작구에 살아요.
전흥국	경희대학교 3학년이고 도봉구에 살고 있고 나이는 25세예요.
이영민	상명대학교 1학년이고 나이는 21세이고 종로구에 살고 있어요.
조현철	건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이고 나이는 27세입니다.
서봉진	삼육대학교 3학년 컴퓨터공학과이고 노원구에서 왔어요.
김종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고 관악구에서 왔어요.
김재완	나이는 25세이고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이에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김종한	전에 대통령 될 때까지는 개혁적이고 새로운 것을 많이 치중하고 파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혁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서봉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불쌍한 것 같아요. 당선되기 전부터 사고가 많았잖아요. 지하철도 있고 에스케이 그런 것도 있고 뭐를 시행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안 좋고 인사개혁을 해도 주위에서 솔직히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탄지 걸고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요.
- 이영민           옛날에는 학생운동할 때도 참여를 같이 하고 혁신적이고 밀어부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고 나니까 밀어부치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재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군과견문제도 그렇고 보내기 좋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나라의 대표자니까 만약에 어차피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나라가요. 저희보다 약한나라도 저희한테 잘 보여야 되고 힘 때문에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해도 저희같이 또 안되는 것이 당연한데 대통령은 국익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깐 반대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험이나 모든 것이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높아서가 아니라 이해는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 전홍국           집권한지 몇 개월 안됐는데 토론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과거를 봤을 때 김대중대통령시절에도 IMF터진 것이 김대중대통령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전부터 썩어왔던 것들 때문에 터진건데 이번에 노무현대통령 당선 되어서 전부터 쌓였던 것이 계속 터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노무현대통령 이미지와는 결부시키기는 힘들다고 보고 아직 반년도 안됐는데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 구정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개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지만요.
- 서봉진           노무현대통령이 데게 개혁적인 것 같았는데 힘이 없잖아요. 아직은요. 힘이 없는 것이 느껴져요. 보기도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 사회자**           **왜 대통령이 힘이 없나요?**
- 서봉진           그거 나라 주위의 정권세력들이 자기 보다 약간 낮아야되는데 다 위에 있거든요. 인사개혁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탄지 걸고 사표 써 버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 조현철           뒤에서 일반 서민이다 보니까 주로 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정책으로 많이 내놓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너무 많이 조율이 되어서 하는 정책마다 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봐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점차적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인기에 편승되어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 서봉진           의지는 강한데 힘은 없어요.
- 정충원           맨날 차이는 대통령이요.
- 이영민           편안한 대통령. 서민적이고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 서봉진           회색이요.
- 김재완           붉은색.

정충원	파란색.
구정현	파란색.
조현철	노란색.
이영민	무색.
김종한	녹색.
<b>사회자</b>	<b>회색이라고 하는 이유는요?</b>
서봉진	검은 색은 아닌데 어두컴컴한데 뭔가 보일 것 같은데요.
김재완	붉은 색은 색깔이 어떤 사람들은 자극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극적이라서 싫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싫어하고요
정충원	파란색은 여태까지의 대통령과 비교하면 젊잖아요.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구정현	우리나라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과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조현철	노란색은 대선 때부터 노란색의 이미지에요.
<b>사회자</b>	<b>노란색의 이미지는 좋은가요?</b>
조현철	색깔은 좋은데 대통령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전홍국	노란색이 약간 여린색이잖아요. 광고에서도 나왔고 노무현대통령이 울고 그런 광고도 나오고 그런데에서 주는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이영민	무색은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대로 가고 파란색을 칠하면 파란색으로 하고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면 깨끗한 이미지이니까요.
김종한	초록색은 편안한 이미지가 많고 그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고 보기에는 좋은데 만만하니까 기어오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b>사회자</b>	<b>참여정부를 알고 있나요?</b>
모 두	예.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이미지가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b>
정충원	이미지는 비슷해요.
<b>사회자</b>	<b>어떤 면에서요?</b>
정충원	젊은 세대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서민들의 생각을 많이 수렴을 하니까 참여정부지요.
전홍국	언론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느낌에서는 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대통령이미지와 참여정부는 처음에는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 매치를 해 주려고 했잖아요. 언론 쪽에서 부각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합되어 보이지는 않아요.

- 김종한 노무현대통령이랑 참여정부는 느낌은 비슷한데 실제로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본 적이 없거든요.
- 사회자 **참여정부에 대해서 아는 내용도 있나요?**  
전홍국 청와대홈페이지 가면 대통령한테 쓰는 게시판 그런것도 있어요.
- 사회자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지 다른분은 어떠세요?**  
조현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무현대통령은 정치하면서 세력이 다른 정치인들보다 없다보니까 결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론이고 여론은 국민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니까 국민들의 끌어들이고 가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는 맞다고 보거든요.
- 사회자 **참여정부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조현철 긍정적이고... 같기는 한데 아직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여론이나 성숙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여론에서 몰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고 국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감정이 없이 단순하게 없다보니까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재완 참여정부라는 것이 서민이고 잘사는 사람이고 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똑같지요.
- 사회자 **청와대 하면 갖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는요?**  
좌 중 파란지붕. 존경. 폐쇄된. 거부감 하면 거부감의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사람들은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 구정현 우러러보는. 이유는 그래도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우리나라가 정치인을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지지를 받아서 자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 봐서 그만큼 우러러보는 것 같아요.
- 서봉진 비밀스럽고. 집은 큰데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조현철 우리나라의 자존심.
- 전홍국 폐쇄적인. 이유는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하지만 일단 많이 간이 덜컹하고 두렵고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예전에 제가 그런데 실망했던 것이 그쪽에 다른 정치인들 말고 청와대비서 실장이 얼마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뭐하는 것은 아닌데 대통령측근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쪽에는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라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 사회자 **청와대는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모 두 예.
- 사회자 **청와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좌 중 지붕은 파란색. 파란색과 녹색.
- 사회자 **녹색의 이유는요?**  
조현철 청와대 나오면 앞에 잔디밭이나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크심볼도 청와대초록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비서진을 포함해서 현재청와대 인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 정충원 비리요.
- 서봉진 잘은 모르겠는데 김대중대통령그때 까지 만해도 비서실이랑 대통령실이랑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열려있다고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뜻이에요. 미국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영민 개혁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적이니까 모든 사람들도 다 개혁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 조현철 불균형 부조화요. 비서진이라고 하면 모든 손발이 맞아 가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정치라는 것이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들은 비서진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변인도 북한에 대한 것을 대변할 때도 안보 보좌관이 설명도 없이 혼자 브리핑하다 보니까 나중에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붙어지니까 보좌관이 나서고 안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하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바쳐줄 때는 바쳐줘야 하는데 따로 나가니까 많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 김종환 권위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비밀스럽고 폐쇄적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 전홍국 무서울 것 같아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 전홍국 이제 까지 정치인 쪽에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세력이 들어가서 한다면 아무리 노무현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많이 다른 데에서 정치상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적이라고 해도 주변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 김재완 그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여태까지 그런 것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그런 것 같아요.
- 구정현 청와대에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와대에 대해서 바꾸려고 시도를 해도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를 대표할만한 것이 있다면요?**
- 조현철 해태상이요. 해태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물어죽인다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광화문 앞에 있었고 비리가 많이 붙어지니까 그런 것의 상징해서 비리를 많이 낮추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 사회자** **현재정부를 대표할만한 상징물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 서봉진 무궁화. 국화라서요.
- 이영민 비둘기. 날아가는 새요.
- 사회자** **그게 우리나라 정부와 맞는 것 같으세요?**
- 이영민 그게 맨날 땅바닥 걸어다니고 쓰레기도 줍고요.
- 구정현 봉황이요. 딱 보면 생각나는 것이 특별하게 의미는 없고 청와대 생각하면 봉황이 떠올라요.
- 김재완 지도요. 무궁화나 그런 것은 저희나라만 하는 건데 코리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 김중환                   무궁화인 것 같아요. 정부물품을 보면 무궁화 있고 정부라고 써있으니까요.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유형이나 무형의 상징물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정충원                   태극기.
- 이영민                   빨간국기요. 월드컵 때문이에요.
- 서봉진                   태극마크요. 저희나라는 몰라도 태극마크 하면 다 알잖아요.
- 조현철                   태극마크요.
- 사회자**                   **북한까지 포함한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김중환                   북한까지 해서 태극마크요. 빨간 파랑 되어 있어서요.
- 전홍국                   한반도기요.
- 조현철                   단일통일기로 한반도기요.
- 정충원                   한반도기가 제일 나올 것 같아요.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본적이 있나요?**  
조현철                   본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브리핑 하려고 나오면 뒤에 항상 있잖아요.
- 사회자**                   **본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봤나요?**  
조현철                   TV뉴스할 때 나 브리핑할 때.
- 사회자**                   **이 문장은 어떤 용도로 쓸 것 같으세요?**  
정충원                   브리핑할 때요.
- 조현철                   요즘은 나라나 기관이 심볼을 상징하는 것처럼 청와대도 정부들의 각 부처에도 마크가 있듯이 청와대도 차별화를 하고 외국에도 보여 줄 때도 쓸 것 같아요.
- 좌   중                   뻬지.
- 전홍국                   청와대 깃발에요. 서명같은 것을 내놓을 때 마크를 보내 주면서 청와대에서 한거 라는 상징물로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인데 내 입장에서 볼 때 어떠세요?**  
- 마음에 든다하시는 분? 2명.  
-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 3명.  
-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 3명.

- 사회자**                   **마음에 든다하시는 이유는요?**  
 구정현                   기와집 하면 우리나라의 상징하잖아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 이영민                   색깔도 좋고 밑에 글씨가 청와대 대한민국 써 있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전홍국                   건물 자체 그림은 이상해 보이기 는 하는데 그거 아니면 특별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감각이 없어 보이고...
- 사회자**                   **집 모양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떠세요?**  
 전홍국                   무식해 보이고요.
- 전홍국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무난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고 몰랐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청와대인데 저거를 모양이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안나는 쪽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 조현철                   청와대처럼 다나온 것도 너무 복잡해 보이고 다나온 것이 간단 간단하게 이미지를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인왕산도 저렇게 빗살무늬가 아니라 파란색깔로 하고 위에 파란색으로 해서 인왕산구별을 확실히 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보여줬으면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 사회자**                   **가운데 부분이 복잡하다는 거지요?**  
 조현철                   예. 청와대건물이고 인왕산하고요.
- 사회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요?**  
 김종한                   그림이나 글자가 청와대나 대한민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로고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색깔이나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딱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 사회자**                   **어떤 면에서 답답하신가요?**  
 김종한                   보기에 답답해요.
- 서봉진                   외국사람이 봤을 때 한글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림만 보고 저게 한국집인지 아니면 중국집인지 비슷비슷하잖아요. 기와집이요. 그다지 저희나라를 대표할만하지는 않아요. 저거를 하고 아니면 태극기를 하나 그려놓든지 우리나라의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요.
- 사회자**                   **가운데 태극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으신가요?**  
 서봉진                   예.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내면 아래에 하던지요. 태극무늬만요.
- 김재완                   너무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삼성이나 엘지 로고도 말 그대로 엘지인데 친구가 말을 했는데 집도 그렇고 세계사람들이 보면 중국은 아는데 저희나라는 모르잖아요. 중국의 기와집이 있는지는 알고 저희나라의 기와집은 모르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도 있고 색깔도 그렇고 국기 같은 것을 그럴 때도 우리나라 국기는 못 그려도 일본국기는 그리잖아요. 저희도 막상 봐서 아는데 외국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앞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시는 분? 5명.

- 사회자**                    **중간이예요?**  
 정충원                    예. 이유는 마크를 만들자면 또 국민의 세금을 뜯어서 디자인도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뜯어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청와대만 대표하는 것뿐인데 크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바꿀 필요는 없고 보통이예요?**  
 전홍국                    예.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바꾼다고 해서 더 나을 것 같지는 않고 약간그쪽사람들은 만들 면 권위성을 보여 주는 것도 있으니까 잘한다면 괜찮은데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택을 하기에 디자인을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 사회자**                    **구정현씨와 이영민은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구정현                    예.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좌 중                    봉황이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봉황이 떠올라요?**  
 모 두                    예.
- 사회자**                    **이거는 어디에서 봤나요?**  
 정충원                    차량에요. TV에서 뉴스할 때 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기는 했는데 대통령마크인지 몰랐어요.
- 사회자**                    **대통령 전용마크로 쓰는 건지 알고 있었던 사람? 2명.**  
**사회자**                    **다른 분은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김종한                    정부기관에서 쓰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 사회자**                    **또 어디에서 봤나요?**  
 서봉진                    임명장에서요.
- 조현철                    전세기에서요.
- 서봉진                    부대에서 봤어요. 대통령상장에서요.
- 전홍국                    영화에서 봤어요.
- 사회자**                    **어떤 곳에 쓰려고 대통령표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세요?**  
 전홍국                    대통령이 썼다. 대통령거다. 대통령의 권한의 나타내기 위해서요.
- 사회자**                    **그 외에 사용되어 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 곳은요?**  
 전홍국                    청와대출입증.
- 서봉진                    외국에 선물보낼 때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지 어떠세요?**  
 -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4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2명.  
 -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 2명.
- 사회자**                    **마음에 드는 이유는요?**

- 정충원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살린 것 같아요. 무궁화 그런 것을 보면 요. 봉황만 보면 중국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궁화가 가운데 있으니깐 한국 거라고 생각해요.
- 사회자** **봉황만 보면 중국 거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나요?**
- 정충원 예. 우리나라사람이 봤을 때는 한국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 김중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황에 의해서 수호되는 무궁화가 연상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표장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 전흥국 한국적인 이미지를 잘 나타낸 것 같고요.
- 사회자** **뭐가 한국적이지요?**
- 전흥국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칼라가 아니라 검은색이 좋아요.
- 정충원 저는 TV에서 봤을 때 파란색바탕은 모르겠고 금색만 있는 달랑 기억나는데 흰색에 금색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파란색이 촌스러워요.
- 사회자** **원래칼라보다 위에 흑백 검정색으로 나와있는 것이 오히려 나은가요?**
- 좌 중 예.
- 정충원 저는 금색만 있는 것어요.
- 사회자** **파란바탕은 싫으세요?**
- 정충원 촌스러워요. 70년대인 것 같아요.
- 이영민 저는 좋은데요.
- 사회자** **마음에 든다는 이유는요?**
- 서봉진 여태까지 권위니까 청와대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거는 어디서나 보기 쉽거든요. 근대 갔다온 사람들은 한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행정반에 가면 저런 것이 걸려있어요.
- 사회자** **보통인 이유는요?**
- 구정현 뭐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닌데 딱 와 닿지는 않아요.
- 김재완 저희는 봉황을 아는데 외국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오래 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바꾸면 그렇잖아요. 또 홍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마음에 안드는 이유는요?**
- 조현철 옛날에 봉황이 조선시대 왕 때부터 썼던건데 권력자의 상징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봉황이 원래 우리나라도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상상속 동물로 알려 있는 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속국인 니네가 용을 쓴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고 해서 봉황을 써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권력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그런 유래를 알고 보니까 봉황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것 같고 그래서요.
- 이영민 우리나라의 무궁화밖에는 생각이 안나는데 무궁화를 그려서 빈칸을 채우려고 한 느낌이에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는 상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영민 예.  
 사회자 다른 사람들은 어떠세요?  
 조현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사회자 앞으로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심을 뒀서 국정운영을 한다고 보시나요?

조현철 경제 쪽이요.

정충원 어떤 일을 하려면 위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힘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가 힘을 키운 후에 권력도 키우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김재완 잘 안되고 나쁜 것은 다 보완 작용이나 아니면 IMF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좋은 면만 있고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제도 잘될 가능성은 10%고 안되는 가능성이 90% 라면 정부에서는 잘 된다고 보고 할테고 안된다고 하면 사기 문제인데 있는 그대로 똑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김종한 선거전에 했던 공약대로만요. 말로한대로 하면 잘될 수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 처음에 공약했던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세웠던 것 같은데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추진력이 있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봉진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고 인사개혁도 있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일단은 서민이 잘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정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무현대통령 혼자 정치적으로 해봤자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주는 경제이고 다음이 정치인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 노무현대통령이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서봉진 저희또래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는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추세이고 30대 후반부터는 노무현대통령 나온다면 TV를 크고 그런다는데 그게 다 경제가 안 좋아서요. 노무현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이어온 것이지만 경제를 잡으면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구정현 경제고 살아야 노무현대통령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홍국 경제 쪽인데요.

이영민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이고 공약 내세웠던 것을 실천을 잘해 주고 실천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요.

사회자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평범, 간단함, 든든함, 친숙함, 권위적인 느낌이나 상징적인, 열린문, 깨끗함, 국익추구, 강하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편안한 느낌, 국가의 신장)

- 정충원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요. 청와대에서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나 마음을 든든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요.
- 구정현 일단 상징이니까 간결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사람들이 청와대를 느끼기에 벽이 가로 막혀있는 듯한 것이니까 친숙하게요.
- 전홍국 청와대라는 것이 강해 보이고 묵직해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권위적이지 않는 쪽으로 편안한 느낌이에요. 청와대 대한민국이 써 있지 않아도 알 수 있게요. 고등학생들이 청와대 대한민국이 안 써 있으면 저게 청와대라고 알수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써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상징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영민 깨끗하고 국익추구로서 할 수 있게요. 국익추구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하라고 하면 짝소리 없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보니까 국가 힘도 약하고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경제추구라고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 조현철 국가의 신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 지도자라는 것어요. 지금은 그런 강렬함이 없어요.
- 서봉진 열린문요. 뉴스를 보니까 청남대 별장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청와대 문을 열어놔면요.
- 사회자** **마크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요?**
- 서봉진 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문이 열려 있는 형식으로요.
- 김중환 권위적과 합리적으로 했는데 국가가 힘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가장 높은 분이 계시는 곳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개방은 반대거든요. 그런 곳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느낌만 주면요. 우리가 대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권위적인 느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로고도 간결하게 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요. 지금은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재완 이것도 청와대 청색이고 기와집인 것 같은데 지금은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저희나라는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기와집 하면 잘사는 것 같고 짚도 너무 웅장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문장도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의미도 집이 멋이 있다 뿐이지 특별히 없어요.
- 사회자** **그런데 평범함의 의미는요?**
- 김재완 지금도 정치인하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 사회자** **정치인 하면 왜 거부감이 있나요?**
- 김재완 뉴스과도 잘한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많고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고 했을 때 지금 색깔이 괜찮나요?**
- 좌 중 괜찮아요.
- 사회자** **안에 초록은 어떠세요?**
- 조현철 없는 것이 낫겠지요. 없으면 허전하고요.
- 사회자** **문장이 바뀐다면 어떤 색깔로 바뀌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 조현철 태극마크를 활용하는 것이요.

- 사회자            초록색은 어떠세요?  
조현철            초록색은 빼고 태극마크를 넣고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꾼다면 전체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조현철            존경이요. 존경이라는 것이 남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나라서 하는 것이니까 마크도 그렇게 바뀌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 전홍국            신뢰감이요.
- 사회자            지금은 신뢰감이 느껴지나요?  
전홍국            그렇지는 않아요.
- 사회자            존경은요?  
정충원            아닌 것 같아요.
- 사회자            마크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기를 원하시나요?  
김재완            열심히 하는 모습이요. 껌떼기만 있는데 안에는 자고 있는 지도 모르잖아요.  
정충원            우리 집처럼 편안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 하면 국제적으로도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청와대 했을 때 용도가 청와대 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쓰여지는 문장으로 느껴지나요?  
좌 중            그렇지는 않아요.  
서봉진            국내용이요.  
조현철            국제적으로도 쓰는 것 같은데요. 마크라는 것이 원래 대표성이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만 쓴다 저기에서만 쓴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바꾼다고 했을 때 표장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를 바라시는지 적어주세요. (존귀함, 권위, 강력함, 존경과 강인함, 온화함, 자상함, 권위가 아닌 적당한 권력,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자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재완            대통령만 쓸 수 있으니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적인데 그 사람이 마크를 쓰면 누구든지 이 사람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요.
- 사회자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요?  
김재완            특별히 이것보다 획기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종한            존귀함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 그 만큼 아무데나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은 부분에서 쓰이는 것이니까 존귀함이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이 좋아요.  
김종한            권위. 청와대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봤고 대통령이니까 권위요. 지금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이미지 때문에 계속 그런 건데요.  
조현철            강력함. 여기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원수이고 외국에서도 만만하게

못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깝기는 하겠지만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 있게 그런 이미지로 꾸밀 수 있는거요.

- 사회자**                   **봉황은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제안 점은요?**  
 조현철                   독수리나 맹독류가 아니라 봉황을 보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보일 수 있는 용이나 해태 같은 것도 해태라는 것이 악인들을 해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악인을 막아준다는 것으로 해서 해태나 용같은 강한 동물로요.
- 이영민                    대통령이 되면 남보다는 존경스러움 같은 것이 느껴지게요.
- 사회자**                   **마음에 안든다고 하셨는데 이유는요?**  
 이영민                    보기에는 이쁜데 그런 존경은 안든다는 거지요.
- 사회자**                   **제안은요?**  
 이영민                    해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 전홍국                    강인함어요. 저는 괜찮거든요. 사용자체를 절제해서 써야 될 때에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구정현                    완화함과 자상함어요.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너무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니까요. 유연함과 온화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충원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니까 대통령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나라의 방향을 대통령이 따라서 수렴을 해야지 자기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르면 좋은 나라가 아닐 것 같아요.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요.
- 사회자**                   **표장을 바꾼다고 했을 때 색깔은요?**  
 서봉진                    금색이지요.
- 전홍국                    하얀 바탕에 검정색이요.
- 이영민                    그대로 좋아요.
- 조현철                    지름길은 금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색깔은 괜찮은데요.
- 사회자**                   **흰 바탕에 금색이 좋다 하시는 분? 7명.**  
                               - 흰바탕에 검정이 좋다 하시는 분? 1명.
- 전홍국                    붉은색이요. 강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 김재완                    그러면 기분이 나빠보일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에 대해서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들었으면 하는 느낌은요?**  
 좌 중                    존경, 믿음. 사랑, 성심, 한합.
- 서봉진                    대통령과 국민도 단합을 해야 되고 국민과 국민도 단합을 해야 되고. 지방과 지방끼리도 단합을 해야 되고요.
- 정충원                    국가의 원수인데 리더쉽이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과 관련해서 제안할 것이 있다면요?**

- 구정현            여기와서 대통령 표장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들게 된다거나 혹은 다음 기회에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 정충원            월드컵 때도 마크는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 사회자**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 전홍국            참여정부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백악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나타내는 것이라든지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대통령 표장을 향후에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다면요?**
- 정충원            ...
- 구정현            일단 첫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겠어요.
- 전홍국            대통령표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강인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와대 문장에서는 워낙 그런 곳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열려 있고 편안한 쪽으로 댔으면 좋겠어요.
- 이영민            다른데 표장 보다 약간은 편안하고 강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까지 있으면서 신뢰감까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조현철            바꾼다면 현재 로고나 마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정치인들한테 나오는 것이지 바꾸더라도 여태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로 바꾸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 행동까지도 해야 한다고 봐요. 단순하게 바꾼다고 이미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서봉진            최소한의 비용으로요. 저거를 알린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자기 살기도 힘든데 저거를 하나 바꾸는데 돈을 투자 하나 하면서 정부에 불신감이 들 수도 있어요.
- 김종한            바꾼다면 로고를 새로운 도안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관련 부처나 그런 일을 도안하는데 맡기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맡기는 것이 아이디어도 괜찮고 좋은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 김재완            단순하게요.
-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남자 만27~34세 직장인)

좌담회 일시 : 2003년 4월 20일 (일) 17:00시

참석자 명단 :

강영구 5	[ ]	4 이용재
신경훈 6		3 이세호
김성곤 7		2 박해성
길승재 8		1 박윤희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윤희	31세이고 성북동에 살고 영화관련 일하고 있어요.
박해성	신길동에 살고의 나이는 35세입니다.
이세호	약수동에 살고 있고 나이는 35세이고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용재	마포구에 살고 있고 김포공항 안에 근무하고 있어요.
강영구	34세이고 지하철공사 다니고 있어요.
신경훈	반포에 살고 나이는 13세이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성곤	사무원이고 제기동에 살고 있어요.
길승재	성남에 살고 있고 의료기기계통 일하고 있어요.

**★ 대통령/참여정부/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길승재	신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젊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결론에 비치는 것은 저희 생각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지역적으로 따지다보면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민주당 쪽에 대한지지도 있었구요.

이용재 젊다는 이미지가 최근 들어서 집권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 시점에서 분석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 언론들에 대해서 느끼기에는 언론이 없는 소리는 안 할 것 같고 나름대로 평론도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민중들한테는 언론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이 내뱉는 말들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 좋은 느낌이에요?

이용재 언론에서 극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강영구 노무현대통령이 후보 나올 때부터 권위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 서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졌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계속 행보들이 전에 대통령들보다는 파격적인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전에도 지지했지만 지금도 지지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요.

신경훈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TV나 연설하시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김성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88년도에 청문회 나오고 할 때는 개혁적인 인사라는 느낌을 강했었고 그런 것이 기존 기득권 세력에 대한 ... 느낌이 초기에는 들었어요. 굉장히 파격하다는 이미지가 훨씬 강했지만 좀 지나오면서 노무현대통령 자신에 대한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바꾸어준다는 386 세대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서 지지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김성곤 기존의 어떤 정치세력과는 달리 386이라는 기존세대의... 노무현을 지지하는 386세대는 안정적인 중산층이라는 입장에 강하고 지역적인 면을 떠나서 때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

박윤희 정치에 대해서 무내한이에요.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나오면서 젊은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쪽에 일하는데 영화 관련된 분도 노사모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미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전 대통령들이나 지금 노무현대통령이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같습니다. 한 나라의 기둥으로 일 해 나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이미지가 잘 해나가야 하는데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노무현대통령도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임무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인물이 장관들을 임명했는데 문화부장관은....나왔고요. 만약에 노무현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혼자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좋은 사람들을 끄집어 내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말로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하고 개혁적이고 혁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너무 독단적이지 않나 싶어요. 기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좌 중을 압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노무현씨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세호 나타나는 이미지도 있고 그전의 대통령들과는 다르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혁적인 옛날의 그런 것을 떠나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청와대는 별들만 있느냐 옛날에는 장군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데모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의 동료들이 입문한사람들이...제가 듣고 흘린 이야기였지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맞는 이야기인지 검증은 안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쪽이나 신경을 쓰는 것

-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신경을 못써서 그런지 몰라도 더 부작용을 일으켜서 부동산도 값이 더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해성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젊다 서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 이세호                    형님 같다.
- 신경훈                    감동적인 눈물 흘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정에 약한 사람이다.
- 이용재                    스타다.
- 길승재                    노무현은 젊다. 60대, 70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50대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30대들인데 40대, 50대를 만나서 대화할 때는 틀린면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젊은 대통령.
- 강영구                    우리나라의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이 삶을 개척해 오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일 위라고 치니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면서 험난한 삶을 살아온 측면에서는 자수성가다.
- 김성곤                    실용주의다. 한마디로 돌파를 잘한 것 같아요.
- 박해성                    단단하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밑바닥에서 커왔기 때문이에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30대는 어디에서부터 달라지나요?**
- 박윤호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 이용재                    50되신 분이나 이상 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은 경기가 안 풀리고 하다보니까 실망감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 길승재                    빨간색이요. 붉은 악마요. 과거에는 빨간색 하면 공산주의라고 많이 했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빨간색을 많이 쓰면서 그게 자기 표현할 줄 아는 빨간색으로 받은 것 같아요. 노무현대통령 하면 빨간색이요. 젊은 세대들이 옛날에는 빨간색을 잘 안 입었지만요.
- 이용재                    빨간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 박해성                    컴퓨터세계요.
- 이세호                    초록색이요. 청남대인가 잔디밭처럼 항상 자연스럽다는 느낌에서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라는 느낌과 노무현대통령의 느낌과 같다고 보시나요?**
- 이용재                    기존의 정권보다는 벽 자체가 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려다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참여정부라는 자체가 설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 김성곤                    우리의 참여를 해서 계속 탄생되어 지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잘 말을 한 것 같아요.
- 사회자**                    **참여정부에 참여하던 사람도 본인이 참여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 박윤호                    그거는 아니에요.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됐는데 아직 까지도 정치라고

그러면 서민들이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국민들이 한 덩어리인데 실질적으로 뭐를 할 것인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뭐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후회를 하고요. 그들도 우리들의 대표겠지만 솔직히 뭐를 정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없거든요. 교육, 정치, 경제니 뭐 얼마 전에는 교육부장관인가 해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분이 한달 사이에 두 개를 터트렸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부동산경제를 누가 움직이는 것이며 정치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각 장관들이 알아서 다 해라 하면 좋지요. 좋은데 과연 우리들이 나부터 시작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뉴스나 신문을 보는 것은 있겠지만 과연 뭐를 정말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세호** 이미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토론문화도 많이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 개인적인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를 생각해 보거든요. 투표할 때도 타의 반, 자의 반 투표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질문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대답을 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체를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등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자** **참여정부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이세호** 토론문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집은 경상도이고 처가 집은 전라도인데 전라도 쪽에서는 다 밀어줬는데 지금은 전라도 쪽에서 불만이 많은데 왜 안해 주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로서로 바라고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요.

**사회자** **참여정부의 색깔은요?**

**이용재** 투명한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는 조금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말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김성곤** 아직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아직 까지 색깔을 과거에는 색깔을 많이 탈피하거나 새로운 색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아직까지는 미흡하거나 노력 중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 **어떤 색깔이었으면 하시나요?**

**김성곤** 개혁적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박윤호**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기존의 어떤 것을 갖고 가지 말고 맑고 밝고 파랗게요. 깨끗하게요.

**박해성** 색깔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자동차로 표현하는 색깔처럼 어떤 색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영구** 떠오르는 색깔은 노란색인데요. 출마를 했을 때 노사모나 노란색으로 해서요. 제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좋고 역동적인 색깔을 봤을 때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신경훈** 개인적으로 참여정부가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강인하고 어떤 일을 눈치를 안보고 추진하려면 사람이 하얀색은 머리도 검게 짧게 염색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도 눈치 보지 말고 검게 보호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청와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길승재** 권위.

**이용재** 범접하기 힘들고 신성시되어 왔던 것이요.

- 김승재 주위에 대통령의 산책로라든지 우리가 언제부터 개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개방을 했었고 걸로 보기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이사이 숨어서 군인들이 보고했는데 일반 국민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았지요.
- 신경훈 낙하산이요. 5급, 3급, 4급이 80% 이상이 낙하산으로 임기 끝나고 가게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청와대 하면 깨끗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낙하산 타고 내려왔거나 줄이 바뀌어지면 짤려 나가고 줄이 있으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 사회자** **좋은 느낌이세요?**
- 김성곤 청와대 박정희대통령할 때 일본식이라고 들었어요. 청와대 전체가요. 그런 것으로 보면 바뀌어야할 대상 인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하면 색깔은요?**
- 좌 중 파란색.
- 사회자**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진을 포함하는 청와대 인력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이세호 어쨌거나 민주당 쪽이잖아요. 야인시대를 보면서 진짜 정책에 있어서 ...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갔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한테 육언어 먹는다고 하지만 이왕에 육언어먹을 것 같으면 육을 많이 얻어먹으나 똑 같으니까 주위에 누구를 선거 때 잘해줬으니까 떡고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예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추진하는 쪽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 강영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를 새로 시작할 때는 주변 자기 코드가 맞다는 식으로 말이나 오는데 자기 생각이나 사고를 이해할 수 있고 추진해 나가는데 좀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저도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하지는 않고 정권초기니까 지금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전 정권도 그랬지만 자신들로 인해서 너무 주변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참여정부해서 이 정권이 5년동안 나가는 방향에서 많은 주위 다양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인력은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약간은 덜 다양하다는 것인가요?**
- 강영구 옛날에 제야에서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로 80, 90%는 채용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 사회자** **TV나 보면 비서진들을 인력을 보면 느낌은요?**
- 김성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단어가 이미지 지어질 수 있는 단어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정권을 잡고 정치적인 집단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폐쇄적이지만... 어차피 더 오픈을 시켜버리고 자기가...부동산을 이리이러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있게 해야지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지 더 쉬쉬하면 더 의심만 할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상징물은요?**
- 박해성 봉황
- 이용재 봉황. 국화인 무궁화.
- 김성곤 그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 박해성	<b>정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는요?</b> 무궁화요.
사회자 박해성	<b>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상징물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b> 호랑이.
이용재	태극마크요. 최근 들어서 한반도기처럼 한반도 지도, 호랑이도 있고요.
사회자 박윤호	<b>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요?</b> 남대문 같은 거요. 동대문인가 그게 일본에 있어서 관광코스고 있고 문화 쪽으로는 난타.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사회자 이용재	<b>공함은 그런 것이 없나요?</b> 기억나는 것이 없네요.
사회자 박윤호	<b>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면요?</b> 삼팔선. 분단의 개념으로요. 북핵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북핵이요. 우리나라를 통털어서요.
신경훈	삼팔선 철조망.
사회자 신경훈	<b>무궁화는 어떠세요?</b> 무궁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만의 것이잖아요.
이세호	꽃은 약한 것이 무궁화 축제 그런 것은 없잖아요. 벚꽃축제는 있는데요. 그래서 실망스럽거든요. 무궁화 자체는 별래가 많아서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았고 무궁화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 입지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미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관공서 쪽이나 그런데만 무궁화가 보이지 길거리에는 벚꽃을 심어놨지요.
박윤호	20년전만 해도 무궁화의 인식 강했거든요. 그때는 애국가도 매일 불러야 됐지만 점점 갈수록 그 개념 자체가 쇠뇌가 안되니까 별로예요. 국화는 무궁화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억지로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화이기 때문에 국기이기 때문이에요.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 이세호	<b>태극은 어떠세요?</b> 태극으로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졌느니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제국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길승재	색깔까지도 빨랑 팔랑해서 그렇고요.
사회자 박윤호	<b>태극문양은 어떠세요?</b> 그거는 요즘에 많이 월드컵 때문에 두드러졌다고 생각해요. 월드컵이 굉장히 크게 한번 했지요.
이용재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은 그런 것을 보면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태극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한민족이든 대한민국이든요.
김성곤	특별하게 중국에서는 태극을 보면서 “너네가 아니야 우리거”라고 하면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무궁화도 솔직히 외국 나가서 무궁화거리가 실제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한나라가 다 무궁화인데 진짜 이뻐는데 우리나라는 못 봤거든요. 원산지가 이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벚꽃은 일본벚꽃인데 원산지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식으로 보면 애매보호한데 어차피 많이 알려졌다는 관점을 볼 때는 무궁화보다는 태극이 적당할 것 같아요.

길승재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와 다른 것이 있잖아요. 한복이요. 한복은 일본이나 중국은 비슷하다고 해도 맵시나 모든 것이 다르니까 남북한같이 공용으로 하더라도 한복은 대표적인 것 같아요.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청와대 문장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박해성            청와대 그림요.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보여 주고

사회자            보셨나요?

좌 중            예.

박해성            청와대 홈페이지에 로고처럼 나와있어요.

박윤호            어디에서 봤는지 몰라도 본 것 같아요.

사회자            이 문장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시나요?

박해성            로고처럼 쓰이는 것 같은데요. 로고처럼 홈페이지 상단에 붙인다고요.

길승재            청와대에 직원이라고 뺏지요.

김성곤            기념타올에 새기던지요.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보시고 처음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 마음에 든다하시는 분? 없음.
-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시는 분? 3명.
- 보통이다하시는 분? 5명.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용재            특색은 없잖아요. 굳이 나쁜 점을 찾자면 꼬집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환점을 찾을 수 없지만 좋다고 할 수 없는 여지가 청와대에다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고 청와대니까 과란색을 썼고 뒤에 인왕산에다가 우리나라 건물에다가 단순하게 형성화시킨 점과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것을 위해서 단순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상화가 단순한 것 같아요.

길승재            갑자기 생각이든 건데 청와대 문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권위적인 것 같아요.

사회자            문장 자체 권위적으로 보이시나요?

길승재            예.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의미가 별로 안 좋잖아요. 청와대라는 집으로 해서 문장으로 해서 하고 다니는 것은 안 좋잖아요.

박해성            짐감적으로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강영구            사용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건물이 대궐에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거리감이 건물을 봤을 때 느껴지는데 굳이 건물로 해서 그게 좀 걸려요.

- 이세호 저도 청와대 그러면 반 기와집이 생각나서 그랬지만 모르겠지만 굳이 표현을 저렇게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홍보차 하기는 하는데 청와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계시는 것도 있는 표현을 저렇게 밖에 못하는지 회사업체들이 하는 로고로 청와대도 한 회사로 보고 다른데도 알리게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표지도 들어가는데 나라마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궁화라든지 태극마크라든지 꼭 기와집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분? 7명.**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분? 1명.
- 사회자**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는 이유는요?**  
신경훈 보기에 따라서인데 지금 까지 봐 왔고 그건지 알고 있었는데 굳이 바꾸어 가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요. 바꾼다면 뭐로 바꿀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관공서나 경찰서가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로고를 호들리로 바꾸면서 친절한 이미지로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한다고 해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없거든요. 굳이 바꾼다고 해서 청와대 이미지가 좋아지고 안 바꾼다고 해서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이용재 처음부터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용한지 얼마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거니까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쪽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약간 디자인 쪽으로 해서 좀더 쉽게 다가가거나 김영삼정부 때 만들었으면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더 기억하기 쉽고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 이세호 기업체 로고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나 외국 옛날에 기와집의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특화 시킨다면 많이 바꾸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요 상태에서 조금만 변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양쪽에 집을 빼 버리고 기와집 한채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간단하게 간결하게 선 몇 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는 그리기도 힘들잖아요. 초등학교생들이 중학생들이나 미술시간에 청와대를 그려봐라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집으로 간결하게 선 몇 개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모 두 잘모름.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보여 주고.**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보신적이 있나요?**  
이용재 공식석상이라든지 매체에 비춰지는 곳이에요.
- 강영구 대통령직무실이에요.
- 박해성 옛날에는 대통령 명함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명함에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윤호 대통령이 나누어주는 시계에요.
- 김성곤 표창장을 받을 때요. 국민교육현장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이승만대통령 때부터 봉황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대통령표장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마음에 든다하시는 분? 7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1명.

- 사회자**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의 의견은요?**  
 신경훈                   한나라의 최고 실력자이고 최고인데 그래도 그 정도 예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봉황 두마리가 가운데에 무궁화가 대통령 마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호를 받고 예우를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통령이면 선전할 수 있는 정확한 로고인 것 같습니다.
- 박윤호                   몇지네요. 오래 됐는데도 요즘에는 심플한 것이 유행인데다 소복 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이세호                   봉황은 상징적인 샌데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요.
- 사회자**                   **마음에 안드는 점은요?**  
 김성곤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표자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님이라고 임금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대도 너무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풀어줄 것이다, 애정 표현이라고 그런 것이 너무 박혀 있어서 어차피 저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가 없다면 표상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깔려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자**                   **옛날 냄새가 나는 것 같으세요?**  
 김성곤                   과거 임금적인 냄새가 나요.
- 이용재                   옛날에는 용에 많이 비유를 했지요. 용도 상징하는 동물로서 최고로 따지듯이 봉황도 최고로 따지는데 대통령 개인한테 쓰여지는 것보다는 일국의 원수자리 자체에 표현되는 것으로 극찬의 표현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외국의 문장이나 표장을 보신 것은 있나요?**  
 이세호                   표상은 못 봤는데 중국이 황제자리 저도 천안문을 들어가 봤는데 황제의 직무실 앞에 보면 용이 9마리가 대리석 같은 돌로 해서 용을 9마리를 그려놨거든요. 중국을 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성곤                   TV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흰머리...그거는 대통령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용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을 위한 로고나 상징은 없는 것 같고 국민이 뽑은 정부에 대한 상징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는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의 로고는 잘못 본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떠세요?**  
 - 바꾸는 것이 좋다하시는 분? 2명.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하시는 분? 4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2명.
- 사회자**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는 이유는요?**  
 박윤호                   권위 있다고 느껴지는 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이 권위의 상징이 될 것이라든지 그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권위다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전부터 그랬고 자기들의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하려는 그런 모습은 봤지만 권위라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일종의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표장은 마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노무현 마크가 아니고 대통령마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크도 마음에 들고요.
- 강영구                   봉황이 상상속의 새인데 괜찮은 것 같고 외국 쪽에 뭔가 알릴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많이 했으면 기존 문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 길승재           저는 대통령상을 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바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것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 사회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 김성곤           저거를 쓰는 용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저거를 대통령의 개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를 만들어 주는 어떤 다른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다 싶고 대통령마크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 이세호           노무현대통령하고 저 마크하고 매치를 시키니까 노무현대통령은 격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대통령 장이라면 저거를 없앨 것 같고 안 쓰겠다고 할 것 같아요.
- 사회자**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찬성하시는 분? 2명.
- 이세호           좋거든요.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이미지로 보면 없앨 것 같다는 거예요. 없앤다면 반대예요. 일단 노무현이라는 사람 하나로 보면 지금 제가 생각으로 봐서는 그런데 꼭 그사람이 혼자 대통령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징물인 차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없앨 것 같아요.
- 길승재           표장이 상장이잖아요. 상장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노무현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고 대통령표창이니까 전체적인 상장을 봤을 때 저 문양이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미국의 독수리를 보면 어떠세요?**
- 김성곤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통일됐다는 느낌이에요. 저거를 보면 미국이라는 과격한 경찰국가로서 힘을 가졌다는 이미지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용을 볼 때는 어떠세요?**
- 이세호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없는 것이고 오직 황제거든요.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너무 권위적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니까 그 중에서도 9마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고 용이라는 것은 황제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용을 섬기고 황제가 용을 그렇게 하라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이 권위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 사회자**           **앞으로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윤희           경제안정이지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치도 중요하지만 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 이세호           작년에 양파를 다 버렸거든요. 밭에서요. 그런데 올해는 양파가 얼마 안나서 외국에서

수입해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양파는 거의 없고 그거도 한, 두해 해온 것도 아닌데 아직 까지 그것도 그런데 부동산 쪽도 보면 가격을 막겠다고 했는데 대안을 해놓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그럼으로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수요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다른데에서 해놓고 광범위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재건축 용적율을 낮춘다고 해야 하는데 규제부터 하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당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길승재** 김대중정부 때 교육부장관이 5년 동안 바뀌었고 장관이 자주 바뀌었는데 이번 노무현정부 때는 잘하던 못하던 장관을 시켰으면 최소 국민들이 교육부장관은 누구, 외무부장관은 누구 할 정도로 5년 임기면 여론이 안 좋고 그러면 한번만 더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2년 6개월은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40일 정도 장관했다가 갑자기 여론에서 뭐라고 하면 바뀌면 국민들의 혼란스럽거든요.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믿고 같이 대통령과 토론해서 자기가 있는 임기동안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음 대통령 때는 대통령 후보할 때는 밑에 나는 대통령되면 장관을 누구를 시킨다고 써서 그것까지 보고 대통령을 뽑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장영구**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혔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삶의 질 문제가 상당히 격차가 커지거든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에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능력껏 돈을 벌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서 격차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박해성** 북한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긴장이 고조되면 국가적으로 안 좋으니까 계속 김대중정권을 이어받아서 화해 분위기 평화분위기로 신경 써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꾼다면 바꾸는 문장에 포함됐으면 하는 의미도 있다면 어떤 것 인지 적어주세요.

**사회자** 어떻게 하셨나요?

**박윤호** 컨셉 자체는 푸른기와집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컨셉은 어차피 이름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컨셉은 괜찮은데 느낌 자체가 그림은 심플하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마크 있지요. 해가 있고 산이 있고 그거는 그 디자인을 보고 “야-이거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은 물도 안 맑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직설적인 1차원적인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푸른기와집이라는 컨셉에 상징성을 가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했어요.

**사회자** 의미는요?

**박윤호** 청와대요. 표장은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는 청와대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데 표현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길승재** 노무현대통령이 정부청사를 청남대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는 곳인데 대통령이 사는 곳을 청남권으로 옮긴다면 똑같이 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청와대는 현재 살고 있는 문장인데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다른 건물로 지어서 백색으로 지었다면 백악관 식으로 지었을 때는 문장을 바꾸어야되고 제가 알기로는 문장을 바꿀 때마다 그게 다시 찍어야 하는 것은 몇 백억이 든다고 했어요. 예전에 중앙병원이 아산병원으로 바뀌면서 그게 몇 백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평생을 쓸 수 없는 문장인 것 같거든요. 청와대를 대표할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양인 것 뿐이지요. 청와대 문장 그러는데 대한민국 문장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국인도 알 수 있고요. 청와대가 뭐 하는 곳인지 외국인도 알 수 있게요.

- 강영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꾸고 그런 측면에서 봤다면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니까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양을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해서 넣으면 좋겠어요.
- 이세호 심플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청와대라는 말을 꼭 적어서 청와대라고 하는 것보다 청와대라는 말을 빼고도 청와대라는 로고를 모든 사람한테 청와대 마크구나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제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태극모양에 청와대모양을 넣어서 청와대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안에 청와대라는 표현을 했으면 싶은 생각고 했고 또한 가지는 동그란 원형에다가 원안에 바탕색은 파란색을 해서 한반도의 파란색을 넣고 청와대는 검정색이나 기와집 전통집 청와대 집 표현을 간결하게 선으로 집을 해서 했으면 모양은 이상한테 디자인 잘 하면 이쁘게 나올 수 있고 간결하게요.
- 사회자 의미나 개념쪽은 어떠세요?**
- 김성곤 청와대 문양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저거는 일본식 기와집이고 우리나라식 집도 아니고 저는 디자인 면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것은 똑같이 그런 것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면 좋겠고 의미는 사람이 담겨있으면 좋겠어요. 국가기관이고 대통령을 뽑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집합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고 예쁘게 하는 의미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색깔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 색이 흰색이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으니까 색깔은 무지개 색으로요. 촌스러울 것 같지만 잘하면 이쁘거든요. 그런 의미로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세요?**
- 사회자 어떻게 하셨나요?**
- 신경훈 굳이 바꾸어야 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 바꾼다면 내국에서 쓰는 용도하고 외국에 쓰는 용도로 두 가지로 나누어도 괜찮은 것 같고요.
- 이용재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길승재 저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IMF 겪었을 때 금모으기도 했는데 대통령표장이라도 금박이 비싸잖아요. 권위나 그런 것에서 참여정부가 서민위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것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상장 하나 만들어도 싸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금박이로 된 것을 은박으로 바꿀 수 있게요. 그래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은 뿌듯함은 있으니까요.
- 이세호 개인적인 생각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봐주는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거는 간결하게 해서 봉황을 간결하게 하면 상징적인 거요. 상징적인 것은 우러러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성곤 저는 없어야 한다고 썼는데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에 대해서 색깔은 어떠세요?**
- 이용재 금박이 제일 어울려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대통령 표장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 이용재 대통령표장은 역사 속에 묻히는 의미가 그다지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를 뒤야 한다 말아야 한다기 전에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청와대 문장도 일개 관청이고 거주하는 독립체제로서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로서 부각을 시키면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세호 대통령표장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 청와대 문장은 일단 대통령이 사시는데고 일단 저는

간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하고 친숙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고 간결하게 하면서 친숙한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성 표장은 그대로 괜찮아요.

박윤호 표장이나 청와대 문장은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권위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 바뀌는 한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표장은 청와대 문장보다 훨씬 오래 됐는데도 대다수가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정말 심여를 기울여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면 주어진 의미가 반감하고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바뀐다면 계속 이어가는 동안 함께 갈 수 있는 문장이었으면 좋겠어요. 표장은 괜찮고요.

길승재 미래의 대통령들도 청와대 문장을 계속 보존하려면 청와대에서 사셔야 되는데 힘들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다른 집을 지었을 때 로고가 바뀌어야 되고요. 글씨는 들어가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예요. 한복이라든지 가끔 자주 보이는 하다못해 탈쓴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적인 모습으로 뒤야지 현재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거에 대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회자 **색깔은요?**

길승재 색깔은 그냥 현정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했을 때 우리나라를 백의민족이라고 하니까 백색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 대통령 표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대통령표장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나라가 없었고 있는 나라는 영화에서 아프리카의 흑인족장 같은 개념이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청와대 문장은 청와대기와집 자체도 일본식 양식이었고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고 그것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다양하게요.

신경훈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청와대 문장에 양옆에 집이 있잖아요. 집을 없애고 가운데만 놔두고 옆에다가 사람의 팔을 벌린다든지 사람이 양손에 있다던지 같이 참여한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은 파란색으로요.

강영구 청와대문장은 참여정부에 걸맞게 바뀌고 대통령 표장도 봉황색깔이 금색보다는 하늘색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운데 무궁화가 있지만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지도를 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의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고 색깔은 파란색이 떠오르네요. 활기차고 괜찮네요. 금색은 별로이고 크기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늘색이면 좋겠어요.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남자 만35~42세 직장인/자영업)

좌담회 일시 : 2003년 4월 20일 (일) 11:00시

참석자 명단 :

설원규 5		4 김선구
백현규 6		3 길태구
김대현 7		2 김성빈
윤기성 8		1 안재준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재준	강동구 둔촌동에 살고 있고 한국전력에 근무하고 있어요.
김성빈	용산구에 살고 있고 풍납동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길태구	일반직장에서 영업하고 있어요.
김선구	잠실에 살고 있고 덕소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설원규	나이는 38세이고 마포구에 살고 있고 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백현규	41세이고 영등포구에 살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김대현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고 나이는 40세이고 의류제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윤기성	강서구에서 살고 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백현규	청문회요. 청문회의 스타니까 떠오르는 것이 노무현 하면 그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사람이 대중한테 가장 알려졌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사회자	그때 느낌은 어떠세요?
백현규	정곡을 찌른다고 할까 날카롭다는 것은 아닌데 예리한 것 같아요.

- 안재준 개혁가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변질이 된 것 같아요.
- 사회자** 어떤 식으로 변질된 것 같으세요?
- 안재준 옛날 같으면 개혁가 변호사할 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 윤기성 서민을 대표한다고 부상을 했는데 지금은 서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대현 이야기를 잘하고 논리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 설원규 투박하고 저돌적이다.
- 김선구 전에는 인권변호사라고 제야의 이미지가 강해 던 것 같고 현재는 불과 몇 달하지 않아서 이미지를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에 제야인권 변호사해서 이상을 쫓지 않았나 싶은데 막상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직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이상이나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존 해 있는 문제들의 옛날에 순수하게 이상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어느 정도 안주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 길태구 하고자 하는 열의라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맞아 가는 것 같은 노무현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현실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처음과 지금은 변질되지 않았나 싶어요.
- 사회자** 어쩔 수 없이 바뀐 건가요?
- 윤기성 환경에 의해서 바뀐거지요. 세계적인 정치흐름 하고요.
- 안재준 사람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 김선구 아까는 개혁적이다, 제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노무현이라는 자신이 국제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개혁적인 방향에서만 테두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시야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개인이 바뀐 것 같아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 안재준 투박하다.
- 윤기성 즉흥적이다.
- 백현구 실물론자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요. 사장에 있을 때 실무적으로 밑에까지 챙기고 그런 사장이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 김대현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김선구 서민적이다.
- 길태구 서민적이다.
- 김성빈 제 2정치하는 분들이 거짓말쟁이고 대통령도 당선 전에 3김 청산하면서 나중에 김영삼씨 찾아가서 부산 쪽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누구나 정치를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고 노대통령 지나 온 몇 개월 과정을 봤을 때 너무 강성을 위시한 것 같고 자리 보존하려는 것이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는데 고통이 있었고 시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짜르고 맥락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독선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 안재준                    회색이요. 이유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요구 못할 것이 없잖아요.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옛날에는 민족주의사관인 것 같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수정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노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회색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요근래 진행되는 일이 바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 윤기성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혼합된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보면 권모술수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요. 그게 부끄러운 정치지요.
- 사회자**                    **빨강색은 어떤 의미예요?**
- 윤기성                    빨강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같이 대치하잖아요.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노무현대통령 이미지는 선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대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대통령이 앞서 나간다는 것이고 파랑은 다자로서 미국이 철수가 되면 미국에 당분간 우리나라가 힘을 빌려야지요. 자주독립을 할 때까지요.
- 김선구                    흰색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한지 두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분의 정치스타일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노무현대통령이 걸어온 길이 순수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존의 정치인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게요. 처음에 김대중씨나 김영삼씨는 보스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분은 보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알게 모르게 부정부패나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무현대통령은 그런 것은 없이 순수하게 자기 회생을 해가면서 살아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이미지 또 서민적인 이미지가 흰색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요.
- 백현구                    저도 흰색 쪽인데 노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고집이 썩고 흑백논리도 있고 도 아니면 모다 그런 것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흰색 쪽 아니면 꼭 흑백으로 따진다만 회색 쪽인데 그것보다는 저도 흰색 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 김대현                    처음에는 푸른색깔이었는데 점점 검정 쪽으로 가까이 간다. 점점 퇴색 해가고 그쪽에 몰드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검정색이 안 좋은건가요?**
- 김대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색깔이 점점 까메지듯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다는 이미지가 안 좋지요.
- 김성빈                    저도 검정색을 생각하는데 검정색이라는 자체가 흡수를 할 수 있는 색이거든요. 저는 검정색에서 약간색이 바래 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았었다가 대선 때도 3김 이런 생각이 없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역시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니까 약간씩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검정색에서 약간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퇴색 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검정색 자체가 모든 색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길태구                    주변의 여건이 색깔이 조금 구리구리한 색깔이 있다 보니까 그 색깔이 흥화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노무현씨는 제약의 활동할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켜봤거든요. 변호사 할 때부터요. 그런데 자기 혼자의 색깔이 너무 분명해요. 정치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안 좋은면을 봐 오니까 자기 색깔에 못 맞추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노무현대통령은 몸을 보스에 맞춰야 될지 보스를 몸에 맞춰야

될지 그런 노무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회자**                   **색깔이 바뀌면 주관이 없는 건가요?**

길태구                   자기 색깔이 바뀌면 주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회자**                   **하나만 고르신다면요?**

길태구                   흰색이요.

설원규                   저도 빨강색을 말하고 싶어요. 빨강색이 확실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색깔이 선명한데 어디인지 모르게 안 좋은 느낌, 빨강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느낌이 빨강색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 하면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으세요?**

- 비슷하다하시는 분? 3명.

설원규                   의도적인 서민이나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느낌은 들기는 하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자기 주관이나 특색으로 해보려고 서민정치를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억지로 꽤 맞추려고 참여를 시킨 거지요.

백현구                   참여정부라는 것이 의도가 깔려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꼭 국민하고 청와대하고 접촉이 됐다고 해서 참여라고 생각을 안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이 하부조직에다가 자기가 자기 의사전달을 했을 때에는 하부조직하고 국민하고 가장 가까운 조직인데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게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참여 정부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선구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대통령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취임식에서 서민들 일반 보통사람들을 상당부분 초청을 해서 했다는 자체도 이제 까지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그게 물론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청와대 개방이나 청남대 개방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변해 가면서 국민들이 조금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대현                   말만 참여이고 거의 과거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거의 자기 참모진이 거기만 바뀐거지 김대중대통령의 참모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참모진으로만 바뀐거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대통령과 참여정부와는 안 맞나요?**

김대현                   의지만 있는 것이지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윤기성                   참여인데 기존 386세대만 참여하는 것 같지 기존에는 거의 참여 안 했잖아요.

김성빈                   대통령 간담회를 할 때는 경호도 있겠지만 진정한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질문거리를 던져주지 말고 개개인의 소리를 깊게 듣고자 하시면 그런 것이 없이 공개토론회를 하려고 해야지요. 지금은 형식상으로 질문거리 주고 해서 공개토론 하는 것이 무슨 공개토론이예요. 확실하게 참여정부라고 내세울 수 있으려면 질문거리를 주지 말고 초대된 사람들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좋다는 것이요.

안재준                   간단하게 세 개를 생각하면 개혁과 참여정부와 연관이 되거든요. 개혁은 45일에서 90일 안에 개혁이 안되면 개혁이 끝났다고 하는데 요근래 참여정부라는 것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자가 있다면 괜찮은데 없을 뿐더러 한 두가지 좋은 측면에서 보면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래도 경험이 있는 50대사람 들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봐요. 모든 것이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사부제도 라는 것이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10%나 5%도 알아야 하는데 확실히 안되어 있고 국민이 알기로는 언론 제시하기 보다는 자기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뉴스나 신문인데 요근래 신문은 최근에 신문은 청와대 기자실을 폐쇄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뭔가 언론은 사부라고 하는데 언론이 하나의 부인데 언론이 힘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실책이 아니냐 해서 참여정부가 아니다 생각해요.

사회자  
안재준

**노무현대통령이랑 안 어울리나요?**  
예.

길태구

지금은 출범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참여정부인지 아닌지는 정의를 못 내리겠고 참여정부로 국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기간이 지나서 한곳 두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발언할 것이고 기존의 옛날부터 대통령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고 했을 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무현대통령께서 할 때도 보면 기존의 생각부터 바꾸고 바라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출범을 하면 참여를 서로참여를 해야 참여정부가 될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두 세달 해서는 그런 이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와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노무현대통령은 이름만 참여이지 실질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길태구

본인은 참여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변의 여건이 다른 쪽으로 몰아가는 거지요.

사회자

**참여정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대현

느낌은 좋은데 여건이 안되니까요.

안재준

참여정부는 옛날부터 정부가 내려오는 참여정부가 민주주의의 근본이잖아요.

사회자

**느낌은 좋은데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건가요?**

윤기성

예.

사회자

**참여정부의 색깔은요?**

윤기성

참여중립의 색깔은 투명한 색깔이어야 하는데 투명한 색깔은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요.

백현구

색깔을 딱 짚기는 그런데 색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느낌상으로 파란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회자

**노무현씨는 흰색이고 지금은 파란색인데요?**

백현구

아까는 개인적인 색깔이고 지금은 정부의 색깔이니까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사회자

**참여정부 쪽과 노무현대통령과 느낌이나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백현구

저는 어울린다고 봐요. 어울린다고 해서 개인으로의 색깔과 정부의 색깔과는 맞을 수 없다는 거지요.

김대현

참여정부는 투명하거나 푸른데 아직 까지 딱 그렇게 색깔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재준

참여정부에 대한 색깔은 아직 관심이 없어요.

길태구

참여정부의 색깔은 아직 모르겠어요.

김성빈

가장 온화해야 될 색깔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 느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검정색이요.

- 사회자**                    **그러면 대통령 색깔과 이미지가 맞으시는 거네요?**  
 김성빈                    예.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초대받은 것이 소시민인지 그것조차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 사회자**                    **참여정부의 이름은 잘 지은 거네요?**  
 모 두                    예.
- 사회자**                    **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김성빈                    최고의 권력자.  
 윤기성                    최고 권력.  
 백현구                    권력이라는 것이요. 청와대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요즘 20, 30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박정희시대를 많이 잘 아는 세대들은 그게 굉장히 머리 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 안재준**                    옛날에는 청와대는 서슬이서퍼던 것 같은 감정이 있는데 많이 오픈 되고 문민정부부터 많이 오픈 됐다고 하지만 심장부 아니냐 하는 권력 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김대현**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요. 좀 접근할 수 없는 데고요. 왜냐 하면 말은 접근하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 김선구**                    일단 가까이 가기 힘들다. 거기에서 불러준다고 해도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몸가짐부터 해서 신경을 엄청 써야 될 것 같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불러서 간다고 해도 전날 밤부터 몸단장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이유는요?**  
 김선구                    우리나라 역사에서부터 거기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하면 요즘에는 노무현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대통령 거치면서 대통령이 한 것이 서민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느낌은 받아오는데 그 전만해도 대통령 하면 하늘이었지 우리가 쳐다 본다는 것도 우습고 박정희대통령 때도 박정희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잡아간다는 소리도 있고 권위가 많이 있었지요.
- 길태구**                    청와대라는 단어 자체부터 친밀감이 안가고 이유는 비슷해요. 권력이요. 청와대 하면 정신만 바짝 들고 청와대라는 말만 듣고 장소만 생각하면 친밀하지 않고요.
- 백현구**                    청와대 앞길도 개방을 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청와대에서 장충동 가려면 뺑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질러가면 바로인데요. 제가 보름 전에 지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 설원규**                    청와대 하면 접근하기 힘들고 두렵다. 어렵다 싶어요. 청와대라면 나랑은 아무 연관이 없는데 청와대 하면 괜히 죄지은 것처럼 두려운 느낌이에요.
- 김선구**                    청와대 하면 안기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풍물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정부에서 사람을 잡아가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청와대 하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색깔은 어떤 것 같으세요?**  
 김대현                    원래는 푸른데 청와대느낌은 검정이에요.
- 사회자**                    **검정의 이유는요?**  
 김대현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안재준**                    청와대 하면 푸른색으로 인식이 남는데 보편적으로 푸른색에서 보는 느낌보다는

- 푸른색이지만 깊은 바다의 시퍼런색이요.
- 김선구 순수하게 푸른색으로 이미지가 청와대가 계속 갖고 있어서 저한테는 푸른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식인 것 같아요.
- 길태구 환한 파란색이 아니고 어둡고 칙칙한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밝게도 닿아요.
- 김선구 동감.
- 길태구 하늘파란색과 다르지요.
- 설원규 바닷물 속의 시퍼런 색깔이요. 두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느낌이요.
- 김성빈 마찬가지로인데요. 2, 3년전 까지도 그쪽을 통해서 구의 터널을 넘어가고 해서 성묘를 가고 했는데 그쪽으로만 들어가면 겁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일산 자유로 타고 돌아서 가는데 편안한 색깔인데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베일 속에 쌓인색 같아요. 딱히 무슨 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요.
- 백현구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좀 푸른색 계통인데 무게가 있다. 저는 칙칙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분명한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칙칙하다는 생각보다는 무게 쪽에요. 똑같은 파란색도 가벼운 파랑이 있고 무거운 파랑이 있는데 반대로 무거운 파랑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의 중심인데 아무리 참여정부가 국민하고 가깝다고 해도 적당히 무거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무겁고 있는 파랑이라고 생각해요.
- 사회자** 좋은 의미가 들어가셨네요?
- 백현구 예.
- 사회자**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인력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김선구 너무 많다. 거기다가 무슨 특보니 뭐니 임명한다고 하는데 노무현대통령이 정보를 꾸미면서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피치를 내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특보를 너무 임명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대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장관도 미국의 장관들보다 인원수도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인구나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는 비슷한 장관도 많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요.
- 김대현 기구를 많이 늘린 것 같아요.
- 윤기성 중복된 것이 많지요.
- 김대현 전에 정부도 전문화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은 정부 하면 줄여야하는데 위는 늘려놓고 아래는 줄여놓고 그런 것 같아요.
- 윤기성 비슷해요.
- 백현구 티에프티도 굉장히 많은데 저 제 생각에는 많은 것은 좋은데 피라밋 조직처럼 하는 탑라인이 많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탑라인이 많아버리니까 사람이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느낌상으로 그런 것을 가지 전반적인 축은 몇 개만 가지고 있자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리자는 것이지요. 실무 티에프티를 많이 만들어서 티에프티가 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하는 위를 단순화를 시키고 밑에를 많이 만들자는 거지요. 저도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 안재준      구성라인이 됐던 스텝이 됐던 참모가 됐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90일에 개혁을 해야 개혁이 끝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56세라고 해서 너무 젊은 사람으로 해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참모이고 장, 차관이라고 것은 라인조직인데 그 조직간의 갈등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변인이라든지 넘어야 할 선이 있고 안 넘어야 할 선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나쁜 이야기로 대통령이 쪽팔린다고 해도 처버려야 되는데 큰사건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구성보다 운영이 너무 젊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해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설원규      전문성이 많이 인맥이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전문성이 있는 하부사람을 요소요소에 하기가 힘들다, 폐기만 앞세워서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길태구      부서가 많고 조직이 거대 해 지고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작으면 작은대로 하고 많으면 많은대로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 김성빈      실제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전의 김대중대통령 때의 인원 보다 더블이 됐던 개혁이 되어서 국민이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선구      청와대 하면 일단 청와대수석이라고 하면 차관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수석 하면 원래 차관급이었던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나 이번에 신설된 정책실장도 장관급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청와대수석하면 차관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보면 정부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자부 장관이라면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저희의 느낌은 장관하고 차관하고 급이 다르게 중량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청와대수석 하면 일단 정부의 장관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행자부장관 차관이 있는데 차관보다 장관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청와대가 너무 기계 하고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 김성빈      저희군대 때는 병장이 사단장 차 끌고 있으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터치를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 안재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해 봤는데 구청에 갔던 어느 조직에 갔던 교장도 교육청에 사무관한테 가서 빌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산을 타오려고요. 그거는 라인인 스텝 참모지만 참모가 대통령 역할 하는 것도 맞아요. 우두머리는 하부조직 보다는 자기가 한참 밑의 하부조직의 장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니까 인사 그런 것이 참모의 역할이니까 참모진의 역할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문제는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요.
- 사회자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씨를 찍었다 하시는 분? 4명.**  
 - 이회창씨로서 찍었다 하시는 분? 2명.  
 - 투표 안 했다 하시는 분? 2명.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청와대를 대표할만한 상징물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안재준	무궁화꽃.
윤기성	호랑이.
설원규	오래 됐으니까 봉황이요.
백현구	봉황하고 태극이요.
김선구	무궁화.
김성빈	봉황은 권위주의 그런 쪽이기 때문에 무궁화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국화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와 닿을 것 같아요.
길태구	무궁화 봉황 태극 그 중에서도 무궁화정도.
사회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윤기성	세종대왕.
설원규	예전에는 갓 쓰고 한복입고 하니까 요즘은 월드컵 때문에 빨간색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대내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재준	백두산.
김선구	어릴 때부터 호랑이가 생각나요.
설원규	분단국가.
사회자	북한까지 포함해서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김성빈	금수강산이요.
안재준	한민족이니까요.
김대현	태극이요.
설원규	금강산. 아리랑.
백현구	무궁화.
길태구	지도.
사회자	지도가 뭐예요?
김선구	토끼요.
설원규	토끼는 일본이 그런 것 같고 호랑이 모습이 맞을 것 같아요.
사회자	청와대 문장 심볼마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좌 중	모릅니다.

- 김성빈 저번에 이희호여사가 왔었을 때 시설물 쪽이나 문마다 해서 붙였는데 동그란 거에 해서 산인가 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2년 전쯤에 병원에 이희호여사가 오셨는데 경호원들이 마크를 썼는데 그때 봤어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보여 주고**
- 사회자 보신 것 같으세요?**  
안재준 본 것 같은데요.  
설원규 본 것 같아요.  
김대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것 같아요.  
김선구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김성빈 청와대 대변인이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으세요?**  
윤기성 브리핑할 때.  
설원규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요.  
김성빈 대변인이 발표할 때 단상에 올라갈 때 거기에 마크인 것 같아요.  
김대현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아요.  
길태구 대표하는 문서나 아니면 정부를 대표하는 행사 쪽에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윤기성 관공서 행정부나 사법부에도 이런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2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4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2명.
- 설원규 글씨만 빼고 보면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그런 것이라 흡사할 것 같아요.
- 사회자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요?**  
윤기성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궐인데 서민들은 초가집에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 사회자 높은 분의 상징이라는 말씀인가요?**  
윤기성 예.
- 김성빈 저희 풍납동 아산병원이 전에 서울 중앙병원이었었는데 로고를 바꾸기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국가적인 랜드마크를 청와대의 로고를 바꾸려고 한다면 일개의 병원로고를 바꾸기를 위해서 몇 천억이 들어갔는데 국가의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마크자체가 저는 편안하게 와닿는 것 같거든요. 청와대라는 이미지를 들었을 때 보다 그 마크를 봤을 때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마크가 더 낫다고 봐요.
- 사회자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는요?**  
백현구 아까는 고궁이고 그래서 마음에 오히려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요. 화려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의 고궁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고궁이 많은데 그것이 청와대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저것을 궁이라든지 예전의 왕이 살던 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그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길태구           그런 측면도 있고 보는 첫 이미지가 왕권이고 옛날의 궁궐측면도 있고 문장 자체가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사람만 알거든요. 중국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그렇고 색깔도 눈에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면에서요.

김선구           청와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장자체가 청와대라는 건물이 완전히 중간을 꽉 잡거든요. 저렇게 했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김대현           너무 짐이 큰 것 같아요.

김선구           크다는 자체가 원을 중간에 딱 잡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회자           국민을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 이세요?**

김선구           예.

**사회자           보통인 이유는요?**

설원규           글씨나 색깔만 빼면 고궁이나 남대문인 것 같고 특별하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멋있기는 한데 구별이 안되요.

안재준           저도 그런 면이 하나있고 원형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생각에 거부감이 들고 너무 뾰족 뾰족하고 날카로운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입니다.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지 어떠세요?**

- 바꾸었으면 좋겠다하시는 분? 3명.
- 안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3명.

**사회자           바꾸었으면 하는 이유는요?**

백현구           저런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양에는 많아요. 고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른 고궁도 많아요. 그래서 상징할 수 있느냐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김선구           마음에 안 드는 이유와 똑 같은 거예요.

**사회자           안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은요?**

김성빈           백악관도 백악관 자체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굳이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있는 기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어차피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부이고 지금 이 마크 자체에서 했었을 때 청와대가 국민을 감싸 안는다는 식으로 생각이 서로 틀린거지만 어차피 랜드 마크 자체를 바꾸어도 권력의 중심부이니까 어떤 글자를 붙여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있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돈 문제도 관련이 있나요?**

김성빈           그렇지요.

윤기성           동감.

- 설원규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고 뭐를 바꾸어도 그것을 청와대라는 인식이라는 주입만 시키면  
 멋이 없건 있건 청와대를 상징한다는 주입만 시키면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것이 당면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자기 임기 안에 뭐를 하나 한다는 것 자체도 특별하게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 안재준           하나의 상징물 정도니까 굳이 생동감이 있게 호랑이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의미만 부여할 뿐이지 그런 생각이예요. 청와대 로고라고 하면 안되나요. 문장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나 싶어요.
- 길태구           문장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머리 속에 인식이 엄청 많이 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미국은 백악관은 백악관의 미국 정부구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세계인들한테 한국이라는 정부를 각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런 문장은 중국이나  
 일본도 있는 건데요.
- 김대현           돈이 많이 드니까 굳이요.
- 김성빈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 청와대문장 자체가 모든 세계인들한테 강하게 인식되요. 저희가  
 지금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가슴에 박히는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는  
 미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시가 나오고 그러면 방송을 거를 안듣는  
 편이고 그로고 자체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문제로 한국을 위한 청와대 대한민국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청와대  
 대한민국의 로고가 머리 속에 박힐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고 바꾸는 자체의  
 엄청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IMF보다 엄청힘든 시점인데 여유가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윤기성           청와대를 충청도 쪽으로 옮긴다고 불편을 했는데 굳이 옮긴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이라는 마크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
- 윤기성           무궁화.
- 설원규           무궁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보여 주고**
- 사회자**           **보신적이 있나요?**
- 못 보신 분? 없음.
-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어디 용도로 쓰는 것 같으세요?**
- 김대현           기념품 시계 같은데요.
- 윤기성           임명장. 상장
- 백현구           대통령차에 넘버요.
- 김성빈           대통령차에 번호판 대신에 그거 있고요.
- 백현구           한쪽에 태극기처럼 해서요.
- 안재준           초대방.

- 김성빈 이 취임식할 때요. 연단에 있고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 7명.**  
 설원규 마음에 안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이에요.
- 사회자** **중간이라는 이유는요?**  
 설원규 하도 몇 십년을 보니까 특별하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마음에 드는 이유는요?**  
 안재준 눈에 항상 익숙한 것 같아요.
- 윤기성 봉황새에 무궁화인데 권력자라는 것 같아요.
- 김성빈 어차피 딱 보면 최고 권력자라는 생각이날 수 있어요.
- 윤기성 최고권력자요.
- 백현구 국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적인 것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위엄을 국민들이 살려줄 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요.
- 김성빈 봉황은 우리나라에서만 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길태구 무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 김성빈 옛날 어렸을 때부터 봉황은 귀한 것으로 알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황만 봐도 20대초반 이런 사람들은 봉황을 봐도 뭐지 몰라도 저희 때는 귀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딱 보기에 힘이 실어진 것 같아요.
- 사회자**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설원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전부터 써오던 것이고 지금은 봉황이라는 의미가 지금 세대에서는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썼고요.
- 사회자** **현대적이지는 않나요?**  
 설원규 참여정부라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너무 강해 보이나요?**  
 설원규 너무 독선적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권위적인 위엄의 상징 두려움으로요. 요즘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 김선구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유는 대통령표창으로 해서 상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관심이 없어서 했는데 하나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세금을 내서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고 박정희대통령 때 만들었다면 지금쯤 21세기니까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21세기 창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 1명.**  
 - 안 바꾸었으면 하는 분? 5명.
- 사회자** **보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 길태구 너무 오래 썼고 이미지 자체가 강압적인 것 같고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 개혁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바꾸어 보는 것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의미가 있는데 김성빈씨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빼고 대통령만 쓰는 것이니까 안 바꾸어도 상관은 없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라면 안 바꾸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안 바꾸었으면 하는 이유는요?**
- 김대현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한 건지 목적을 확실히 모르니까요.
- 백현구 저는 반드시 위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래 됐다고 개혁이라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개혁은 안 좋은 것을 바꾸는 것이지 오래 됐다고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에요.
- 안재준 구조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상상의 동물이지만 무궁화 꽃하고요.
- 사회자 외국의 정부 상징물을 보신 것이 있다면 백악관의 느낌은요?**
- 김성빈 어차피 힘이 강한나라니까 대변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쪽 같이 해서 들어오는 마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느낌이 확 든 것보다 강한 나라니까 생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 사회자 마크 자체는 어떠세요?**
- 김성빈 마크 자체는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나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독수리 같은 이미지 처럼이요. 원래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요.
- 사회자 백악관이 독수리인가요?**
- 김성빈 휘장이 잡고 있는 것이 독수리인 것 같거든요. 강하니까 그런 건지 자세히 마크는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식으로요.
- 안재준 성조기도 빨간색은 독수리인데 미국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볼 때 눈에 잘 띄었던 것 같습니다.
- 김대현 백악관마크는 하얀집이잖아요. 느낌은 자기네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지요. 우리나라 청와대 처럼이요.
- 윤기성 동감.
- 설원규 그림으로 깨끗하고 신선하고요.
- 김대현 거기는 앞에서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 백현구 첨단적이예요.
- 설원규 강하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 윤기성 다른 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미국만 보여 주는 것 같아요.
- 설원규 책자에서 봤어요.
- 사회자 미국 외에 다른 곳을 보신 기억은 없나요?**
- 모 두 없음.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면에서 중심을 두어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하시나요?**
- 길태구            경제.
- 윤기성            기존의 개혁 있잖아요. 부정부패를 빨리 척결했으면 좋고 그게 기존에 있던 개혁세대들이 반대하잖아요. 빨리 개혁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지요.
- 김선구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희망사항이라면 투명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모든 면이 투명하게요. 만약에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부패가 생겼다고 해도 투명하게 국민한테 알려질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요.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못 났으면 잘못된 주체가 나와야 되고 잘못 해도 잘못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김성빈            부정부패와 경제요. 국민이 알권리를 알아야 되고 국내시장 활성화하고 실업자도 많고 개혁의지가 강하시니까 빨리 개혁을 하시고 빨리 다음 문제를 빨리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 백현구            가장 시급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경제이고 부정부패이예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IMF때보다 장사가 안된다는 말이 많고 지금도 말단 공무원한테 가도 양주바람이 있어요. 서울은 안 그런데 지방에는 아직도 그런데 많이 깨끗해 진건데도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부터 없어야 되요.
- 설원규            시급하지는 않지만 자주성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인지 국방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참 오랜만에 공감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다른 나라한테 약하게 힘없는 나라로 인식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특색이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자주성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 안재준            역으로 생각하는데 대미공조체제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나타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잖아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이 바뀐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으신지 적어주세요?**
- 사회자            **어떻게 적으셨나요?**
- 윤기성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금수강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김대현            미래지향적으로 변영이 무한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태극마크를 변형해서 기존의 국기가 아닌 그런 것이요.
- 백현구            모양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라를 대표하는 의미를 담았으면 하는데 어떤 위엄도 갖추고 있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받는데 진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위엄이 담겨있는 것이요.
- 설원규            바뀐다면 시각적으로 시원했으면 좋겠고 시각성을 가미한 예술품이나 한강을 기준으로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에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요.
- 김선구            대통령이 한 시민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나 의미는 청와대 기존의 권위적인 상징에서

국민과 같이 하는 참여정부니까 그런 모습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 무궁화 꽃이 상징이니까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나라 백두대간 모습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 기존의 문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너무나 크게 잡고 있으니까 작게 축소되어서 다른 모양이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길태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통일된 한국이요. 첨단세계 넓게 봐서요. 문양자체도 원이 아니라도 세계를 딱해서 원만 되지 않고 딱 보면 미래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도 되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부드러운 거요. 지금 그거보다 봤을 때 청와대가 있으면 하다못해 대통령 손이라도 만들어서 악수를 한다든지 누구를 캐릭터 비슷하게 해서 웃는 얼굴로 해서요. 딱 봤을 때 사람의 웃는 얼굴로 해서 청와대 모습으로요. 국민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요.

**김성빈** 그냥 지금 기존의 마크가 좋고 굳이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청와대 글자나 건물 속에 무궁화를 넣어서요. 저희사람들은 무궁화꽃이 어렸을 때부터 봐 왔던 환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이요.

**사회자** **무궁화의 의미는요?**

**김성빈** 무궁화가 우리나라라는 생각들이 거의 되어 있고 청와대라는 의미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요.

**안재준** 원형이 중심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범위 안에서 바꾼다면 대한민국 독립도 1948년이니까 1948을 대한민국 옆에 넣을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반도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지요. 단기를 넣으면 한민족으로 역사이고 두 번째로는 바꾼다면 청와대 건물을 태극 안에 포함하는데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원안 쪽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태극을 벗어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태극이 중심이지만 뾰족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요. 그리고 원안 쪽에 우리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황토색바탕으로 하고 건물을 축소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안재준** 원형 안쪽색깔을 황토색 바탕으로 하고요. 건물은 축소시켜서 그대로요.

**김성빈** 색깔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길태구** 파란색 위주요.

**김선구** 바탕은 모르겠는데 청와대 모양은 축소를 해서 파란색으로 진하게 해서 청와대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설원규** 색깔은 마땅히 생각이 안나는데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현구** 지금이 좋아요.

**김대현** 지금이 좋아요.

**윤기성** 파란색으로요.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으신지 적어주세요?**

**사회자** **어떻게 적으셨나요?**

**윤기성** 안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요.

**백현구** 그대로 좋기 때문이에요.

- 김대현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요.
- 설원규 색깔을 봉황색이면 봉황색에 맞게 빨강, 파랑 칼라풀하게 하고 무궁화도 무궁화 색감에 맞게 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가깝게 근접할 수 있겠어요. 새면 새의 모양대로 색깔대로요. 금색이나 단색으로 하고 맡고요.
- 김선구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된 느낌이 자칫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오랫동안 억눌려왔으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는 의미로 부드러움을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길태구 안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바꾸라면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한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하고 부드럽게요.
- 김성빈 바탕색같은 편안한 색깔이 좋고 봉황하고 무궁화 쪽은 현실에 맞는 색을 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자체가 모든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안한 색을 국민이 원하는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요.
- 안재준 다른 것은 특별히 생각 안해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바꾼다면 상상의 새 봉황을 백두산호랑이 쪽으로 해서 봉황의 대타로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사회자** 백두산 호랑이의 의미는요?  
안재준 백두산호랑이가 강하니까요.
- 사회자**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재준 무궁화면 자연색 그대로요.
- 김대현 저는 금장이나 은장이 나올 것 같아요.
- 윤기성 지금 색깔이 좋아요. 금색이요.
- 길태구 금장이 좋아요.
- 김선구 원래 색을 사용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자연색으로요.
- 백현구 현실성은 있지만 의미가 떨어지고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봉황은 상상의 새인데 신비로운 점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금장이 무난하고 금장이 그렇다면 단색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사회자** 단색이라면요?  
백현구 금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장이 싫고 다른 색으로 가야 한다면 단색이 좋다고 생각해요.
- 사회자** 청와대 표장이나 문장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길태구 외국에 백악관부터 해서 다른 못사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뺏지라든지 캐릭터나 노트나 볼펜으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볼펜도 하고 티도 있고요.
- 김성빈 그대로 그냥 쓰고 실업자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하는 쪽에 그 돈을 차라리 쓰는 것이 훨씬 나올 것 같습니다.
- 설원규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그때 국민들의 의향을 듣고서 의견을 모아서 만약에 실시한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김선구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백현구            없어요.

김대현            없어요.

윤기성            바꾸는데는 차후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남자 만43~49세 직장인/자영업)

좌담회 일시 : 2003년 4월 20일 (일) 14:00

참석자 명단 :

조상국 5	[ ]	4 문이용
성인규 6		3 양병운
송형달 7		2 이명한
김외철 8		1 최영대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대	직장생활하고 있고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이명한	잠원동에 살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양병운	답십리에 살고 있고 무역회 사다니고 있고 나이는 46세입니다.
문이용	지엠디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개봉동에 살고 있고 나이는 45세입니다.
조상국	압구정동에 살고 있고 외국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성인규	48세이고 사당동에서 왔고 보안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송형달	방학동에 살고 있어 자영업하고 있어요.
김외철	무역회사를 하고 있고 서대문에 있어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시나요?
김외철	저는 고향이나 출생 쪽에 보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 후한점수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모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냄새는 좋은데 사실 쓰일 때가 덜하다고 느껴지고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50일이 됐는데 여러

가지 50일 지나오면서 해온 결과를 보면 애초에 네티즌도 한 표이고 60세도 한표인데 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하지 않나 싶어서 실망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상국           이미지가 외모에서 풍기는 것은 주름이 깊어서 과거에 고생을 했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너무 말이 앞서고 말만 많은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병운           인상이 서민적인 인상을 풍기지만 솔직히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노무현씨는 안 찍었거든요. 이회창씨를 찍었는데 이회창씨가 떨어지고 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무현대통령은 기대감은 안하고 있어요. 지금 까지 특별한 50여일밖에 안 지났지만 특별한 뚜렷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송형달           국정원 같은데에서 보고도 안 받고 이미지야 대통령 같다는 이미지는 풍기지 못하잖아요.

양병운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서민적인 인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일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봐야 되겠지만요.

최영대           노대통령을 생각하는 파트가 두 쪽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회창씨 지지한 분들하고 노무현씨 지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쪽다 불만족인 것 같아요. 노무현씨를 지지한 분들은 계층이 없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개혁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회창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변에 뭐지요 ... 파동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런 식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느 정도 지도자위치에 서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이 너무 앞서는 쪽도 있는 것 같고 TV에서도 표현력에서도 과격하고 정규적인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다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에서 별로 지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보다는 점수가 높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자           어느 쪽이세요?

최영대           중도에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아이들처럼 기존세력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요번에 파병 같은 것은 국익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명분이 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미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막말로 미국에서 삼성반도체 그만 가지고와 삼성 자동차 골치 아프다 하면 그런 면은 산업체에 오래 있다보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와에 그렇게 하면 기본 좋게 우리가 합시다 해야 하는데 명분도 없는 전쟁이지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지만 좀 가볍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명환           개인적으로 보면 보수적인데 저는 직장에서 나는 이회창을 찍었는데 직장에서 이회창을 찍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부서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노무현 메리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욕도 하고 그런데 그거야 첫째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그런데 저도 우연한 일치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 봤어요. 당초에는 좌익이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박정희대통령도 좌익 쪽에 있었고 김대중씨도 좌익 쪽인 성향도 있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차라리 이회창씨가 당선되고 나서 개혁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어떤 개혁도 괜찮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혁성향만 보면 고건총리가 들어가서 어떤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각이나 그런 것을 보면 캐리어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인물구제를 위해서 민주당 때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인물구제에서 오는 것이 많았는데 그렇다보니까 파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파격 가지고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류가 있으면서 거기에 파격적인 것이 도입이

될지언정 파격이 주류가 우선 되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대통령이 자기 할 일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직접적으로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노출하고 있고 그런데 역량을 모아야 할 시국에 어떤 검찰개혁이라든지 행정 어떤 이런 식으로 봐서는 너무 지엽적인 거에 부서장이 저 밑에 말단 직원이 하는 것을 거들어 주고 하는 거면 개혁이 아니라 트레이닝도 무리가 있다, 장관이 트레이닝할 정도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감을 못 잡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개혁이라면 소리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서 국민한테 전달할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것 같고 비근한 예로 대변인은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여자 대변인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의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이야기를 뭐지도 모르고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과거적인 개혁이 아닌가 그거는 아니다, 국민이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조직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장, 차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데 편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익에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현실적인 안목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규                    생선도 너무 찌면 너무 허물어지고 너무 젓가락을 많이 대면 부서지는데 주며 보니까 하고 있는 행태가 보니까 세세한데 까지 찌르는 것 같아요. 노무현대통령이요. 그러다보니까 알아서 밑에 사람이 해야 될 것도 관여를 하다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옛날의 미국의 케네디대통령 처럼 멋이 있다는 것은 없고 지금 인격을 따지기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저야 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인기는 없지만 인기가 있겠끔만 들어 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먼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송형달                    개혁을 하다보면 쓴 소리 싫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회창씨를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노무현씨를 찍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국정원에 파위가 얼마나 썰요. 보고는 자기는 안 받는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이용                    아직 들어온지 50일밖에 안됐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말하기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 모습과 되고 나서 모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실망감이 있어요. 서민적인 모습이나 개혁적인 모습이라든지 있는데 들어와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비치고 있는데 덜 비치니까 대통령 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국정운영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듣고 비판도 있고 하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고 봐야지요. 50일밖에 안됐는데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송형달                    서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서민적이다.

성인규                    가식이 없다. 티가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명환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도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텐데 그거의 이면에 뭔가 너무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방향으로 갈지 이쪽방향으로 갈지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도적으로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김외철                    모과. 과일 중에서는 가장 저급한 과일로 취급을 하는데 냄새는 좋은데 실제로는 먹지를 못하지요. 차로 먹던지 향을 맡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과한바도 있지만 이미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달할 필요는 없지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차라리 김영삼대통령 보다 못한 것 같다, 김영삼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하는 것이 만사라는 소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IMF 말고 문제가 됐지만 노무현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캐치프라이드를 내건 것 같은데 인사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서민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외모와 풍기는 거와는 달리 각이 예각이라서 자기 쪽의 사람으로 편협된 시각을 오히려 지금까지의 대통령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언론관이라든지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봅니다.

성인규           유비 같은 스타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능력이 있는 참모가 들어와야지 혼자서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참모가 엉터리예요.

문이용           서민적인 이미지도 있고 개혁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최영대           성장환경도 그렇고 인재풀이라는 것이 학연도 그렇고 지연도 사실 부산에서 환영을 못 받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인재풀을 쓰는 것이 편협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다못해 활동이 있다보면 그런데서 인재풀이 좁고 국민의 지도자라면 우리나라 국민 적어도 눈물을 닦아줄 포용력을 기대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인규           카리스마적인 입장에서는 카리스마는 없다고 봐요.

양병운           좋은 면에서는 순수하다고 보는데 나쁜 면에서 보면 과격한 면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최영대           황색.

김외철           보호색.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상국           밝은 색이 아니다 밝지 않은 색깔 중에서 뭐라고 짚기는 그렇지만 밝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성인규           그냥 밝으면 되는데 확 밝아지니까 오버한색인 것 같아요.

김외철           예전에 땡전 뉴스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노무현대통령을 TV에서 보면 유심히 봤어요.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청와대에서 리셉션을 할 때 보면 예전의 대통령과 달랐어요. 입장할 때 머리를 숙여서 목례하고 그런 것을 신선하게 봤어요. 처음에는요. 예전의 김대중대통령이나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모위원장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뭐를 느꼈느냐면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다닐 때 반장이 되는 놈이 있는데 반장이 잘못 되어서 엉뚱한 놈이 반장이 되어서 반장이 안될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스럽지요. 불안하기 때문에 보호색이라고 했어요.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의 이미지와 참여정부의 느낌이나 이미지 아가 어떠세요?**

김외철           다르다고 봅니다.

송형달           다르다

성인규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과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유사한데 참여정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아웃사이드가 인사이드 쪽으로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주객이

- 전도되지 않았느냐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 조상국                   같은 쪽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문이용                   참여정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 양병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 이명환                   개혁이 필요하다면 참여보다는 다른 것이 아닐까 싶어요. 참여하고 개혁하고는 틀린 것 같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참여는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건데 그런 것은 개혁의 어떤 시민을 위한 참여라고 했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없지 않는가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최영대                   제가 보면 필수불가결한 관계인데 왜냐 하면 전체정부가 생각하기로는 기준은 조금 안되겠다, 장관이라든지 발탁된 인사들을 보면 옛날 기존의 기득권층하고는 어찌보면 손해를 봤다, 그런 분들이 많이 ... 결국 그러면 기득권층을 같이 개혁을 시키려면 끌어들이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그거를 표방을 해서 참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참여는 그게 아니고 기득권층도 참여해야 되고 밖에 있는 소외계층도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수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참여는 대다수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냉소적으로 돌아서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그동안 불만이 많던 그 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참여정치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오픈을 해서 사회를 개혁시키려면 기존의 세력들도 같이 개혁을 해야지 일부만 해 가지고는 개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 사회자**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 송형달                   최영대씨 의견에 일치하는데 참여정부가 모든 단체에서 참여를 해야하는데 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부수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자기네들이 운동권에 같이 고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철 그분도 건강공단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자기네 측근들의 인사가 많았지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의 이미지와 참여정부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인가요?**
- 송형달                   그렇지요.
- 사회자**                   **같다고 하신 이유는요?**
- 문이용                   과거정권도 그렇고 보면 정권초기에는 자기 측근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정치를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이끌고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으니까 국정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전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정권을 같이 일할 수 없는 것같이 보면 측근들이 주위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대통령해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정을 같이 이끌어갈 사람들하고 일하지 전혀 반대적인 사람들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정부도 그런 식으로 자기네 비측근외에 자기 측근과 일했지요.
- 조상국                   다르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이용씨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정치들과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20, 30대도 지지했고 여기 모인 40대는 이회창 쪽을 많이 지지했을텐데 그렇지만 뭔가 참여정부라면 우리가 뭔가 색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과거에 정치구도 하고 벗어나는 것이 없이 결국에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 사회자**                   **참여정부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 조상국                   참여정부 하면 전 국민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대변할 수 있는 가까운 자기 마음하고 가까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는데 아니면 정치 쪽에서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 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참여정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외철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왔는데 참여정부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서자마자 무슨 정부라고 말하는 정부는 없어요. 시일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평가할지언정 참여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그거는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이지 왜 케치프레이드를 내걸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번에 국민의 정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정부라고 하는 것이 좋노?” 해서 “참여정부로 합시다” 해서 그걸로 하는 것 같아서 참여정부라는 것 자체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알아서 하다가 노정권 다음에 다음 정권들어서면 그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였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참여정부였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지언정 나는 이것으로 가겠다라고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끌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성인규           참여정부의 구성원 자체도 대통령의 의리상 데려온 것이지 명령은 없다고 보고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서열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지요. 제가 볼 때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하고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사회자           참여정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 성인규           카멜레온 색깔이요. 수시로 변할 것 같아요. 일관성은 없을 것 같아요.
- 이명환           참여정부 색깔이라면 푸르면서도 밝은색이요. 보통 연두색 같은 색깔이 따뜻하면서도 밝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라는 뜻은요. 그런데 참여정부에 대한 색깔이 어떤 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는데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여정부라면 그런 색깔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 최영대           옛날과는 다른 것이 젊은 층 30대 아이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한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30대는 정치 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월드컵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쪽에 20, 30대가 걸집이 되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지요. 아이티가 워낙에 우리가 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고 참여정부라고 해서 좋게 본다면 젊은 층에서 참석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색깔로 말을 하면 회색 같아요. 벌써 빛이 바랜 것 같아요.
- 문이용           그린 녹색이요.
- 사회자           청와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 양병윤           감옥같지요. 청와대 하면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때의 장기 집권했을 때 서슬이 퍼런 정권이 생각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와대 하면 멀고 김대중정권 때보다는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40대 이후로 느끼는 가지는 느낌은 거의 다 청와대라는 느낌이 멀다고 느껴져요.
- 성인규           옛날에 비해서는 가까워지고 조금 개방적이고 옛날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이고 보이지 않는 막이 쳐져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갔는데 청와대에서 막아서 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문이용           밀실같은 느낌이에요.
- 조상국           정치 형태로 보나 이승만때부터 박정희시대가 오래 되면서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까지 그런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 성인규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청와대 그러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범접하기가 힘든 장소라고요.

- 최영대            폐쇄적이고요.
- 사회자            **청와대 하면 색깔은요?**  
 좌 중            푸른색.
- 이명한            청와대라는 단어를 어떤 한 순간의 단어로만 묶어버리기는 그렇지 않나 싶은데  
 경복궁이라면 옛날에 왕 시절에 문체도 있었고 영조시대 때는 굉장히 문화를 폄  
 시대의 궁궐 이름인데 그거를 무슨 시대라고 해서 바꾸고 그런 쪽에 의미를 뒀서 이름이  
 어떠한 것보다는 역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뀐건가 사람이 바뀌고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뭘 위해서 그게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화이트하우스 이야기했지만 상징적이고 우리나라 고유 대궐로 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도 좋은데 이름이 좋고 나빠서 받아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역사성으로  
 봐야지요. 청와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변했잖아요.  
 하나의 역사성으로 봐야지 사람 하나 데리고 개똥인데 갑자기 노무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노무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은 개똥이지만 개똥이라는 이름 자체의  
 정체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름보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부를 옮긴다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청와대라는 이름을 평가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평가를 받고 끝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힘을 들여서 일을 해야지요.
- 최영대            많이 밝아졌지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포함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  
 떤 느낌이 드시나요?**
- 김외철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정부처럼 자기편을 챙긴 사람은 없어요. 느낌은 안 좋아요. 판을  
 새로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최영대            정보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싶어요.
- 양병윤            젊다고 해서 노무현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젊다는  
 것이 좋은 느낌의 젊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나이만 젊다는  
 느낌이 들어요.
- 이명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개혁적이지 않거나 젊다고 해서 고리타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젊어지는 것은 좋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로서 네트워크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 자체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구축이  
 됐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쪽라인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뜩이나 불안한 속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엮여서 잘못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 인적구성이 난해하다 싶어요.
- 성인규            안정성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들이 많지요. 그리고 하나의 인맥을 많이 원했고 인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많이 보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의 주관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드네요. 국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사람 뜻이 전달도 안되는 것  
 같아요.
- 송형달            옛날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막강한 권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권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민적인 입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력이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청와대는 우리가 거리감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개방됐지만 저도 출퇴근할 때 차가 밀리면 그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많이 개방이 됐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다가가려면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많고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저번에 비서실은 전부 자기의 측근들을 비서실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의 신상이니까요.

문이용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맞는 참모들을 쓰는데 젊어졌다는 느낌이 있고 제 생각도 과거에 50대 넘어서 60대 사람들을 참모로 쓰느니 젊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 청와대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대표할만한 상징물이 있다면요?**
- 김외철            봉황이었다가 요즘에는 신문고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TV를 통해서 봤는데 신문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바뀌려면 무궁화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신문고로 바뀌었을까 사실 노무현정부가 신문고라는 뜻에서 풍겨지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신문고역할을 하는 조종동이라든지 기존의 신문이 아닌 아웃사이드적인 측면의 언론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신문고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 성인규            많이 되어 왔던 것이 무궁화를 사용했지요. 미국은 독수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강한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봉황 같은 새 말고요. 독수리는 너무 흔하고요.
- 최영대            까치가 생각나요. 좀 반가운 소식도 까치가 울면 좋다고 하니까 까치가 제일 안 좋은 새라고 해요. 까마귀가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 김외철            까마귀가 길조라고 하잖아요.
- 조상국            상징물이라는 것이 좀더 지금 같이 새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돌고래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바다에서 넓은 바다를 헤집을 다닐 수 있고 상당히 아이큐도 고래 중에서 뛰어나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쪽에 한번 돌고래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 문이용            장단목메요. 메가 한국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것 같아서요.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 송형달            훈민정음이에요.
- 성인규            광개토대왕.
- 김외철            현재는 전제주의 국가 같지가 않아서 심볼화 시킨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예요. 다변화에요. 대기업하고 그렇지 뭐다라고 시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미국에서는 일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시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뭔가 자꾸 상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다 뭐다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자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 성인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도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미국한테 지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화폐도 보면 이씨화 되어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이씨고 이순신도 이씨고 이왕도 이씨고 그거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다른 씨도 짚어 넣으라는 거예요. 왜 이씨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 사회자** 무궁화는 어떠세요?  
**성인규** 무궁화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가 드신 기성세대는 몰라도 젊은 세대는 무궁화라도 와있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장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무궁화 하면 사실은 없어요.
- 김외철** 88올림픽 때부터 해서 심볼이 호돌이가 됐잖아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기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꽃을 우리나라꽃으로 좋지않다 그래서 개나리가 좋다, 진달래가 좋다 했는데 진달래는 붉은 색이라서 이북쪽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안되고 호랑이로 하자 시베리아산이다 한국의 호랑이가 원산지가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호돌이라는 추상적으로 만들어 낸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안 좋지요.
- 최영대** 무궁화는 벌레도 많고 꽃도 화려하지 않고요.
- 송형달** 폼다 폼다 폼다 폼다 하잖아요.
- 성인규** 호돌이는 맹수의 왕이거든요. 호랑이를 완전히 코미디 비슷하게 시화시킨 것 같아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자**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상징은요?  
**김외철** 호랑이요. 일본사람들은 토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로 표현한 이야기도 있고 특히 학교를 고대 나온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고대쪽 멤버들은 그런 생각이 강하지요.
- 문이용** 곰이요.
- 성인규** 남북이 합치면 단군의 자식이니까 단군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해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 마크를 아시나요?  
**김외철** 신문고.  
**송형달** 많이 봤지요.  
**성인규** 봤지요.  
**모 두** 봤다.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보여 주고
- 사회자**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 같으세요?  
**송형달** 청와대 비서실에 친구가 있어서 김영삼정부 때 뺏지하고 넥타이핀하고 그때 받았을 때 처음 봤습니다.  
**김외철** 저도 예전에 요즘은 흔해졌지만 특보라고 있었는데 명함에다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할 때 보니까 문장을 뒤에다 놓고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은 어떠세요?  
 - 긍정적이다 하시는 분? 6명.  
 -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 2명.
- 사회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송형달** 한국적인 이미지이고 청기와 지금도 색깔이 똑같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뺏지에도 똑같은

색인지 뒤에 산이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조상국 똑같은 생각인데 청와대라는 말 자체에 그대로 청기와집 자체도 그렇고 조화라든지 모든 것이라든지 저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문이용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이미지로 기와하고 한국적인 집 구조가 평범하면서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부정적인 이유는요?**

김외철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를 보면 문장을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유니온잭이라든지 상징화 시켜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버킹검궁이나 엘리제궁을 보완화시켜서 청와대라고는 안한다는 거지요. 그거는 왜냐 하면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청와대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태극문양으로 해서도 청와대라는 글자를 있다면 충분할텐데 굳이 청와대집을 형상화시켜서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디자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성인규 너무 고전적이고 앓나 현대적이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사람들이 와서보면 용인 민속촌 입구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어떠세요?**

- 바꾸는 것이 좋다하시는 분? 1명.
-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 7명.

**사회자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은요?**

성인규 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어떤 파워풀한 이미지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사회자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요?**

김외철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고 왜 청와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신경을 쓰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명한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되요. 어느 날 봤더니 거게 있어서 전에볼 때는 신선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라든지 그런 것도 세계에 가면 어느 나라 국기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뭐좀 하면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던 꾸준히 가야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매번 하면 장관들의 임명장 줄 때마다 다 틀리고 정부마다 틀리고 해외공간 나가보면 여권문장도 틀려지고 이럴 거냐 무슨 마크라는 것이 그냥 쉽게 학교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기 위해서 유지보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바꾸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문제라고 봐요. 정할 때는 정확하게 여론화를 해서 문양을 바꾸고 괜히 무슨 청와대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이거나 바꾸기 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보면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 가야지 공산국가 뻘다가 민주주의 된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유지하자는 쪽이에요.

**사회자 대통령표장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모 두 봉황이 양쪽에 있는 것이요.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어떤 때 쓰이나요?**

김외철 상 받을 때요.

- 이명환           행사가 있을 때요. 외국인 원수가 왔다갔다할 때요.
- 김외철           리셉션을 할 때 보면 뒤에다가 놓고 하지요.
- 사회자**           **표장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지 어떠세요?**  
 - 마음에 든다하시는 분? 6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1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1명.
- 사회자**           **마음에 든다는 이유는요?**  
 양병윤           봉황이 상상적인 새지만 위엄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이명환           부라질 국가를 보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황이 상상을 해서 나온 새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국민이 나 개인이라도 미래의 좋은 새인 것 같고 형이상학적으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새인 것 같아요.
- 최영대           색깔도 많고 봉황도 역사적으로 봉황을 뜻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통성을 이어가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성인규           봉황하고 무궁화하고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조상국           봉황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것도 있고 두 마리가 견제하면 양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화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요?**  
 문이용           봉황이 그림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봉황은 10조의 새도 아니고 상상의 동물이니까 외국사람들이 보면 봉황인지 아닌지 모르고 인위적인 새인지도 모르고 10조의 새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김외철           저는 보통이라고 했는데 대통령표장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되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비취질 수 있고 대통령을 상징한 건데 봉황이면 어쨌고 용이면 어쩌냐 대통령이 쓰는 것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면 나름대로 상징이 있는 것이고 디자인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 디자인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파워를 가지고 디자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디자인을 가지고 기업의 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용이면 어쨌고 봉황이면 어쩌냐 국가적인 힘을 기르는데 더 역량을 기울여야지 이런 것을 자꾸 하나 하던 것을 쓰자고 생각해요.
- 사회자**           **외국에서 상징물을 보신적이 있나요?**  
 김외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는 독수리마크해서 밑에 미국 국기 스트라이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이명환           외국에 있을 때 자기 성씨에 대한 문양을 본적이 있어요. 맥도널드 요즘에 나오는 식으로 그런 집안의 문양이 있는데 우리는 족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가문의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중세시대에서 쪽 왔을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역사성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거를 해서 권위가 있거나 무슨 더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보다는 연소속성과 시대성을 갖고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점이 있다면요?  
 성인규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하나는 우리의 주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할말을 못하고 너무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실 불만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뚜렷한 비전을 제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하류층, 중상층, 상위층이 있는데 상류층인 경우에는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첫째로 아이들을 유학을 시켜 놓고 자기네들은 이민 간다는 이야기를 예사로 해요. 한국은 끝났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중산층은 좁아지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많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정치를 하는 면에서 국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명환            경제적인 비전을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거기에 국방에 대한 것이 외교와 같이 묶여있는데 대통령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서민 뭐 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 정부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가 네트워크의 힘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나왔지 기반이 없는 정부라는 면에서는 서민의 어떤 것을 많이 어필했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만 만들어 놓고 서민들은 땅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서민들한테 부합될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도시적인 수도권의 발표도 여태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올 정책이 없다는 연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일말의 애국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능력이 있으면 나가라 차라리 그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서민 정책이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구어만하고 정책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지금은 행정부이전 하는 것과 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기업들 회계는 법적으로 잘못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민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다른 것은 너무 홍보전략도 없는 것 같고요.
- 김외철            저는 기업을 오래 해온편인데 각 정권때마다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이 무역업이다 보니까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밀접이 해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현재노무현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수를 하는 입장은 서민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마는 수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노무현대통령이 깃발을 오른쪽으로 흔들건지 왼쪽으로 흔들건지 몰라요. 투자를 할 수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노무현대통령은 국내적인 문제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은 국내보다는 국외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인데 너무 그런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은 무역업이나 수출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투자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진퇴양란이에요. 외교 쪽에 확실한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점과 경제적인 문제도 제로로 되어 있고 그게 문제예요. 사회 문화만 신경을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 조상국            지금 50일만에 그 바램을 50일만에 표출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닳친 쪽에 자기하고 실제 생활하는데 어느 쪽으로 많이 기준을 두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역하고 경제 쪽으로 아니면 외교 쪽으로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50% 이상일 수 있어요. 신문을 봐도

신문을 전체로 다 보는 사람이 불과 몇 이나 되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교육을 보면 아직도 중, 고등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수입에 80% 까지 교육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고 내가 받는 봉급을 가지고 한국에서 산다면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하다보면 외국으로 나가려고도 하는데 교육문제는 어느 정부가 와도 시원스럽게 대답을 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달 정도 됐으니까 외교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교육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성인규** 히댕크감독이 월드컵감독을 맡아서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조금은 편은 있는데 몇 개월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 감독처럼이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저도 찼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조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병운** 얼마 전에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것을 가지고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심하다고 봤어요. 검찰내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검사들하고 대화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검사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과 노무현씨 혼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도 너희들만큼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힘들고 하니까 로또복권을 사봤는데 407억된 사람은 해외를 나갔다고 하는데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민을 가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현재 저희경제가 힘들고 그런데 그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김대중정권 때는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와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50일이 아니라 5일이 됐어도 지금부터 우리가 노무현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게끔 자꾸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면 바뀌는 문장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졌으면 좋은지 적어주세요.**

**송형달** 태극문양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의미하잖아요.

**성인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의 식물이나 잡초처럼 살다보니까 한국의 강인함.

**조상국** 지금 현 상태에다가 태극마크도 하나 넣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고 하다보면 우리나라 국기가 어디가도 계양을 시켜야 되고 이런 쪽이고 실제 외국에 나가봐도 대한민국 하면 국기만 갖다놓으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라는 자체가 TV를 통해서 아니면 많이 알려질 때 거기 한국의 청와대라면 저게 대한민국이라는 마크로서 태극기가 들어가 있으면 좀더 상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문이용** 바꾼다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양이라든지 더 나가면 통일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양병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요.

**이명환**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볼 때는 태극문양을 전체적으로 넣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마크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회자** **색깔은 어떠세요?**

**성인규** 색깔은 우리나라 고유의 태극기에 보면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완전히 녹색이라는 것은 완전히 안 맞잖아요. 녹색은 이태리 쪽

이미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하고 이미지가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태극기에 나오는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김외철 차라리 흰색이네요.

이명한 저 자체로는 단순하고 좋은데 태극기 모양이 들어가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주변에 뭐를 넣다보면 권위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 단순한 것이 좋은데요.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가 들어갔으면 하는지 적어주세요.**

최영대 대통령의 권위와 한국을 나타내는 것과 조화 있게요. 이 자체도 좋아요.

이명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양병윤 기존 것 가지고 권위도 상당히 있고 상당히 의미가 부여 되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이용 바꾼다면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의 대표를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국민의 대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문이용 무궁화는 모르겠지만 대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상국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다면 우리민족의 역사와 숨결이 담겨 있는 쪽으로 하네요.

성인규 유구성하고 연속성인데요. 조화는 이루었는데 봉황자체가 뒤로나와 있는 것이 여성적인 이미지란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원래가 활을 잘 쏘는데 하나의 치우황제같은 치우의 상을 양쪽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송형달 한국을 좀더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외철 상징성과 권리성이라고 썼는데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대통령 표장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외철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아니고 한 국가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과 변화시켜야 될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나라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임기동안 대항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지 바뀔 것과 안 바뀔 것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문장은 이승만부터 해온 것인데 지금 까지 상 받고 훈장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연속성이 없어요. 프랑스는 200년된 훈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권위가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지 5년이 지나면 노무현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 바꾸면 안되요.

사회자 **표장 색깔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성인규 좋습니다.

김외철 금색은 좋아요.

이명한 봉황이 살이찢 것 같아요. 고급스럽기는 한데 가분수적인 거라서 날아가는 듯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외철 중세시대에는 뭐든지 자주색이고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골드로 로얄 골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 성인규            날개를 위로 올렸지만 꼬리가 축 늘어지거든요. 색깔은 골드예요.
- 조상국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1850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네이티엘이라는 회사가요.  
그래서 독수리에 네이티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 성인규            블랙인이라고 해서 검은 독수리 있잖아요. 2차대전 때보면 천막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징성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강인한 것이 없다고요.
- 김외철            봉황은 좋아요. 봉황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예요.
- 이명환            유럽은 검은 독수리 해서 다 독수리인데요.
-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여자 20대 대학생)

좌담회 일시 : 2003년 3월 19일 (토) 17:0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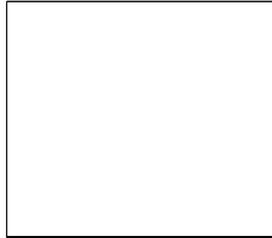
참석자 명단 :

나상연 5

신진경 6

조희원 7

김지은 8



4 김지선

3 이은미

2 황윤미

1 김송이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김송이            성신여대 3학년 경영학부이고 경희대 근처에 살아요.
- 황윤미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2학년이고 잠실에 살고 있어요.
- 이은미            동덕여대 3학년이고 천호동에 살아요.
- 김지선            숙명여대 4학년 가족자원경영학과이고 양재동에 살아요.
- 나상연            건국대 의상학과 4학년이고 대치동에 살아요.
- 신진경            강원대 4학년이고 국어국문학과이고 노량진쪽에 살아요.
- 조희원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이고 개포동에 살아요.
- 김지은            경희대 이동학과 4학년이고 이문동에 살아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 김지선            개혁을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선거공약 내세울 때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고 또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정책을 봤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대통령이라서 젊은이들의 득표수를 얻어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파병문제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고 확실한 뭔가에 가치관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공약은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닌데 미국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반미감정이 있었음에도 득표를 얻었는데 ... 불안감이 있어요.

이은미

노무현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는 광보를 많이 감성으로 많이 했잖아요. 노사모의 사람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에 젊은이들이 많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열광하면서도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주변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김대중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젊은이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레임덕에 빠졌잖아요.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도 어찌면 김대중대통령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가 큰만큼 지지도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파병문제도 그렇고 새만금도 말씀을 바꾸셨잖아요. 원래 수산부장관에 계실 때는 그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대통령이 됐을 때는 거의 20% 밖에 진척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척된 것이 아깝다고 다시 추진하신다는 것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새만금의 문제가 тебе 예민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파병하실 때도 논리적이셨거든요. 우리가 파병을 하면 북한도 같이 해당이 되고 어떤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 파병할 때는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자기세력을 돋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더 잘해 줄거라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등을 돌렸다면 똑같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국의 말씀을 막 하셨는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전쟁이 기울면서 입장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신진경

처음 선거때 이미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광고에서 저도 이미지가 좋게 봤고 많이 좌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뽑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벌써부터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회자

**어떤 것에서 실망감을 가지시나요?**

신진경

일단 저한테 가장 큰 것은 파병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사람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명분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서 실망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김지은

처음에는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적이고 약간 권위감을 기대하지 않고 편하고 그런 이미지로 젊은 사람한테 많이 와닿았잖아요. 신선할 것 같고 대학생들 편이 될 것 같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다르지 않을까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그런데 걱정했는데 막상 정치를 하고 있으니 파병문제에서도 다시 학생들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황윤미

저는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는데 그래서 관심이 없기는 했었는데 여태껏 대통령되신 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쨌건 낮은데에서부터 대통령자리 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여태껏 살아온 역경이 많았었잖아요.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서민들한테 표를 많이 얻고 개혁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이렇다할 이야기는 시끄럽기는 한데 아직 대통령 취임하신지 1년도 안됐잖아요. 지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4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신념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파병문제는 국익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된 거잖아요. 파병을 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부분에서 큰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갑자기 미국한테 등을 돌려버리면 프랑스도 돌려섰다가 다시 미국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안 좋은 차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힘이 센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하시면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나상연**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선거할 때는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때 이회창씨하고 비교 그래서... 따뜻하고 서민적인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에 끌리고 정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 과병문제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봐야 되니까 변화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들이 막 타더니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운동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뭐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안정적인 때 개혁을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찌면 다른 후보가 됐으면 더 안정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송이** 처음에 노무현대통령 나왔을 때 서민적인 시발점을 보고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느낌을 받고 많이 투표권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생각도 꼭 서민적인 것만이 어필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분들처럼 처음부터 그분을 뽑아야겠다 그분이 서민적이어서 내 마음에 딱 들게 정치를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 하면 꼭 꺾어봐야 서민적인 것은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과병문제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과병 보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당장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등을 돌리면 바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나라들도 미국한테 다시 그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 그 나라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등을 돌리면 바로 타격이 심하니까 오히려 나라가 국민들의 생각하는 것인데 단지 잘못하신 것은 말을 바꾸어서 하신 것이요. 생각이 일정하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조희원** 저도 작년에 투표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대통령께서 열정은 많이 보이셔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는 것만큼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신 후로도 실제로 약간은 추진력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 쪽에도 이렇다할 정책 내 놓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요?**

**신진경** 아직 선거 때 이미지가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많이 하셨던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동네아저씨 같은 이미지.

**김지은** 서민적대통령.

**사회자** **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요?**

- 주황색이라고 하시는 분? 1명.
- 황토색이라고 하시는 분? 2명.
- 노란색이라고 하시는 분? 5명.

**김송이** 주황색이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편안하잖아요.

**나상연** 노란색은 발랄하고 명확한 색이잖아요. 노란색 하면 이미지가 그래서 눈에 잘 띠니까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보호하는 느낌으로 좀 우유부단한 흐릿한 느낌이 섞여서 황토색이요.

- 신진경                   동네아저씨 이미지하고 부합하니까 노란색보다는 발랄한 이미지가 아닌 분위기이기는 하면서 시골틱한 느낌이요.
- 사회자                   **노란색이라는 이미지는요?**  
 좌                       선거때의 이미지. 노사모의 이미지.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 것 같으세요?**  
 김지선                   부합되요.
- 사회자                   **참여정부 했을 때 어떤 정부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요?**  
 이은미                   참여정부라고 해서 많이 뭔가를 토론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또 실망을 했어요. 학생들이 실망을 했던 것이 판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그 한나라의 검사들의 인사권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론 같은데도 많은데도 검사의 인사권에 불고한 데도 토론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무현대통령께서 토론을 하신 것은 어쩌면 검사들을 누르고 싶었다는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게 치부로 드러내신 것이 있잖아요. 토론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같이 봤는데 치부를 드러냈고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검사인사권까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냐는 이미지가 많았어요.
- 황윤미                   확실히 뭔지 잘 모르는데 장관 인사할 때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치를 하는 분께서 장관을 맡으시면 아무래도 그쪽 일하시는 분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떨어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여정부라는 이미지를 딱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하셨다고 생각해요.
- 사회자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 이미지와는 맞나요?**  
 김지선                   저는 참여정부랑 노무현대통령이 처음에는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겠다고 인터넷으로 추천 받고 했는데 그게 잘못했다 잘 했다는 것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시도를 한 것이라 참여정부의 어감과 맞다고 생각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부의 방침이랑은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 사회자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신진경                   딱히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지 않고 이미지에서만 본다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해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선거때 노사모가 참여했던 것처럼 선거도 축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참여의 이미지하고 맞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좌                       들어가기 힘든 곳. 권력다툼. 한번 쬐은 가보고 싶은 곳.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 신진경                   이미지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의 권력을 최상이잖아요. 청와대라는 이름자체부터 뒤에 산이 있고 되어 있어서 별로예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쌓아왔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최고 권력층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청와대라는 건물의 이름 자체만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못 들어가고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폐쇄적인 이미지 때문이에요.
- 김송이                   아직도 거리 감이 많이 느껴져요. 우리랑은 다른 생활을 할 것 같아요.
- 이은미                   길 지나가다가도 그쪽에는 의경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는 안되는 것 같아요.
- 황윤미                   괜히 발소리도 내서는 안될 것 같고 숨죽여야될 것 같아요. 그냥 웬지 건물자체도 크고 큰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발소리도 조곤해지고 발소리도 안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 사회자** 청와대에는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김지은** 파란색.  
**나상연** 회색깔의 톤이요. 약간 애매한 색이요.  
**이은미** 금색.  
**김송이** 밝은 회색이요. 건물색상 때문이에요.
- 사회자** 청와대의 비서실 등을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김지선** 대통령측근이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청와대라면 주위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취직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와대 안에서는 오래 못있고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잠깐 동안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고 비서실도 대통령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측근이라고 생각이 되요.  
**나상연** 대통령이랑한편이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은미** 권력 지향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입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공무원 3급 정도 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질은 당연히 실력이 되고 욕심이 있으면 되는데 저도 그게 어떤 면에서 비리에서 나쁘게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랑 실력이 쌓아져야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희원** 실력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력도 있고 권력은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게 좋은가요?  
**조희원** 그사람들한테는 행운일 수 있고 약간 부정적이에요.
- 사회자** 청와대나 우리나라정부를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김지은** 지금 청와대의 마크가 있기는 있나요?  
**황윤미**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지금은 무궁화인 것 같아요.  
**조희원** 떠오르는 것은 무궁화인데요.  
**이은미** 용이요. 용트림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김지선** 학이요. 고고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고 청결한 이미지도 있고요.  
**나상연** 옛날의 기와문양.  
**신진경**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전통적인 것에서 따왔으면 좋겠어요.  
**김송이** 태극문양.  
**이은미** 해태상이요. 해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상상의 동물이고 우리나라는 해태는 수호신의 의미가 있잖아요.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이은미            우리나라 무궁화가 국화이기는 하지만 주위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궁화인데요.  
                     태극무늬를 디자인해서 태극으로 하면요.
- 신진경            태극.
- 김지선            호랑이요. 지도력 때문이에요.
- 사회자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물은요?  
신진경            태극이요. 동그라미 안에 둘이 같이 있으니까요.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 사회자            청와대에서 이용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이은미            용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요.
- 김지선            봉황.
- 신진경            봉황 금색으로 양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그 마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나상연            권위가 있어 보였어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의 보여 주고
- 사회자            본적이 있다 하시는 분? 5명.
- 사회자            어디에서 봤나요?  
김지은            인터넷.
- 황윤미            인터넷.
- 이은미            기자 회견할 때 커텐이요.
- 조희원            인터넷.
- 사회자            인터넷 어디에서 봤나요?  
김지선            청와대홈 페이지 들어갔을 때요.
- 김지은            행정 쪽에서도 본 것 같아요.
- 사회자            그때 문장은 어디에 쓰여질 것 같으세요?  
김송이            문서.
- 나상연            뱃지
- 사회자            어디에 썼으면 좋으시겠어요?

- 신진경                   별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이빠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의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지 어떠세요?**  
 - 보통이다 하시는 분? 3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5명.
- 사회자                   **보통인 이유는요?**  
 김지은                   건물만 강조를 해서 딱딱해요.
- 사회자                   **좋은 점은요?**  
 김지은                   없어요.
- 김지선                   청와대 건물은 잘 나타냈는데 복잡하고 촌스럽고요. 뭘지는 알겠는데 자체가 복잡해요.
- 김송이                   보통이라고 한 것은 나쁘지는 않다는 뜻인데 마크로서 제 할 도리는 다한 것 같고 입지를 나타내는 것 같고 색깔이 마크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눈에 복잡한 것은 거슬리니까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초록색을 생각하면 자연적이고 환하고요.
- 사회자                   **좋은 이야기만 하셨는데 보통인 이유는요?**  
 김송이                   청와대라고 쓴 것은 웃기자치요.
- 조희원                   일단 예쁘지 않고 위에 산이 버티고 있어서 위압적이예요.
- 나상연                   봤을 때 상징한건데 청와대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청와대와 산을 그려 놓은 건데 청와대를 상징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청와대잖아요. 초등학교 보고 청와대를 그려라하면 저거를 그럴거 아니예요. 색깔도 솔직히 봤을 때 새마을운동 같고 너무 정직한 한번의 꼬임도 없는 정직한 자체이고 신경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만든 것을 여태까지 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것도 하나의 디자인인데 디자인느낌은 안 들어요.
- 이은미                   마크인데 청와대 자체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청와대라서 파란색하고 보호색밖에 안 쓴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딱 문장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청와대 홍보책자에 청와대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림 같아요.
- 신진경                   복잡한 것 같아요. 문장으로 쓰이기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청와대이미지의를 캐치를 해서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기둥하나에 무늬까지 다 있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 황윤미                   저것도 하나의 마크인데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정부의 문장인데 그안에 있는 집 그런 건물 같은 것이 꼭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 중국 그런 비슷하고 저게 우리나라건지 모르고 어느 나라건가 하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좀더 우리나라느낌을 살려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첫 느낌은 어떠세요?**  
 나상연                   답답해요. 빗살무늬도 있고요.  
 김지은                   딱딱해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다하시는 분? 6명.**  
 이은미                   보통인데 문장을 있는 것이옛날에 외국소설을 봐도 가문의 문장을 바꾼 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잖아요.청와대 문장이라면 아중요한문서에 쓰일 수 있고 그거의 바꾼 다면 아안될

- 것 같아요.
- 김송이            반대인데 저런 이유도 있고 문서는 버리지는 않을건데 그런 것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요.
- 사회자**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이유는요?**  
신진경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못하고 그런 문장이라면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이은미씨나 김송이씨의 의견대로 라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좌 중            예.
- 김지선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딱 봤을 때 본 것 같기는 하다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청와대대문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인식이 안된거니까 바꾸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 김지은            바꾸고 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김지은            국민들이 알 수는 있게요.
- 사회자**            **다른 나라 정부 문장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요?**  
이은미            백악관문장은 긍정적이라기 보다 백악관그림은 백악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이트하우스라고 써있었고 테게 기호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이은미            화이트라는 색깔이..사람들한테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는 색깔인데 우리는 진녹색과 파란색이고 영국왕실을 문장은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복잡한데 우리는 빈티나 보이잖아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인가는 다르잖아요.
- 사회자**            **그런 문장은 펜찮았나요?**  
이은미            그런 것은 권위가 보이잖아요.
- 김지선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문장이 영국왕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장을 보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 이은미            색깔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잡한 색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 마크는 무엇 일 것 같으세요?**  
김지선            그게 봉황일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보여 주고**
- 사회자**            **처음 보시는 분? 1명.**
- 사회자**            **어디에서 봤나요?**  
좌 중            대통령 직무실이요.
- 사회자**            **대통령 전용장이라고 까지 알고 있었나요?**  
모 두            모름.
- 사회자**            **대통령문장은 누가 쓰는 건가요?**  
이은미            정부의 대표하는 문양으로요.

- 사회자**                    **대통령만 쓸 수 있는 표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일 것 같으세요?**  
 이은미                    차에 붙어 있잖아요. 번호판이요.
- 조희원                    대통령 도장찍을 때(결재할 때.)
- 김지은                    표창장.
- 황윤미                    다른 나라에서 운동선수한테 축전을 띄울 때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마음에 드시는지 어떠세요?**  
 -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 8명.
- 사회자**                    **이유는요?**  
 김송이                    화려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색상도 안 좋고 마치 결혼청첩장 같은 이미지예요.
- 황윤미                    무늬를 돋보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탕이 파란색이면 돋보이지 일 수 없고 뭔가 권위적이고 위엄이 있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안 느껴져요.
- 이은미                    청와대 표장은 초라한데에 반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인명한 자리잖아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많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문장은 초라한데 비해서 개인이 쓰는 것은 너무 권력의 집중을 상징한다는 이미지이고 옛날의 권력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게 청와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까 것이 표장이라면 괜찮은데 저게 대통령 혼자 사용하는 것이라면 너무 화려하지 않나 싶고 디자인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파란색과 금색으로는 전혀 눈에 딱 띠지 않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기자회견할 때처럼 커튼에 써 있는 검은색에 군청색에 금색을 넣는다면 지금 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 나상연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있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청와대만큼 이상하지는 않지만 가운데 이상하게 무궁화가 갑자기 어색해 보여요.
- 이은미                    봉황이 대통령이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처럼 해서 대통령이 우리를 수호한다는 느낌도 받게 해요. 그거는 안 좋지요.
- 김지은                    무궁화가 매치가 안되요. 봉황이랑 무궁화랑 어울리지는 않고 색깔도 금색하고 파란색 조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조희원                    파란색이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봉황을 쓴 것이 옛날에 왕 이런 데에서 따온 것 같은데 보통 기억에 확실치는 않은데 옛날에 중국은 용을 쓰고 우리나라는 봉황을 쓰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온 이미지도 있고요.
- 신진경                    익숙해서 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을 준 것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무늬가 견도는 것 같아요.
- 김지선                    비슷한데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익숙하니까 예전에 봤던 이미지가 있어서 익숙한데 저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상연                    조금만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 사회자**                    **안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시는 분? 없음.**
- 사회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으세요?**

- 김지선           파란색을 진한남색이나 고급스러운 자주색으로요.
- 이은미           저거를 대통령표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저거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니까 바꾼다면 저는 표장을 정부의 문장으로 쓰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 사회자**           **정부의 마크가 좋다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 김지선           대통령 전용 마크로 맞는 것 같아요. 봉황이 있으니까요.
- 김지은           동감.
- 사회자**           **외국에 대통령 문양이 기억나는 것은요?**
- 모 두           없음.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 사회자**           **앞으로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뒀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황윤미           참여정부의 모티브에 맞게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다른 개혁 쪽이 정부의 신념이지않아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 신진경           지금 처음 이야기할 때는 실망스럽다는 것은 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 생각을 듣고 사람들이 노대통령을 뽑은 거니까 처음 생각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물론 실정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처음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 나상연           대통령이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일단은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안정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지선           정치적 국제적으로 안정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처음에 뽑을 때 민생고를 확보하고 서민들을 위한 것은 말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실천했다는 느낌이 들게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과거에 대통령들이 끝날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이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 김송이           추진력하고 설득력이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추진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설득력이 있게 자기의 방안이 있으면 설득시킬 수 있는 추진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지은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조희원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은미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니까 항상 처음 대통령 되기 전의 후보였을 때 소신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고 소신을 잃는 순간 민심을 잃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노무현대통령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잖아요. 슬로건이 참여정부면 언론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참여정부에서 참여해야 될 것이 언론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와대 기자접견실을 없앤다고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어떤 정책이 5년 안에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주세요 이런 것은 바라지 않거든요. 항상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대에 있었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참여정부에 가장 모토를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독립이요. 노무현대통령 때는 그나마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칭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관련해 청와대문장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를 바라는지 써주세요. (가장 한국적인 것, 통합과 열린,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평화. 편안함. 깨끗함)**
- 사회자 **이유는요?**
- 김송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비리가 많이 있으니까 정직한 느낌이 들게요.
- 사회자 **정직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요?**
- 김송이 글썄요.
- 황윤미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한 이유는 청와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큰 기장이잖아요. 문장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도 찍혀서 나가는 거니까 뭔가 가장 우리나라적인 것으로 그것만 딱 보면 한국에서 온 그런 것이라고 알 수 있게끔이요.
- 이은미 통합하고 열린 인데요. 지금 생각나는 문장은 나무로 된 큰 대문에 앞에는 태극마크가 되어 있고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신문고가 생각나거든요. 국민과 정부가 통합이 되어 있고 그 정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요.
- 김지선 국민에게 귀기울이는 이라는 이유는 청와대가 대표하는 정부기관이면 대통령이 계신 곳은 국민의 대변하는 임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기울이고 있는 느낌으로요.
- 나상연 평화라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안에서는 귀를 열고 있지 않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닫혀있고요. 집이 편안해야 다 편안하니까 그 안에서부터 평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 신진경 편안함이요. 청와대 이야기할 때 봤을 때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권위가 느껴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청와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바로 문장에 딱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봤을 때도 편안하다 열린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조희원 깨끗함은 청와대 이야기할 때 닫혀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느낌이잖아요. 웬지 비리도 안에서 일어날 것 같고 정직하고 연결이 되어서 깨끗함이 청렴결백한 느낌. 투명함이요. 문장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쓰더라도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하면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 사회자 **심볼마크에서 간단하고 그런 것이 좋으세요?**
- 이은미 예. 아무래도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꾼다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이은미** 항상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청와대라는 말을 바꾸자는 말이 많잖아요. 청와대라는 자체도 왠지 일본틱하고 청와대라고 말을 하고 색깔을 정하라고 하면 모순인 것 같아요. 이름이 이미 청와대인데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색깔을 하라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아요.
- 조희원** 파란색아운 괜찮은 것 같은데 초록색과 같이 안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나상연** 파란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이게는 어떤 느낌이세요?**  
**나상연** 칙칙하고 옛날스럽고요.
- 김지선** 탁한 느낌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70년대스럽고요.
- 사회자** **어떤 색이면 좋을까요?**  
**좌 중** 밝고 투명하고 선명한 파란색.
- 사회자** 청와대인데 다른 색을 쓴다는 것은 안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한 파란색을 쓴다면 괜찮나요?  
**모 두** 예.
- 사회자** **초록색의 안쓰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 3명.**  
**이은미** 연한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 김지선** 초록색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파랑과 초록이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해요.
- 이은미** 채도가 탁한 것 같아요.
- 나상연** 초록색이 땡기는 색깔인데 그런 느낌이 안들어요.
- 사회자**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 바라는 이미지를 적어주세요.(국민과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면 좋겠고, 주체적, 국민의 권력, 민초들의 힘, 청렴결백, 무게감, 존경할 수 있는, 끈은, 편안함, 국민과 함께 하는,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절충적인)**
- 김지은** 대통령이 왕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이나 권위보다는 국민들한테 다가 가는 표장이면 좋겠어요.
- 조희원** 노대통령께서 처음에 이미지 있잖아요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국민의 편에 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 신진경** 편안하다는 것을 썼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 중에서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 어떤 권력집단을 이미지가 강직되어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편안한 이미지가 그렇고 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카리스마에서 자기가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미지요. 대통령의 편안하기 만하다면그거는 그렇잖아요.
- 나상연** 무게감 존경할 수 있는 권위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데게 중책을 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 김지선** 청렴결백아운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이익을 찾게 되는데 대통령이 버리고 청렴결백하면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보고 배우듯이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표장은 그런 가요?**

- 김지선 봉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신비의 세계느낌이강하지요.
- 이은미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이 처음 대통령 뽑을 때부터 국민이 뽑지 않았고 그런 안좋은 과거들이 있는데 노대통령될 때의 이미지는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맞기 때문에 표장을 한다면 민초들이 모여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요.
- 황윤미 주체라고 썼는데 어제 TV보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1위가 한국이 힘이 없다 느낄 때였어요. 그거를 보고 딱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뭔가 지금은 그렇게 힘을 키우기에는 그렇지만 좀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딱 어느 부분에서 힘이 되면 우리가 주체적인 느낌이 다를 수 있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 김송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정부를 대변하는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요한바오로 그런 사람들도 다같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통가족에는 한명이 잘못을 하면 그 가족이 전체가 욕을 먹게 되잖아요. 서로 격려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김지은씨는 현재 표장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 작자쓰는 표장에서 느껴지기를 원하는 의미가 현재 대통령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이은미 그렇지는 않아요.  
황윤미 그렇지는 않아요.
- 조희원 별로 편안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 신진경 봉황이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사회자 현재 청와대문장으로 이 상징물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요?  
모 두 없음.
- 사회자 대통령표장으로 제안할 것은요?  
모 두 없음.
- 사회자 청와대문장이나 대통령표장이 바뀐다면 정부나 대통령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김송이 바꾸게 된다면 혼란하지 않는 선에서 홍보하고 이게 뭔지 몰랐었잖아요.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 황윤미 바꾸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사람이면 저 정도는 알아야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바꿀 때 고심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과 대통령으로써 문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 이은미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지선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한국사람이어서 저 문장을 보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가 나를 대표하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상징하는 뭔가를 생각했을 때 국왕이 없는 대신에 청와대가 나라를 대표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한국이라는 느낌은 좋지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념품을 쓸 수 있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나상연 지금 저게 오래 전에 만들어졌어도 지금도 봐도 괜찮은 것이 될거를 그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가도 괜찮은 마크는 바꾼다면 약간은 현대적으로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그 상태라면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홍보하고  
그러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진경      바꾼다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미지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많이  
따랐으면 좋겠고 분명히 바꾸게 된다면 이 많을 것 같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꾸자는 쪽이 많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절충해서 한다면 잘될 것 같아요.

조희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은 국민한테 서 뚝 떨어져있고 높이 올라가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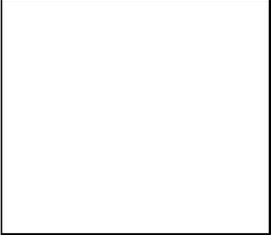
김지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하는데 사람들이 알았을 때 청와대문장이나 대통령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여자 만 26~34세 주부/ 직장인)

좌담회 일시 : 2003년 3월 21일 (월) 19:30시

참석자 명단 :

조미정 5		4 박미애
최수연 6		3 조재연
문복란 7		2 최윤영
이미정 8		1 박선영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영	노량진에 살고 회사는 청담동에 있어요.
최윤영	성북구에서 왔고 종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조재연	구로구에서 왔고 회사는 청담동에 있어요.
박미애	신림5동에 살고 회사는 동대문이에요.
조미정	서초구에 살고 전업주부예요.
최수연	강남구에서 살고 회사는 서초동이에요.
문복란	잠실에 살고 전업주부예요.
이미정	사당동에 살고 전업주부예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미정	돼지 저금통. 이유는 선거기간에 희망이요.
최수연	서민적이다.

박미애	가장 젊은 대통령이다.
박선영	어떤 날은 푸근함이 느껴지고 어떤 날은 카리스마가 느껴지고요.
박미애	그동안에는 당에서 밀어줬다고 봐야 되는데 노무현은 국민이 밀어준 대통령.
<b>사회자</b>	<b>어떤 느낌이세요?</b>
박미애	저희 남편이 노사모 회원이라서 거의 지지자예요.
조미정	편안한 것 같아요. 지도자 그런 역할이 아닐까..
문복란	푸근한 농촌의 아저씨 같아요.
조재연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해 보이고요.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b>
이미정	투사. 저는 부산출신이라서 지역선거할 때 들은 것도 있고 거리에서 부딪힌 것도 있고 그런데 힘이 느껴지고요.
박미애	대통령 갖지 않는 대통령이요. 이유는 저희랑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전에는 대통령하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쉽다갈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완전 카리스마적이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들하고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노무현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좀더 권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조재연	이야기를 들으니 권위적인 것에서는 탈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만연되고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탈피되고 있으니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권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b>사회자</b>	<b>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b>
조재연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요.
최윤영	젊은 대통령,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민들 저희신랑이 자영업하는데 너무 어려워 갖고 너무 힘들다고 집에 와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패기로요.
최수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투명한대통령.
박선영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은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또 그러 실지 않을지 모르지요. 일단 이미지는 그래요.
조미정	제가 바라는 것은 싼체이바로시이 같은데 이미지는 그런데 골고루 국민들한테 베풀 듯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민을 생각해 주는 대통령.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복란	누구를 탄핵하고 했을 때 여론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 자기를 밀어주는 그런 것 같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소설책에 무소니플초로카라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요.
<b>사회자</b>	<b>지금은 어떠세요?</b>
문복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잘 안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b>사회자</b>	<b>대통령의 장점이나 좋은점은요?</b>
조미정	장점은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이미지니까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잘 통할 것 같고 한번 믿어줘도 진짜일 것 같아요.
박선영	그전에는 대통령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노무현대통령 이후에 홈페이지에 가서 했는데 게시판에도 보면 글 올리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저는 노사모에 가입만 했어요.
박미애	자기가 공약하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공약한 것은 임기 내에는 다 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저희신랑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2개월이 줄었어요.
조재연	위연성이 있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미정	쉽게 꺾이지 않는 거요. 다른 기타 대통령들은 신세지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여론이 아닌 여론에 많이 꺾였는데 노대통령은 그런 면은 적은 것 같아요. 인사정책을 봐도 그렇고요.
문복란	장점은 소신이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도 너무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수연	장점은 거의 다 나왔고요.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의 단점은요?</b>
최수연	너무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더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권위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한 이미지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윤영	검사들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는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박미애	권위적이라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권위적인 것보다는 정치 쪽에 명령을 전달하는 쪽에서는 권위적이라야 되고 국민들한테는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차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b>사회자</b>	<b>단점은요?</b>
박미애	너무 풀어주는 것 같아요. 검사 쪽에 나요. 그쪽에는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있고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선영	너무 압도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강압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박미애	오히려 저는 그게 속시원하던데요.
박선영	그렇지만 아무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이미정	노사모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괜찮은 면이 있는데 사이트 같은 거에서 여타 기타사이트에서 선거전에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지만 비판적인 것을 안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요. 비판적인 글이 하나 올라오면 몇 십대씩 붙는데 노사모가 선거 끝나고 나서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이 많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노사모가 최대의 단점이다 장점인 것 같아요.

박미애	노무현대통령은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 때문에 많이 망설였거든요. 당은 싫어요. 처음에는 탈당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나왔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을텐데 민주당에서 물갈이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별로 신뢰가 안가요.
조재연	편안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위엄이 있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은 딱딱한 윗사람으로서 우리러 볼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미정	여자들한테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참여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여성장관들이 나와서 회의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여자들한테 좀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을 동물로 표현한다면요?</b>
조재연	두더지요.
이미정	아귀.
박미애	진돗개.
최윤영	곰.
최수연	어린호랑이. 주름 때문예요.
문복란	침팬지.
이미정	거북이 이미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우직하고 단단한 껍질이요.
박선영	호랑이. 이유는 일단은 너그럽게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요?</b>
최수연	흰색, 이유는 투명할 것 같고 순수한 이미지 정직하고요.
박미애	파란색 이유는 신뢰감에서요.
이미정	무색이요.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어떤 색깔로도 변화가 가능한 것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문복란	파란색이요. 이유는 젊어서요.
조미정	황토색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깊이 있는요.
조재연	회색이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지만 날카로워 보이고 양면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박선영	회색이요. 블랙하고 화이트가 섞여서요. 듬직하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최윤영	황토색이요. 시골분위기, 촌스럽고요.
<b>사회자</b>	<b>지난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대통령을 찍으신 분? 3명.</b> - 이회창씨라고 하신 분? 3명.
조미정	투표 안했어요.
이미정	권영길씨.
<b>사회자</b>	<b>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과의 이미지는 매치가 되는 것 같으세요?</b>

좌 중	잘 맞는 것 같아요.
사회자	<b>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6명.</b> -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2명.
사회자	<b>청와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b>
최윤영	문 두드리기 힘든 곳. 솔직히 청와대는 높은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딸을 데리고 그쪽에 갔을 때도 정문밖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조재연	경비가 근방에 꼭 서 있고 하니까 웬지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박미애	권위적이다.
박선영	어렵다. 힘들다, 높다.
조재연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되고요.
최윤영	차가 들어가도 검정색 차가 들어가고요.
이미정	권위적인 것 같아요.
문복란	높은 담으로 해서 안에도 들여다볼 수 없을 것 같은.
최수연	높은 담. 삼엄한 경비.
조미정	군대같아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 청와대하고 군대하고 같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회자	<b>노무현대통령 당선되기 전과 후의 청와대 느낌은 어떠세요?</b>
최수연	좀더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박선영	아직 까지 청와대 말만 들었을 때는 차이는 없어요.
최윤영	저도 비슷해요.
문복란	동감.
조미정	청와대하고 노무현대통령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대통령은 아저씨 같고 청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자	<b>청와대를 의인화한다면 나이는요?</b>
문복란	70세정도.
조미정	30, 40대.
최수연	50대.
사회자	<b>40대는 젊은가요?</b>
조미정	노무현대통령은 군인 이미지가 직결되는데 완강하고 힘이 있고 누가 들어가려고 문 두들기면 안되? 하고 딱 막고요.
사회자	<b>50대는요?</b>
최수연	말끔히 차려입은 50대의 사람들이요. 신선하고 나이가 드신 편이에요.

이미정	50대요. 어중간한 나이죠.
<b>사회자</b>	<b>그 정도는 일을 잘하나요?</b>
이미정	일도 웬만치 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나태함 같은 것도 있고요.
문복란	70대요.
<b>사회자</b>	<b>70대면 나이가 드신거지요?</b>
문복란	드신거지요.
박미애	옹고집 스텝게 쉽게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어요.
조재연	30대후반이요. 한참 때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항상 단정하게 나무도 깎여있고 청와대 지붕의 푸른 것도 강한 색깔이고 약간은 기반이 잡힌 듯하고 깔끔하고 단정되고 깨끗한 이미지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최윤영	60대 같거든요.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가 있고 50대는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놓고 60대로서 정치에 입문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 사람이요. 집안에 돈도 안정이 되고요.
박선영	30대요. 이제 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요. 30대 초반이요.
<b>사회자</b>	<b>청와대라는 사람의 취미는요?</b>
이미정	골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지요.
문복란	골프요.
최윤영	수영. 아침마다 수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요.
조재연	수집같은 건데 미술품이라든지 작품 그런 것이요.
박미애	처음에는 골프라고 생각을 했다가 감시카메라로 CCTV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해요.
최수연	조깅. 나무도 있고 하나까요. 처음에는 골프를 생각났었는데요.
조미정	낚시요. 군인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낚시하면 시간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낚시가 취미가 아닌데 오빠가 취미예요. 낚시가면 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한대요. 남들이 봐서는 생각이 데게 많을 것 같다 엄청난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 생각도 안 한대요.
박선영	취미는 금품수집이요.
<b>사회자</b>	<b>청와대가 좋아하는 음식은요?</b>
이미정	보양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건강생각해서요.
박선영	삼겹살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최윤영	부대찌개요.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햄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문복란	된장찌개요. 70대가 됐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된장찌개가 최고 일 것 같아요.

최수연	칼국수.
조재연	한정식같아요. 깔끔하고 나물예요.
박미애	나이가 70이니까 건강보양식품이요. 닥치는 대로 먹고 녹용, 곰쓸개 그런 것을 먹을 것 같아요.
조미정	다 잘 먹을 것 같아요.
<b>사회자</b>	<b>청와대가 좋아하는 술은요?</b>
조미정	소주.
조재연	양주. 이유는 정돈된 알마니 양복같은 것을 입고 젊은 남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문복란	따뜻하게 정열적으로 술을 마실 것 같아요.
최윤영	백세주요. 소주보다 조금 높고 양주보다 싼 백세주요.
박선영	양주요.
박미애	양주든 포도주든 오래 되고 귀한 술이요.
이미정	양주요.
최수연	양주요. 나이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요.
<b>사회자</b>	<b>청와대는 어느 정도 청렴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까?</b>
박미애	돈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냥...
조재연	적당히 기회적이기도 하고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상황을 봐서 청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기적이고 반반이에요.
박선영	나이를 30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청렴하지 않다 초반부터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나이를 잘못 잡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잡으면 50대 정도요. 취미나 음식은 안 바뀌고요.
박선영	청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가야 되니까 정확한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이미정	그다지 청렴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욕심이 있고요.
최윤영	반정도 기회주의자.
조재연	반정도 기회주의자
문복란	다 구상하다보니까 처음의 이미지하고 결백까지는 안가더라도 어느 정도선을 유지하면서 고집이 세고 그렇게 유지 할 것 같아요.
<b>사회자</b>	<b>청와대라는 사람은 검소한가요?</b>
박미애	사치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최수연	50대의 여유로움이요.
조재연	검소량은 먼 것 같아요. 사치까지는 모르지만 검소하지는 않고 잘 쓰고요. 돈이 없어서 못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 박미애           검소할 것 같아요. 걸으로는 품위 있고 다가설 수 없겠끔 하지만 자신한테는 돈을 쓰더라도 안으로는 검소할 것 같아요.
- 이미정           여유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세울만한 것 같아요.
- 박선영           위치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하는데 험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모상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좀 고가품으로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사적으로는 심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 조미정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 사회자           **검소에 가깝다하시는 분? 4명.**  
- 사치에 가깝다 하시는 분? 4명.
- 사회자           **청와대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 7명.
- 박미애           능력은 없지만 목소리는 커요. 이유는 이제 까지 정부를 보면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지요.
- 사회자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요?**
- 박선영           능력이 없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갈 것 같고 능력을 발휘를 했을 것 같아요. 능력을 좋은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 이미정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 박미애           학교를 보더라도 선배가 하던 것처럼 나중에 후배도 그렇게 하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치려도 해도 너무 부조리가 많았기 때문에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따라가는 것이 더 낫다 싶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 조재연           비슷한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약간은 틀린데 그게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적인 것이 그랬고 나아가는 과정이니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사회자           **능력은 있는데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그랬네요?**
- 좌                예.
- 문복란           본인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작용을 하지요.
- 박미애           힘은 있지만 지켜보기만 하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방관자로서 그렇게 했지 아예 뒤에서 부조리를 시켰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사회자           **청와대라는 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 박미애           “이렇게 해”하고 명령할 것 같아요.
- 최윤영           앵무새 같거든요. 밑에 다 갖다주면...내 줯대는 별로 없고 이거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휘둘리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왔었잖아요.
- 이미정           요즘 인어아가씨에서 장서희씨요.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 시어머니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보면 일하는 아줌마라든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 맞는 사람은 왕따 시키는 것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드네요.

박선영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요.
최수연	권위적일 것 같아요.
조미정	로봇.
문복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잘 안해 줄 것 같아요.
박미애	군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대통령들이 군인출신이였잖아요. 김영삼 때부터 문민정부 해가지고 전에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다 군인출시이였잖아요. 정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까 그래서 전혀 능력발휘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b>사회자</b>	<b>인어아가씨는 보시나요?</b>
모 두	예.
<b>사회자</b>	<b>청와대 하면 성별은요?</b>
모 두	남자.
박미애	남자 중에서도 조선시대 보수적인 남자요.
<b>사회자</b>	<b>청와대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b>
최수연	푸른색. 이유는 기와집이요.
이미정	파란색이요. 청기와에다가 가장..어린이날행사 때 짙어요.
박선영	초록색이요.
조미정	회색이요. 이유는 대리석같이 차가운 이미지요.
박미애	검정색이요. 무거우면서 검정색이 사람들이 다 찾잖아요.
문복란	파랑색. 좋고 나쁨은 없어요.
최윤영	파란색.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과 비서실을 포함해서 청와대의 모든 인력의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b>
박미애	대변인이요. 그 사람 때문에 남북정상회담도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능력도 안되는 사람을 앉혀놨을까 싶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의심이 가요.
조미정	너무 방대해요.
최윤영	여자 대변인이나 법무부기관이 ..무시하고 물같이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b>사회자</b>	<b>지금은 잘못하고 있나요?</b>
최윤영	강금실씨는 국회의원 된지도 얼마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미정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인원수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는 것 같고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b>사회자</b>	<b>방대하고 일도 잘못하고 그런 가요?</b>
이미정	몇몇이 그런 것 같아요.

문복란	혁명가적인 것 같아요.
조재연	방대하고 오합지졸 같아요.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있는 것 같아요.
이미정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b>사회자</b>	<b>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으세요?</b>
이미정	꼭 나이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많이 부각됐잖아요. 저는 학교에 좀 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 당시에 그때 교사적령이 단축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퇴직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이가 꼭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년 앞두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다는 아니에요.

★ 대표 상징물

<b>사회자</b>	<b>청와대나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 좋겠다 하는 것은요?</b>
조재연	호랑이요. 이유는 강하고 강직한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커가려면 강인함이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윤영	라이거요. 이유는 분단되어 있잖아요. 힘을 합치면 라이거처럼 다른 동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조미정	붉은 악마요. 그때처럼 커질 수도 있는 나라이고 악마는 안 좋잖아요. 청와대의 이미지도 있고 단합된 힘도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월드컵 때 붉은 악마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붉은 색은 좋은데 왜 악마가 따라갔나 싶은데요.
박미애	...금방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요.
최수연	태극부채요. 이유는 한국적이고요.
박선영	우리나라가 처음 나왔을 때 축구의 그런 로고보다는 우리나라의 좀더 발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정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에도 목표에게도 박수를 쳐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도 격려를 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손바닥이요.
문복란	말씀하신 것이 다일 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둘기를 할까 네잎크로바를 할까 했는데 저도 붉은 악마요.
<b>사회자</b>	<b>우리나라의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b>
박미애	붉은 악마. 이게 우리는 국민들이 화합을 하면 뭐든지 다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정	태극이요.
최윤영	한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상징이 한복인데 지금 한복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한복을 너무 안 입거든요. 그거를 세계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박선영	붉은 악마요.

조재연	태극이라고 했잖아요. 빨강 파랑 노랑 있는 삼태극이요. 빨강, 파랑, 노랑 세개가 돌아가는 것이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통사상 천지인사상이잖아요. 조화로운 동양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 있기도 하고 동양적인 수록에서 상징인 것 같아요.
최수연	태극이나 무궁화요.
조미정	붉은 악마에서도 글자라든지 언어를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태극무늬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문복란	조재연씨 의견에 동감.
<b>사회자</b>	<b>북한까지 포함한 상징물은요?</b>
최수연	한반도지도. 남북이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요.
조미정	마늘이요. 단군신화요. 사서도 마늘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정	삼태극이라고 생각해요. 조재연씨 의견에 동감.
박미애	고구려가 상징할만한 것이요. 삼국통일을 했으니까 그런 이미지요.
조재연	북한까지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거슬러 가서 공통점을 찾아야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상반되고 틀리니까 융합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전통적으로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b>사회자</b>	<b>청와대 문장이라는 마크를 아시는 분?</b>
박미애	문자 9자가 써있는 것이 아닌가요.
최수연	파란색에 청와대 그림이 그려 있는 것이요.
조재연	봉황이요.
이미정	봉황이요. 청와대문장이요.
최수연	청와대 있고 봉황이 있는 것이요.
<b>사회자</b>	<b>청와대문장을 보여 주고.</b>
<b>사회자</b>	<b>보신적이 있나요?</b>
이미정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b>사회자</b>	<b>보신 분? 6명.</b>
<b>사회자</b>	<b>이 문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으세요?</b>
박미애	청와대 대변인이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최윤영	인터넷사이트요.
박선영	뱃지요.

이미징	옥쇄 처럼 도장예요.
사회자	<b>청와대 문장이 어떠세요?</b> -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없음.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3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5명.
사회자	<b>마음에 드시는 이유는요?</b>
최수연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최윤영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문복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요.
사회자	<b>마음에 안드는 이유는요?</b>
박미애	한번 보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계속방송을 통해서 몇 번 나왔을텐데 기억이 없거든요.
박선영	집을 굳이 넣어야 되나 싶고 색깔도 촌스럽거든요.
조재연	집이 세 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로 딱 떨어 수 있는 것을 잡아서 넣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인왕산을 상징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와닿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조미정	촌스럽고 구시대적이고요.
이미징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자	<b>청와대문장을 바꾸는 것이 좋다하시는 분? 7명.</b>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 1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없음.
박선영	바뀌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같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b>바꾸자는 이유는요?</b>
박미애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복란	간단하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최윤영	산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재연	눈에 띄고 기억에 남을만한 강인한 이미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딱 보고 무슨 집인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다라는 포인트대로 잡아서 부각을 시켜서 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첨가 시켰으면 좋겠어요.
조미정	단결된 힘이 있게 보이게요. 너무 딱딱해요. 그림을 딱 봤을 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b>대통령 표장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b>
이미징	봤지만 표장 이라는 것도 보기는 봤을텐데 봉황이야기도 했는데 명칭을 잘 모르니까요.
사회자	<b>대통령 표장을 보여 주고.</b>

-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8명.

**사회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으세요?

좌 중 국가에서 상줄 때요.

이미징 대통령서류의 결재판.

조미정 연설하는 탁자에 있던 것 같아요.

박미애 예전에 시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징 메달에요.

**사회자** 대통령표장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5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없음.

- 보통이다 하시는 분? 3명.

**사회자** 마음에 드시는 이유는요?

이미징 봉황이 희망이나 그런 것이 표시되어 있고 국화도 있고요.

**사회자** 느낌은 어떠세요?

이미징 옛스러움을 느끼는 반면에 봉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군사정권시절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권위적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최윤영 굳이 무궁화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박선영 색깔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좋고 모양도 무궁화고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표시하지 않나 싶어요.

조미정 국조가 가치인데 가치를 넣으면 좀 그럴 것 같네요.

최수연 한국적이고 약간은 권위적이고 좋아요.

**사회자** 보통인 이유는요?

조재연 봉황이 한국적이고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봉황이라는 것은 무궁화랑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뭔가 언발란스한 것이 느껴져서요.

박미애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하면 어색하고 그런데 박혀진 이미지라서 탈피하기는 힘든데 좀 딱딱해요.

**사회자** 대통령 표장은 바꾸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 1명.

-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 5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2명.

**사회자** 바꾸는 것이 좋다 하시는 이유는요?

조재연 봉황이랑무궁화가 너무 안 어울리고 봉황이 너무 많아서 크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게 넣었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자**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하시는 이유는요?

박미애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전에 받은 상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미정	...
사회자	<b>중간인 이유는요?</b>
최수연	무궁화가 썰렁하잖아요. 봉황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자	<b>외국정부 상징물을 보신 것이 있나요?</b>
최윤영	미국은 성조기요.
사회자	<b>느낌은 어떠셨나요?</b>
최윤영	강인한 것 같아요.
이미정	백악관 거요. 느낌은 언제나 노리고 있다.
최수연	호주요. 캥거루가 초록색 노란색으로 있어요. 상징물로는 간단하게 잘한 것 같아요.

★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사회자	<b>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심을 두어서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은지 바라시는 점은요?</b>
이미정	경제를 살려야지요. IMF때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박미애	숨기지 말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박선영	여성들이 좀더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미애	아기를 키우다보니까 아이를 맡길 때가 없는데 아이를 마음놓고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재연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다보니까 소외시 되는 것이 여자거든요. 여자는 짝리고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남자도 힘든데 여자는 더 힘들잖아요.그런 부분이 경제를 살리고 차별을 많이 없애겠다고 하는데 금방 되지는 않으니까 주력해서 능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미정	우리나라가 부채가 얼마이고 그렇다고 방송에서 솔직하게 알게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다 솔직하게 숫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되는 구나 열심히 가니까 여론 쪽에서 확실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윤영	의료보험도 매달마다 올리는 것 같거든요. 거의 3개월에 한번 씩 통장을 보면 잔고가 별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그만큼 내야 한다고 강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돈 못 벌면 줄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수연	지역감정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박미애	저는 아이들이 커가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학원 안 다니면 친구를 사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데 왕따를 안 시키려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치우쳐서 사는 것이 벌써부터 지치는 것 같은데 학원이나 과외 없어도 학교 공부만 해도 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만 넣고 끝난데요. 더 낳을 생각을 못하네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있으면 좋을지 적어주세요.
- 사회자** 어떤 의미로서 답았으면 하시나요?  
**최윤영**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의미를 답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딱딱하니까 좀더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해서요.
- 박미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사실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쉽게요. 청와대마크 구나 뒤돌아서면 잊혀지지 않게요.
- 최윤영**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거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요.
- 이미정** 국민에게는 희망과 우리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찢겨졌으니까 화합을 나타냈으면 좋겠고 대외적으로는 힘을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하기가 힘든나라니까 여러 가지로 개방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요.
- 조미정** 청와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뺏지 식으로 단순하게 한 건데 쉽게요. 청와대 그러면 골뱅이 그런 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요.
- 조재연**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변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족적인 민족의 정신 같은 것을 담고 있고 약간 우리나라를 약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의도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사실적이고 집만 있고 집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게 아니라 민족정신이랄까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전통적인 것까지 가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 최수연** 대화참여정부해서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공정 투명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바뀐다면 어떤 색깔이 좋을 것 같으세요?  
**조미정** 푸른색이요.
- 최윤영** 초록색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 박선영** 초록색은 좋은데 파란색을 바꾸면 좋겠어요. 초록색은 푸르름을 강조하거든요. 파란색도 이유는 있겠지만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사회자** 파란색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조미정** 청와대니까요.
- 이미정** 칼라는 초록파랑은 괜찮은데 칼라 자체가 딱 봤을 때 촌스럽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 조재연** 색깔도 탁하잖아요.
- 최수연** 밝은 파랑색으로요.
- 사회자** 파랑이라고 하신 분은 밝은 파랑인가요?  
**좌 중** 예.
- 박선영** 하늘색이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파란색과 초록색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 문복란** 맑은 파랑이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 사회자**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미정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정직함어요.
- 문복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최수연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무궁화를 태극으로 바꾸는 것은 모르겠는데 특별히 바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조미정 굳이 바꾸자면 하늬탈이요. 지금 대통령하고는 이미지가 맞고 하늬탈은 평화사랑 이미지로요.
- 박미애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넣으면 봉황같이 신비로운 느낌이 없고 무궁화도 거기에서 조금 바꾸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 조재연 봉황이 중국에서 황제가 썼던 것이니까 국가의 가장 높은 황제가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깃털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인 것은 있고 약간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형상화시키고 권위적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넣은 것 같은데 두개가 디자인이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만 쓰는 표에 있는 거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봉황하고 한국이라는 의미로 무궁화를 넣었는데 두 개가 안 어울리니까 뭔가 조금 바꾸어서 잘 어울릴 수 있고 약간 현대적으로 봉황도 다시 해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최윤영 지금 무궁화만 빼고 삼색의 태극무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인 삼태극을 넣을 수 있다면 무궁화보다는 그게 더 나올 것 같아요.
- 박선영 정직함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꾼다면 오히려 무궁화가 나라의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반되게 어울리거든요. 새하고 국화하고요. 굳이 변화를 원한다면 봉황을 깃털이나 그런 것을 수정만 하는 것이 좋겠지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과 대통령 표장에서 건의할 만한 사항은요?**
- 조미정 청와대문장에서 눈에 확 띠게 색깔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 박미애 서울시도 마크가 있잖아요. 단순하지만 보면 딱 알고요. 세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로고였으면 좋겠어요.
- 박선영 이게 고유의 문장이지만 이 안에 어떤 것을 새롭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미정 청와대를 강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마크면 좋을 것 같아요.
- 문복란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CI 변경 관련 이미지 조사**  
(여자 만 35세 이상 직장인/주부)

좌담회 일시 : 2003년 3월 22일 (화) 19:30시

참석자 명단 :

이윤희 5		4 운영남
안병진 6		3 신혜순
김명숙 7		2 김용인
이정아 8		1 이민자

사회

**\*\* (...)부분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임.**

사회자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자            개포동에 살고 있고 세무 일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둘이 있어요.

김용인            잠실에서 왔고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신혜순            영등포에서 왔고 초등학교 2학년 딸하나 있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운영남            동대문구에서 왔고 9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전업주부예요.

이윤희            마포에서 왔고 고등학생, 중학생 딸이 있고 전업주부예요.

안병진            강서구에서 왔고 3세 아기가 있어서 아기 키우느라고 집에 있고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김명숙            성동구에서 왔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셋이고 전업주부예요.

이정아            신도림동에 살고 있고 전업주부이고 아기가 없어요.

**★ 대통령 / 참여정부 /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노무현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김용인            소박하신 것 같아요. 부담이 없이 저희들 국민들 앞에 굉장히 친근감이 다가 오는 것 같고요.

- 사회자**                    **소박하다는 것은 좋은 뜻인가요?**
- 김용인                    아무래도 긍정적이지요.
- 윤영남                    어렵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부담이 없어요.
- 이정아                    대통령이라고 하면 권위적이고 여태까지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편해요. 왜냐하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우리한테 공약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구나하고 신임은 가거든요.
- 김용인                    청와대를 개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고 그게 전두환 시절하고 차이가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 안병진                    노무현대통령을 찍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같이 해오신 것 방침은 긍정적으로 잘 해나가 신다는 속단하기는 일러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유는 하시는 것이 겸손하시고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북한산 외곽순환로도 옛날 같았으면 그게 환경이 파괴되거나 말거나 추진하는 되는대로 밀어붙이고 그랬을 텐데 정부하고 불교계하고 전문가 환경단체해서 7월달까지 몇 일정도해서 1주일에 몇 일씩 만나서 잠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선택하는 것을 봐도 마음에 들었고 출범할 때 취임식할 때도 단상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여태까지 정부가 출범되면서 그랬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이민자                    지금 까지 해오신 대통령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말 되면 친인척비리가 자꾸 나와서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이 지금부터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앞으로 지금 자세로 계속 꾸준히 나가셔야 할텐데 염려도 되고 국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것이 좋아요.
- 이윤효                    우선 젊으시니까 친취적이고 좋고 전 대통령은 연세드시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러거든요. 젊으니까 건강은 보장이 되는 것 같고 그전보다는 권위적인 것이 줄어들고 긍정적이예요. 그리고 파병도 보니까 많이 토론을 많이 하시나봐요. 여러 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으로 방법을 택하신다는 방법이 국민하고 다가가고 혼자 다 독단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좋아보이더라고요.
- 김명숙                    친근하고 대통령께서 어렵게 공부도 하시고 그런 상황을 잘 아시니까 서민들이 형편도 잘 아실 것 같고 특별히 자녀분들을 특별하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좋고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김용인                    대통령 영부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부인께서도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주방에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영부인께서 한번도 비서진들이 식당에 영부인이 거기까지 출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부인께서는 세심한 것까지요. 좋게 말을 하면 두분이 다 그런 쪽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 이윤효                    서민적인.
- 김용인                    친근한 대통령
- 김명숙                    젊고 친취적이다.
- 사회자**                    어떤 것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 좌 중 서민적
- 김용인 이미지 가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이윤효 신문에서 봤는데 젊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걸러서 하지 않고 생각대로 직선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고 가끔 대통령이 언어에서 안 나올 말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용인 대통령으로써는 해야 될 말 같은 것을 안 거르고 하는 것 같아요.
- 이정아 아직 그렇게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장관들한테 말을 낮추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좋았던 점이 민생이면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대변인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을 봐서도 직선적이고 말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 김용인 직접 나서서 장관들 모여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말투 자체가 걸끄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 신혜순 너무 서민적인 것만 보이면 군주인데 카리스마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왕이면 세 보이고 다른 것으로 국민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러다보면 알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뭐든지 끝을 봐야 아는 거니까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동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요?**
- 이윤효 귀여운동물은 아니고요.
- 윤영남 소, 우직함 때문에.
- 이정아 거북이.
- 이민자 곰.
- 김용인 곰하고 닮은 이미지. 외모가요.
- 윤영남 소의 똑심이나 우직함이 있더라고요.
- 이정아 웬지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뭔가 성취를 할 것 같아요.
- 이민자 곰은 외모도 그렇고 곰 하면 약간 우둔한 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 사회자 노대통령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나요?**
- 이민자 주위의 장관들의 보니까 김대중대통령을 모셔서 앞으로 북한문제에 대해서 상의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해야되지만 그래도 결정권은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약간 모자라는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색깔은요?**
- 이윤효 파란색.
- 김명숙 붉은색.

운영남	붉은색.
신혜순	노란색.
이정아	무지개 색이요. 웬지 제가 이미지를 연상해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김용인	검정색.
이민자	어두운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인	이미지가 투박한 느낌이요.
<b>사회자</b>	<b>파랑색이라고 하시는 분? 2명.</b>
	- 빨강색이라고 하시는 분? 1명.
	- 노랑색이라고 하시는 분? 2명.
	- 어두운 색깔이라고 하시는 분? ? 2명.
	- 무지개색이라고 하시는 분? 1명.
이정아	무지개의 의미는 잘 모르니까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색이라고 단정짓기는 그렇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b>사회자</b>	<b>파랑색은요?</b>
김명숙	파랑은 희망을 걸고 싶어요.
이윤희	애교 있고 부드러운 면은 안보이고 우직한 면 가운데 온화한 면이 있는데 첫째 볼 때는 온화한 면 보다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파고드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	붉은색 이유는요?
운영남	소라고 했으니까 소는 붉은 색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정열적이고 진취적이고요.
<b>사회자</b>	<b>노랑색의 이유는요?</b>
신혜순	웬지 딱 떠오르는 것이 노사모인데 느물느물 거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말 테게 안 듣게 생겼어요. 의외로 말을 안듣는 사람일 것 같아요.
<b>사회자</b>	<b>어떤 것이 그럴 것 같으세요?</b>
신혜순	좋은 쪽으로 하면 주관이고 나쁜 쪽으로 하면 고집이 쉰 것이요.
안병진	선거 때 노사모가 어울렸던 것 같아요.
<b>사회자</b>	<b>검정이라는 느낌은요?</b>
김용인	우직하다는 것이요. 고집스럽고요. 나쁜 쪽은 아니고 외모에서 풍기는 것과 성격하고 걸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맑은 느낌은 없어요.
이민자	동감.
<b>사회자</b>	<b>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서 이미지가 매치를 하는 것 같으세요?</b>
안병진	내각 구성할 때 보니까 장관들이 창동문화 관광부도 그렇고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하여튼 참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딱딱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어디에서 저런 인재가 있었느냐 그래서 데게 좋아보였어요.
<b>사회자</b>	<b>청와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b>

- 이정아 높은 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 하면 대통령이 사는 곳인데 우리가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대통령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 이윤효 처음에 파란지붕이잖아요. 좀 밀폐되고 그랬는데 개방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점점 옛날보다는 부드러워지고요.
- 김용인 요즘은 견학도 많이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관광차 그런 것으로 해서 학교자모회 그런 것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더라고요.
- 윤영남 개방이 됐어도 저는 아직도 제가 안가봐서 그런지 멀어요.
- 김용인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 안병진 문턱이 높고요.
- 이민자 청남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린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어요.
- 김명숙 여태까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데였거든요.
- 신혜순 청와대 하면 그냥 대통령이 사는 집이고 집무를 보는 곳 국민은 그렇게 엄숙하게 보지만 엄숙해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 같아요.
- 사회자** **점점 이전보다 좋아졌다,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과 후의 청와대 느낌이 달라지셨나요?**
- 김용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신혜순 전두환대통령께서는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만만해보였지요. 그런데 만만해 보이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인 전두환대통령때 이순자여사가 사치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후부터는 청와대 그릇부터 너무나 많이 바뀌어지고 그런 말들을 많이 오고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그대로를 사용하고 그런 것도 바꾸지 않고 보존하고 하니까 소비를 안하고 대통령영부인부터 그런 것을 실천하는 자체가 소비성이 없고 받아들이기가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 이윤효 내부시설에는 치중을 안하는 것 같아요. 마루장판이 깔려 있는데 들떠 있고 김대중대통령 때부터 그런 것은 돈 드는 실내장식은 안 했었나봐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실내는 서민적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사회자** **노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있다면요?**
- 김명숙 저는 노대통령 때가 아니라 그 앞에 김대통령 때부터 그때도 개방을 했으니까 그때의 이미지이지 지금 특별히 별 다르게 그런 것은 없어요.
- 김용인 김대중대통령부터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신혜순 지금은 청와대보다는 청남대 쪽에 관심거리예요.
- 이정아 제가 청와대 안은 안 가봐도 그 옆에 경북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 있어서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나무도 정말 많아서 좋았는데 청와대라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엄격하고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는 더 좋아졌어요. 이미지가요. 웬지 가도 사람들이 많이 터치를 안 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다녀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고요.

**사회자** 청와대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나이는요?

좌 중 40대.

신혜순 김대중대통령때는 청와대 나이가 70세 같았는데 지금은 40대요.

김용인 지붕도 파랗고 느낌이 젊다는 느낌이요.

이정아 대통령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신혜순 30대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민자 50대, 60대로 보는데요. 왜냐 하면 밖에서 보면 지붕 같은 것이 옛날 기와지붕 목조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의 기와집을 상징한 것 같아서요.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보여요.

**사회자** 청와대는 취미가 뭘 것 같으세요?

이윤희 정치하는 취미요.

윤영남 청와대거기에 잔디가 좋으니까 화초.

김용인 골프. 잔디가 짝 깔려있고 운동하기예요.

이정아 조깅.

김명숙 일단은 대통령이 직무하고 그런 것이 연상이 되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취미일 것 같아요.

**사회자** 청와대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좌 중 된장찌개.

**사회자** 이유는요?

김용인 대통령에 따르세요.

윤영남 노대통령이 잘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윤희 그런 것을 좋아한대요.

안병진 칼국수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청와대가 술을 좋아한다면 어떤 것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좌 중 동동주, 막걸리.

이정아 양주는 아닐 것 같아요.

**사회자** 청와대는 청렴결백하다는 느낌인지 어떠세요?

이정아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민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윤영남 돈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사회자** 그 전에는 안 그랬나요?

모 두	예.
이정아	관심 없었어요.
<b>사회자</b>	<b>검소해 보이나요?</b>
이정아	지금은 검소해 보여요.
김용인	옛날에는 사치 느낌이 들었는데요.
<b>사회자</b>	<b>청와대는 능력이 있어보이나요?</b>
좌 중	능력은 있게 보이지요.
<b>사회자</b>	<b>능력이 있게 보이는 이유는요?</b>
이윤효	연금 나오지요. 5년 후에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윤영남	패기가 있어 보여요. 느낌이에요.
이정아	한나라를 대표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웬지 다 이루어질 수를 있을 것 같아요.
김용인	지휘능력이에요.
<b>사회자</b>	<b>청와대는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b>
안병진	아랫사람을 예우해 줄 것 같아요.
이정아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민자	예우를 하면서도 약간은 과묵하고요.
김용인	자기표출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민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우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개개인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b>사회자</b>	<b>아랫사람한테 잘할 것 같으세요?</b>
이윤효	잘하고 밑에 사람은 뭔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잘해도 위에서는 층을 없애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대통령이니까 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있어서 깎듯이 할 것 같아요.
안병진	윗사람이 예우를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다 잘할 것 같아요.
이정아	그런데 너무 잘해 주면 사장님도 밑에 사람한테 너무 잘해 주면 고마워해서 잘하는 반면에 깔보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민자	그런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신혜순	그게 참 좋아 보이는데 월권을 침해하지 않고 만약에 침해를 하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월권행위가 넘으면 칼이질 것 같아요.
이정아	그게 때가 안 묻아서 그런 것 같아요.
<b>사회자</b>	<b>청와대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b>
좌 중	파란색요. 초록색이요.

- 이윤희            나무가 많으니까요.
- 사회자            청와대는 비서진을 포함해서 근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신혜순            공무원에 대한 별로 그런 것은 안 좋아서요.
- 이정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믿고 하는 거니까요.
- 이윤희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 이정아            대통령 따라 가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일하는 사람들은 팬클럽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 이윤희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광이겠지요.
- 안병진            노대통령이 일단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분들도 잘하실 것 같아요.
- 윤영남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점은 없나요?
- 이정아            그거를 빌미로 사기를 안쳤으면 좋겠어요.

★ 대표 상징물

- 사회자            청와대나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 좋겠다 하는 것은요?
- 신혜순            전에는 무궁화꽃이었잖아요. 대나무
- 이정아            소나무
- 윤영남            소나무
- 김명숙            소나무
- 사회자            소나무라고 하시는 분? 6명.  
대나무라고 하시는 분? 1명.
- 사회자            소나무의 이유는요?
- 이정아            변치 않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요.
- 김용인            동감.
- 신혜순            청와대는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음식은 죽순을 생각했고 전에 청와대 하면 생각나는 것은 대나무가 생각이 났거든요. 참고도 마찬가지로요. 대나무는 꺾고 쪽쪽 뺄는 것이 4군자의 하나이고요.
- 사회자            어디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가요? 아니면 기대감인가요?
- 신혜순            기대감 같은 것은 없어요. 청와대 하면 그 생각이 딱 떠오르고 지금은 젊으시고 하니까

강직하고 쪽쪽 날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요.

**사회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상징물은요?**

이윤효

남대문.

이정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4계절.

윤영남

설악산

좌 중

제주, 경주

신혜순

한강.

이윤효

남대문의 이유는 국보 1호이니까 옛날 건축물도 외국인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이요. 왕조시대 때의 건물이고 상징적으로요.

안병진

한강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이 일어났던 곳은 강이나 물을 끼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강이 그거의 근원으로 해서요.

신혜순

세느강은 조그만데 한강 같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윤영남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난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정아

한복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김용인

우리나라 특징이 한복이잖아요.

이윤효

전통식품이요.

이민자

김치도 우리나라 사람은 저항력이 생겨서 사스가 안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

**사회자**                    **북한까지 포함해서 대표할만한 상징은요?**

이윤효

금강산

이정아

태백산맥.

윤영남

백두산.

안병진

금강산.

윤영남

통일. 가장 염원하는 거니까요.

이정아

한반도 기.

이윤효

우리나라지도 토끼모양인지 그거요.

신혜순

녹슨 기차. 녹슬은 기차길이요.

이정아

통일이 되면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를 이쁘게 안볼 것 같아요.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사회자**

**청와대에서 이용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 좌 중 무궁화.
- 사회자** 어디에서 본 것 같으세요?  
신혜순 생각나는 것은 봉황도 생각나요. 청와대깃발 봉황이요.
- 이정아 봉황은 대통령에 관한 것 같아요.
- 이민자 사이트 들어갔는데 마크가 있더라고요.
- 이정아 국기마크하고 틀려요.
- 사회자** **청와대 문장의 보여 주고**  
- 처음 본다하시는 분? 없음.
- 사회자** 어디에서 보셨나요?  
이민자 사이트에서 청와대 들어가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초록색 그걸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못 봤어요.
- 이정아 낫설지는 않아요.
- 사회자**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은 모르겠어요?  
모 두 예.
- 사회자** **청와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마크인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신혜순 대통령 컵 받침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정아 외국사람한테 선물줄 때요.
- 김용인 청와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접시요.
- 이정아 뻗지.
- 신혜순 그 모양 저금통도 나오잖아요.
- 김용인 구 같은데도 자기 구의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주로 컵에도 새겨져 있고요.
- 신혜순 청와대 위품에 찍는 것 같아요.
- 안병진 우리나라의 상징하는 데요.
- 이정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에도 찍혔을 것 같아요.
- 이민자 근무할 때 표지라든지 그런데 쓸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긍정적이다 하시는 분? 7명.  
-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 1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없음.
- 사회자** **마음에 든다는 이유는요?**  
안병진 심볼 자체가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윤영남	기와집이 우리나라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김명숙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김용인	청와대 느낌이 딱 와요.
이정아	낮설지 않아서 좋아요.
이윤효	초록색이 평화를 상징하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이정아	깔끔해 보여요.
이민자	인터넷사이트에 가서 청와대를 보면서 봤는데 이 마크가 있는 것을 봤는데 눈으로 확대해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없게 봐서 지금 마크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b>사회자</b>	<b>보통인 이유는요?</b>
신혜순	기와가 상징이고 그런 것은 마음에 드는데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요. 청와대, 대한민국해서 동그라미해서 미적인 감각은 없는 것 같아요.
<b>사회자</b>	<b>신혜순씨 의견처럼 그래도 의견이 어떠세요?</b>
안병진	그래도 좋아요.
김명숙	마크대로 안 봤을 때도 그거를 연상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b>사회자</b>	<b>청와대문장은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b>
이정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어도 되요.
이민자	동감.
<b>사회자</b>	<b>언제쯤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b>
좌 중	오래 된 것 같아요.
<b>사회자</b>	<b>오래 된 느낌이세요?</b>
모 두	예.
이윤효	사실적이기는 한데요. 초등학생들도 이해는 빨리 갈 것 같은데요. 미적이기는 한데요.
<b>사회자</b>	<b>청와대문장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 3명.</b>
	- 상관없다 하시는 분? 4명.
	- 안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분? 1명.
<b>사회자</b>	<b>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으세요?</b>
이민자	보완을 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보이고요. 시골스러운 것 같아요.
윤영남	좀 색깔을 조금 바꾸면서 산뜻하게요. 잘못 바꾸면 촌스럽겠지만 밖에 원을 밝은 색이나 그런 색으로 황금색 같은 것으로 바꾸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신혜순	한국사람들은 동그란 것을 좋아하는 편인가 너무 틀에 박히게 동그란 것 때문에 촌스러운 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김명숙	집이 지붕이 세 개로 있는데 양쪽에 없어도 될 것 같고 조금 작게하고 다른 것을 보완을

해도요. 그거는 어떻게 맞추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자**                   **상관이 없다는 이유는요?**  
 이정아                   지금도 괜찮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윤효                   청와대도 쉽고 미국 화이트하우스는 기교는 없고 사실적인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민자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보여 주고**  
 - 못 봤다 하시는 분? 없음.
- 사회자**                   **어디에 쓰일 것 같으세요?**  
 좌 중                   표창장에도 쓰이고요.  
 김용인                   휘장에도 쓰이고요.  
 신혜순                   직무실에도 쓰이고요.
- 사회자**                   **대통령만 쓰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 알고 계셨던 분? 7명.**
- 사회자**                   **어디에서 보신 것 같으세요?**  
 이정아                   대통령하고 연관되는 데에서 많이 봤지 다른데에서는 안 봤어요.  
 윤영남                   뉴스에서 표창장을 줄 때요.
- 사회자**                   **대통령표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마음에 든다하시는 분? 7명.  
 - 보통이다 하시는 분? 1명.  
 -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 없음.
- 사회자**                   **마음에 드시는 이유는요?**  
 김용인                   봉황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이정아                   무궁화가 중간에 받혀주니까요.  
 안병진                   품위가 있어 보이고요.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요.  
 이정아                   고급스럽고요.  
 김명숙                   고급스럽고요.  
 윤영남                   봉황은 어떤 지는 모르지만 봉황 하면 좋은 이미지에요.  
 신혜순                   임금님용포가 봉황이잖아요.  
 이민자                   귀해 보여요. 색깔도 그렇고요.
- 사회자**                   **표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시는 분? 1명.  
 - 상관없다 하시는 분? 1명.  
 - 안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 6명.

- 사회자**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유는요?
- 이민자**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서 저거는 오래 전부터 계속 봐왔던 거니까 색다른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요.
- 김용인** 이걸로도 만족해요.
- 김명숙** 잘 나타낸 것 같아요.
- 이민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편에서 디자인 면에서 더 좋으면 여론을 거쳐서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정아** 불만족은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몰라도요.
- 사회자** 우리나라 청와대 문장이나 대통령 표장 같은 상징마크가 외국의 경우에 봤던 것이 있다면요?
- 이정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 이윤희** 백악관 밖에요.
- 사회자**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 이윤희** 성조기밖에는 기억은 안나네요.
- 신혜순** 하얀해서 집만 생각나요.
- 사회자** 그런 것은 괜찮았나요?
- 이정아** 관심이 없었어요.
- 사회자** 디자인을 보시고 청와대 문장으로 괜찮겠다 싶은 상징물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요?
- 신혜순** 봉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 ★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 사회자**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심을 두어서 국정운영을 했으면 좋은지 바라시는 점은요?
- 이정아** 지금 양파가 너무 너무 비싸거든요. 뭐든지 은근히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재발 제2의 imf 맞았다고 할 정도로 힘들고 취업이 안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안을 해 주면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경제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명숙** 한참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라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공교육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거를 먼저 챙겨야 되겠지만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하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서서요. 지금은 공교육이 뒷전이고 사교육 위주로 되니까요. 학원을 안가면 안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낳아서 6개월이면 사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가 있으니까 심각한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 교육문제에 공교육을 살려주고요.
- 김용인 교육문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학교수업이 없어요.
- 이윤희 선생님들은 진도를 나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태도 없지요.
- 이정아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는 교육이 잘되어 있어요. 잘 살아야 교육이 잘되요.
- 김명숙 한달 수입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고 교육비로 나가요.
- 김용인 양과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교육비만큼 비싸지는 않아요.
- 이정아 저희 아주머니가 종가집 장손인데 캐나다 이민갔어요. 아이들이 교육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너무 잘해 주고 좋네요.
- 윤영남 저는 대통령이 처음 되셨으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의욕적이잖아요. 초지 일관으로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 이윤희 친인척비리는 아들이 하나니까 그렇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이번부터는 그런 것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비리 없게요. 김대통령 아들 보면 그렇게 된 것이 나중에는 폐인으로 되니까 아들도 그런 것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 김명숙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대학공부를 하고도 놀아야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이정아 경제하고 일백상통하는 것이 노인들 노후대책 하는 것도 너무 심각해요. 이제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가 먹는데 나라에서 해 줄 수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신혜순 다른데 쓸데 없는데 쓰지 말고 도로도 파헤치고 그러지 말고요.
- 이윤희 북한에 도와 주기는 도와주는데 그런 쪽에 많이 새나가는 거지요.
- 신혜순 장애시설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공무원을 미워하거든요. 동사무소를 가던 어디 가든 3분의 1은 짜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이고 어디를 가도 싸가지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서를 가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갖다가 무슨 뭘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으면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밍거든요. 공무원들은 머리 개조를 시켜야 되요. 3분의 1은 다 짜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쓸데없어요.
- 이정아 국회의원은 3분의 1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 안병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요즘 보면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인 그런 것을 아직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핵 문제도 보면 우리가 진짜 북한에 엄청 많이 줬잖아요. 4천억 달러가 어떻게 계속 나오는데 뒷거래가 되는 것이 우리는 진짜 하나도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특검제 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랬었구나 해서 아는데 외교적인 것에 미숙하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 김용인 건물도 외국으로 넘어가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지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잖아요. 기업이요.
- 이민자 큰영업이 넘어갔잖아요.

- 이정아 에스케이도 까딱까딱하고요.
- 김용인 에스케이가 노태우대통령 사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케이티가 국영기업체니까 그때만 해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조니 직원들이 편리하고 좋았는데 민영화로 되어서 사장이 있고 사장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게 넘어가고 지분이 9%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태우대통령이 사위나 친인척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조잖아요.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친인척비리를 불사르고 내 가족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 이민자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저는 기업인들을 상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경제가 Imf전보다 힘든데 문제는 사실적으로 1년 연간 매출액을 따져보면 어떤데는 3분의 1정도 줄이고 반정도줄 인 것을 보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아요.
- 사회자 앞으로 청와대 문장이 바뀐다면 어떤 의미가 부여됐으면 하시는지 적어주세요.  
(신의 믿음, 희망평화, 한국을 대표하는 느낌, 정직한 사회, 살기좋은 나라,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는 청와대 문장에서 남대문 같 것, 강한국민, 믿음, 신뢰감)
- 이민자 지붕을 그대로 기와집을 그대로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어떤 의미가 담겨지기를 바라시나요?  
이민자 우리나라 전통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 이정아 신의 믿음은 청와대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잘 나타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이 마크는 원하시는 의미가 느껴지나요?  
이정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 김명숙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와대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마크도가 그런가요?  
김명숙 파란색이 색깔 때문에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았으면요.
- 안병진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딱 우리나라를 봤을 때 기와집 같은 것이 전통적인 문양이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를 고수해서 썼거든요. 색깔도 그린색이 평화나 평온함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거든요.
- 이윤희 정직한 사회로 청와대 파란색이 정직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건데 그 안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같이 아귀다툼이 없이 잘 맞게 하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정직한 사회가 될 것 같고 초록색이 평화를 상징하는데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봤거든요.
- 윤영남 우리나라 전통기미가 있는 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남대문이라든지 그런 것이요.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좋아요.
- 신혜순 강한국민인데요. 이거는 국가적인 슬로건이나 로고를 생각하는지 청와대 자체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청와대를 생각하는 데는 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 신혜순            촌스럽고 거기에서 딱 청와대 그집 자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파란색에다가  
집이니까요. 백악관이 하얗듯이요.
- 김용인            이정아씨하고 일맥상통해요.
- 이민자            거기다가 비둘기를 기와 대신에 옆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정아            기와가 천안문도 크고 그렇잖아요.
- 사회자**            **청와대문장을 바꾼다면 어떤 색상이 좋을 것 같으세요?**
- 윤영남            등근면을 황금색으로 황금색 하면 우리나라 왕도 생각나고 고급스럽고요.
- 이정아            흰색 원을 황금색으로 해도 좋아요.
- 이정아            황금색으로 하면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 김용인            안에도 바꾸어야지요.
- 신혜순            황금색에 청와대가 녹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 이민자            청와대 글씨를 황금색으로 바꾼다든지요.
- 사회자**            **황금색이 좋으세요?**
- 이민자            옛날부터 봉황새를 연상해서요.
- 이정아            동그란 것은 네모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 김용인            이정아씨 의견은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집도 딱딱한데 이게 낫지요.
- 사회자**            **색깔은 초록하고 파란색은 괜찮으세요?**
- 모 두            예.
- 사회자**            **대통령 표장을 바꾼다면 어떤 의미가 부여됐으면 하는지 적어주세요.**  
(포용력, 위엄, 엄숙한, 귀한느낌, 신뢰감, 사랑, 부드러움, 감격)
- 사회자**            **이유는요?**
- 이민자            품격인데 대통령 표장이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로 하는 분이니까 약간 믿음에  
대한 품위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면요.
- 사회자**            **지금은 품격이 느껴지나요?**
- 이민자            예.
- 김용인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했는데 봉황에다가 무궁화꽃이 있고 하니까 탁탁한  
느낌은 없고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 사회자**            **그런 느낌이 좋으세요?**
- 김용인            좋다고는 할 수 없고 대통령 표장이니까 엄격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지금 표장은 엄격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 김용인            그렇게는 안 들어요.
- 신혜순            근엄, 위엄/ 사랑인데 저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왕은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모든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 주지 않으면 남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엄 해야 되고 위엄도 갖추어져야 되고 반면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이라는 포용도 지녀야 되겠지요.

사회자  
신혜순

**지금 표장은 세 가지 중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무궁화는 우리나라꽃인데 표장에서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지요.

윤영남

고귀한이 생각이 났는데 고귀한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봉황은 일반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고 특별한사람한테 어울리고요. 표장을 보면 일단 봉황이 보이니까 고귀함이 생각나요.

사회자  
윤영남

**그게 대통령 표장에서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느낌이세요?**

예.

이윤희

신뢰감을 썼는데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가 느껴지거든요.

안병진

귀한이라고 썼는데 대통령 표장이라면 누구나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하고 오직 한 분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쓰이는 표장에 봉황이 상서로운 새라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딱 어울리고 상서롭고 귀하다.

김명숙

위엄, 엄숙함은 좁은 그렇고 위엄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위엄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아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요. 국민도 포용하고요.

사회자  
이정아

**이 표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나요?**

괜찮아요. 둘이 마주 보고 무궁화를 포용하고 있으니까요.

사회자  
이정아

**대통령 표장에 바뀌었으면 하는 색상은요?**

금색보다 더 좋은 색이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김명숙

마음에 들어요.

이민자

바탕도 시원해 보이고요.

김명숙

파란색이 평화도 상징하고요.

이정아

파란색이 안정된 색이라서 보면 안정되어 보여요.

사회자  
이민자

**청와대 문장이나 대통령 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바라고 싶은 점은요?**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많은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변형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인

앞으로도 지금 처음에 하시듯이 이런 문구처럼 국민들이 신뢰감과 믿음을 계속 유지 해나갈 수 있게 꿈 바램이에요.

신혜순

봉황은 안 바꾸었으면 좋겠고 어디든지 대통령표장은 그게 있으니까 마음에 들고요.

윤영남

둘다 괜찮고 바꾼다면 청와대문장에서 색깔을 바꾸고 깨끗한 정부를 끝까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 이윤희            두 가지는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것이 있다면 공모를 해서 많이 선호하는 것을 하면  
                      좋고 투명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 안병진            둘다 마음에 들어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고 청남대에서 대통령이 한자를 쓰셨는데  
                      호사구팽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호랑이는 어떤 것을 볼때 결눈질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좌우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소처럼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정치를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래요.
- 김명숙            저도 두 개가 다 좋고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은 소신을 잃지 않고 국민의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잘 지켜져서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이정아            두 개는 괜찮고 안 바꾸었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옛날에 그 우스개소리가 있잖아요.  
                      박정희대통령이 술에 밥을 가득 담아 놓으니까 전두환대통령이 엄청 퍼먹고  
                      노태우대통령이 누룽지 굶어먹고 김영삼대통령이 밥술을 잊어버렸데요.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이 밥술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새로 밥을 해서  
                      경제가 잘되고 국민들이 실망 안하면 정치를 잘해 주셔서 잘 살고 부자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 사회자            대통령과 표장과 관련해서 봉황을 쓰는 것이 중국의 속국이라서 용을 쓸 수 없  
                      었기 때문에 봉황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거  
                      나 그런 의미로 봉황을 쓰게 되었다고 해도 이 표장을 갖고 가야 하는지 어떻  
                      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 김명숙            의미가 그렇다면 바꾸어야 되지요.
- 사회자            대부분이 몰랐잖아요?  
                      모 두            몰랐어요.
- 운영남            그렇다면 바꾸어야 되요.
- 신혜순            기분 나쁘지요.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보다 우월감이 더 있는데요.
- 사회자            누구를 찍으셨나요?  
                      이민자            노무현씨.
- 김용인            이회창씨.
- 신혜순            이회창씨.
- 운영남            노무현씨.
- 이윤희            이회창씨.
- 안병진            이회창씨.
- 김명숙            노무현씨.
- 이정아            노무현씨.
- 사회자            이회창씨를 찍으신 분도 많으신데 좋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윤희            그때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젊은 것이 좋고요.

- 신혜순           아직은 잘한 것이나 그런 것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너무 열 받아서요.
- 안병진           그거야 노무현대통령 때문예가 아니고요. 노무현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면 안되지요.
- 이윤희           그때는 이회창씨로 흘러갔거든요. 그분이 됐으면 옛날의 재탕이 됐을 것 같아요.
- 신혜순           이회창씨가 됐으면 미국에서는 이회창씨가 되는 것이 좋아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 이정아           실제로 보면 박정희대통령처럼 큰소리를 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 사회자           말씀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 참고 2 설문조사 통계표

【 표 0 】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
■ 전 체 ■	(120)	100.0%
■ 성 별 ■		
남 자	(90)	75.0%
여 자	(30)	25.0%
■ 연 령 별 ■		
2 0 대	(16)	13.3%
3 0 대	(53)	44.2%
4 0 대	(48)	40.0%
5 0 대 이 상	(2)	1.7%
무 응 답	(1)	.8%
■ 직 급 ■		
1,2 급	(3)	2.5%
3,4,5 급	(80)	66.7%
6,7,8 급	(20)	16.7%
9,10 급	(13)	10.8%
무 응 답	(4)	3.3%

【 표 1 】 노무현 대통령 느낌/ 이미지 (중복응답)

[ 문 1 ]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친근/ 서민적	98	81.7%
개혁적	42	35.0%
원칙	35	29.2%
정직/ 신뢰/ 진솔	34	28.3%
젊음/ 신선함	25	20.8%
강인함	21	17.5%
추진력	21	17.5%
논리적 사고와 표현	12	10.0%
국민통합	4	3.3%
파격적	4	3.3%
참여	4	3.3%
청렴	3	2.5%
인터넷	3	2.5%
격식에 얽매이지 않음	3	2.5%
이마의 주름	3	2.5%
희망 돼지	2	1.7%
불안정	2	1.7%
투박함	2	1.7%
열정	2	1.7%
우직함	2	1.7%
고생하다	1	.8%
경박	1	.8%
정의로움	1	.8%
강정이입	1	.8%
동북아 중심	1	.8%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 한다	1	.8%
청문회	1	.8%
후덕	1	.8%
한복	1	.8%
감성적	1	.8%
직관이 뛰어남	1	.8%
직선적	1	.8%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1	.8%
사투리 억양	1	.8%
모험	1	.8%
약함	1	.8%
노란 손수건	1	.8%
직설적	1	.8%
꿈	1	.8%
복지	1	.8%
성실	1	.8%
절제	1	.8%
희생	1	.8%
인권 변호사	1	.8%
상고 졸업자	1	.8%
광대뼈	1	.8%
원주먹	1	.8%
계	120	100.0%

【 표 2 】 청와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느낌/ 이미지 (중복응답)

[ 문 2 ] '청와대'(대통령과 비서진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 국민들의 원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친근감	69	57.5%
투명/ 정직/ 신뢰	31	25.8%
청렴	14	11.7%
존엄/근엄	14	11.7%
전문성/ 능력	13	10.8%
개혁적	12	10.0%
부지런함/열정/ 역동적	11	9.2%
리더쉽	7	5.8%
깨끗/ 깔끔	5	4.2%
안정	5	4.2%
거리감	4	3.3%
공정	4	3.3%
권력	3	2.5%
없다	3	2.5%
희망	3	2.5%
절제	2	1.7%
역동성	2	1.7%
핵정책	1	.8%
자유스러움	1	.8%
조용함	1	.8%
보수와진보의조화	1	.8%
푸른들판	1	.8%
신나는일	1	.8%
기관차	1	.8%
햇불	1	.8%
궁금증	1	.8%
통제	1	.8%
검소	1	.8%
중립	1	.8%
전통미가부족한건물	1	.8%
접근이쉽지않은장소	1	.8%
민심을정확하게읽었으면	1	.8%
비공개	1	.8%
국민들과의일치된모습	1	.8%
호화스러움	1	.8%
산뜻함	1	.8%
단아함	1	.8%
대통령에대한언로단절우려	1	.8%
먼곳	1	.8%
권부	1	.8%
평등	1	.8%
세련미	1	.8%
힘있는모습	1	.8%
계	120	100.0%

【 표 3-1 】 대통령 표장의 장점

[ 문 3 ] 다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위엄과 권위	34	41.0%
친숙한 이미지	20	24.1%
한국 고유의 전통적 느낌	18	21.7%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	11	13.3%
계	83	100.0%

【 표 3-2 】 대통령 표장의 단점

[ 문 3 ] 다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권위주의적 거리감	46	59.7%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이미지	16	20.8%
복잡하고 조잡한 느낌	11	14.3%
획일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4	5.2%
계	77	100.0%

【 표 3-3 】 대통령 표장의 교체 희망 여부

[ 문 3 ] 다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사례수	희망	반대	모름/ 무응답	계
		%	%	%	
■ 전 체 ■	(120)	40.0	57.5	2.5	100.0
■ 성 별 ■					
남 자	(90)	40.0	58.9	1.1	100.0
여 자	(30)	40.0	53.3	6.7	100.0
■ 연 령 별 ■					
2 0 대	(16)	37.5	56.3	6.3	100.0
3 0 대	(53)	50.9	45.3	3.8	100.0
4 0 대	(48)	29.2	70.8	.0	100.0
5 0 대 이 상	(2)	50.0	50.0	.0	100.0
무 응 답	(1)	.0	100.0	.0	100.0
■ 직 급 ■					
1,2 급	(3)	66.7	33.3	.0	100.0
3,4,5 급	(80)	40.0	60.0	.0	100.0
6,7,8 급	(20)	35.0	55.0	10.0	100.0
9,10 급	(13)	38.5	53.8	7.7	100.0
무 응 답	(4)	50.0	50.0	.0	100.0

【 표 4-1 】 청와대 문장의 장점

[ 문 4 ] 다음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청와대를 잘 나타냄	28	41.8%
간결한 느낌	11	16.4%
친숙한 이미지	9	13.4%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	7	10.4%
산뜻하고 신선한 느낌	6	9.0%
명쾌한 이미지	4	6.0%
한국 고유의 이미지	2	3.0%
계	67	100.0%

【 표 4-2 】 청와대 문장의 단점

[ 문 4 ] 다음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Count	Count Percent
상징성이약함	23	39.0%
세련미가떨어짐	16	27.1%
권위적이고딱딱함	10	16.9%
역동적이지못하고답답한느낌	4	6.8%
민족적/ 국가적이념이나정체성부족	4	6.8%
궁궐 이미지	2	3.4%
계	59	100.0%

【 표 4-3 】 청와대 문장의 교체 희망 여부

[ 문 4 ] 다음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사례수	희망	반대	모름/ 무응답	계
			%	%	%	
■ 전 체 ■		(120)	60.8	35.8	3.3	100.0
■ 성 남 ■	■ 별 자 ■	(90)	57.8	40.0	2.2	100.0
	■ 별 자 ■	(30)	70.0	23.3	6.7	100.0
■ 연 령 ■						
	2 0 대	(16)	62.5	37.5	.0	100.0
	3 0 대	(53)	67.9	24.5	7.5	100.0
	4 0 대	(48)	52.1	47.9	.0	100.0
	5 0 대 이 상	(2)	100.0	.0	.0	100.0
	무 응 답	(1)	.0	100.0	.0	100.0
■ 직 급 ■						
	1,2 급	(3)	66.7	33.3	.0	100.0
	3,4,5 급	(80)	61.3	36.3	2.5	100.0
	6,7,8 급	(20)	50.0	40.0	10.0	100.0
	9,10 급	(13)	69.2	30.8	.0	100.0
	무 응 답	(4)	75.0	25.0	.0	100.0

【 표 5 】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 상징물

[ 문 5 ]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Count	Count Percent
태극무늬	21	17.5%
호랑이	19	15.8%
없음	11	9.2%
한복	6	5.0%
백두산	6	5.0%
무궁화	5	4.2%
한글	4	3.3%
소나무	4	3.3%
아리랑	4	3.3%
남대문	3	2.5%
붉은악마	2	1.7%
국민의힘	2	1.7%
학	2	1.7%
한반도지도	1	.8%
태백산맥	1	.8%
대한민국	1	.8%
한반도	1	.8%
정	1	.8%
무정견	1	.8%
용	1	.8%
IT	1	.8%
단청	1	.8%
천부경	1	.8%
진달래꽃	1	.8%
태극기	1	.8%
경복궁	1	.8%
불국사	1	.8%
북	1	.8%
탈	1	.8%
태권도	1	.8%
거북선	1	.8%
무병왕능금관장식	1	.8%
모름	1	.8%
홍익인간	1	.8%
매듭	1	.8%
천마도	1	.8%
여유로움	1	.8%
우리의식	1	.8%
천지	1	.8%
역동성	1	.8%
가을하늘	1	.8%
하늘송배사상	1	.8%
십장생	1	.8%
봉황	1	.8%
계	120	100.0%

## 참고 3. FGI 가이드라인

## Guide Line

### A. Warming Up (10분 이내 간단히)

- (핸드폰 꺼줄 것 요청 후) 좌담회 내용 대략 설명(대통령 이미지/청와대 심볼마크 등)
- 참여방식에 대한 소개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없이 말하면 된다는 분위기 조성)
- 참석자 자기소개 (이름, 거주지 등 간단히 소개)

### B. 대통령/참여정부/청와대에 대한 이미지

-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답변 후) 그 이유는요?
- 노무현 대통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답변 후) 그 이유는요?
-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이나 좋은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후) 그 이유?
-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단점이나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후) 그 이유?
- 노무현 대통령을 동물로 표현하면 어떤 동물인 것 같으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르다는 참석자에게) 그럼,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다르다는 참석자에게) 참여정부의 색깔은 어떤 것 같으세요.
- ○○님께서 청와대 하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답변 후) 그 이유는요?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에 청와대에 대한 느낌은 달라지셨습니까?
- 다음에는 청와대를 사람에 비유해보겠습니다. 만일 청와대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는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 청와대라는 사람의 취미는요?
- 청와대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 (청와대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술은요?
- 청와대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청렴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까?
- 청와대라는 사람은 검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헤픈 사람인 것 같습니까?
- 청와대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 (청와대라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 청와대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진 등을 포함해서 현재 청와대의 모든 인력을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C. 대표 상징물

- 청와대 또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그러면, 북한까지 포함하여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는 무엇을 꼽으십니까?

### D. 청와대 문장 및 대통령 표장에 대한 이미지

- 청와대 문장이라는 마크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청와대 문장을 보여줌) 청와대 문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청와대 문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 (얼굴그림을 나누어줌) 청와대 문장이 대체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보통이신 분? 마음에 안드시는 분?’(얼굴그림 거수) (답변 후) 그 이유는요?
- 청와대 문장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꾸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간이신가요? (얼굴그림 거수)
- 다음에는 대통령 표장이라는 마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표장이라는 마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대통령 표장을 보여줌) 대통령 표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대통령 표장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 대통령 표장이 대체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보통이신 분? 마음에 안드시는 분?’(얼굴그림 거수) (답변 후) 그 이유는요?
- 대통령 표장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꾸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간이신가요? (얼굴그림 거수)
- (우리나라의 청와대 문장이나 대통령 표장과 같은) 외국의 정부 상징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있는 경우)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느낌은 어땠습니까?

### E. 새로운 심볼마크에 대한 의견

-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청와대 문장을 다시 보여줌) 만일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면,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이에 적게 함
- 청와대 문장을 바꾼다면, 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까?
- 다음에는 대통령 표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표장을 다시 보여줌) 대통령 표장을 바꾼다면, 이 표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이에 적게 함
- 만일 대통령 표장을 바꾼다면, 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까?
- 청와대 문장과 대통령 표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무엇이든 좋으니 말씀해주십시오.

## 참고 4. 설문조사지

**청와대 CI 관련 여론조사** (2003. 4. 22-23)

안녕하십니까? 홍보수석실 內 행사기획비서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청와대 심볼마크와 관련하여, 청와대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문항이 많지 않으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SQ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SQ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 SQ 3. 직급            ① 1·2급            ② 3·4·5급            ③ 6·7·8급            ④ 9·10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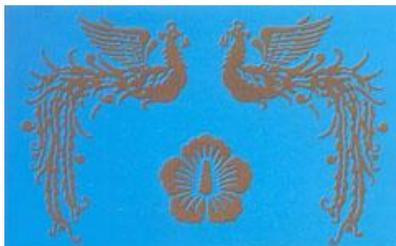
1.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 \_\_\_\_\_ , \_\_\_\_\_

2. ‘청와대’(대통령과 비서진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 국민들의 원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 \_\_\_\_\_

3. 다음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 ▶ 장점 : \_\_\_\_\_
- ▶ 단점 : \_\_\_\_\_
- ▶ 교체 : ① 희망 ② 반대

4. 다음은 청와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귀하가 보셨을 때, 이 문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교체 희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 ▶ 장점 : \_\_\_\_\_
- ▶ 단점 : \_\_\_\_\_
- ▶ 교체 : ① 희망            ② 반대

5. 우리 한민족을 대표할만한 유형/무형의 상징물로는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_\_\_\_\_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